



3

198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3호

(루계 485)



◆◆◆◆◆◆◆◆ 차 례 ◆◆◆◆◆◆◆◆

| | |
|-----------------------|----|
|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며 | 4 |
| 오늘도 배가 떠간다 | 4 |
| 아, 나의 조국은 | 5 |
| 우러러 뜨거운 이 마음이어! | 6 |
| 3인 1당..... | 7 |
| 빛나라 향도의 별 | 15 |
| 백두산의 단풍계절..... | 15 |
| 위대성에 대한 생각 | 16 |
| 애국의 글밭 | 16 |
| 왕재산의 참나무 | 17 |
| 나에게는 화선악기가 있다..... | 17 |
| 조양나루 | 18 |
| 탄부의 삶 | 18 |
| 명제해설 | 19 |
| 작가들의 정다운 집 | 20 |
| 나의 기관사..... | 22 |
| 봄, 처녀들이 웃는다 | 30 |
| 80년대 혁신자들과 함께 | 31 |
| 친선의 밤 | 33 |

| | |
|---------------------------------|----|
| 심장은 속삭이네 | 34 |
| 궤도를 받드는 미음 | 35 |
| 땅과 농민 그리고 소조원 | 38 |
| 땅의 고백 | 40 |
| 키낮은 교단에서 | 42 |
| 서두르는 봄날 | 43 |
| 자연을 길들이는 사람들 | 49 |
| 순천이여 | 51 |
| 미래를 키워가는 마음 | 51 |
|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와 우리 문학 | 52 |
| 레사로운 저녁에 | 58 |
| 생활이여 흐르라 | 59 |
| 기쁘더라, 나를 부를 때 | 59 |
| 작가의 문체 | 60 |
| 그날의 포탄상자 (외 1 편) | 63 |
| 아이와 병사 | 63 |
| 세월은 흘러도 | 64 |
| 시간과 교원 | 65 |
| 묘향산을 노래한 《향산별곡》의 사상예술적 특성 | 72 |
| 두터운 우정속에서 나눈 이야기 | 76 |
| 나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 77 |
| 발파소리 | 79 |
| 해빛을 그리네 | 80 |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며

전찬기

그 엄혹한 나날
어리신 나이에
우리 수령님 눈보라 길 헤쳐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행복한 오늘의 대오속에
귀밑머리 희여진 나도 걸으며
깊은 생각 안아보는
배움의 천리길

세대와 세대를 이어
애국의 혈통을 이어 걸고걸는 이 길
눈들어 바라보면 저앞에 걸으시는
그날의 수령님 영상 마음속에 안겨오는 길

그날의 수령님 나이는 어리셨어도
지니신 뜻 그리도 높으셨기에
지금도 그 누구에게나 깨우쳐주어라
애국의 마음은 자신을 바치는 마음임을

오, 길이여 력사의 길이여
오늘의 이 귀중한 깨달음 안아보라고
은혜로운 향도의 손길은
우리를 이 길우에 세워주었구나

배움의 천리길 !
내 평생 이 귀중한 깨달음 간직하고
드림없이 이 길로만 걸고걸으리라
혁명의 만리길 억만리길로!

오늘도 배가 떠간다

-란촌혁명사적지 나루터에 전시된 쪽배앞에서-

박철

그날엔 푸른 물 출렁이던 늪
오늘은 늪실대는 벼의 물결
마치 배가 떠가는듯싶구나
배전을 흥치는
그 금빛이삭의 바다우를

어디서 떠나
어디로 가는가
뜨거워지는 가슴에 노를 저으니
추억의 물결 거슬러오르는
그날의 쪽배...

배머리에 앉으시여
일가친척 원썩에게 다 잃은 한 로인의 슬픔
온밤 함께 나누어주시고

못다 기울인 마음이 계신듯

수령님께선 새벽 배머리에 그냥 앉으시여

한바퀴 -
이교장 전쟁의 폐허를 가셔주시듯
뒤엎킨 갈숲을 헤치시며 또 한바퀴 -
그이께선 로인에게 말씀하셨네
늪에 띄울 막아 논을 풀자고

죽아래 저기엔 오리를 기르라고
이 기슭의 래일을
따뜻한 미소로 그려주셨지
아침식사도 건느시고
비말에 옷자락 적시시며 또 한바퀴 -

이제는 그 늪은 없고
이제는 헤치시던 그 갈숲도 없고...

아,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결에
 배전을 치는 이삭의 금물결
 가슴엔 일렁이는 격정의 물결

어디서 떠나 어디로 가는가
 해빛이 웃는 창문들
 목메이게 풍겨오는 난알의 향기
 부유한 이 기슭에 닻을 내려도 좋으련만

오늘도 떠가는 그날의 쪽배여
 아, 꽃피는 란촌마을 두둥실 실고
 그날의 쪽배는 끝없이 떠나니
 어버이수령님 은정의 그 손길은
 늪우에 기슭없는 사랑의 바다를 펼쳐주셨구나
 닻없는 행복의 배를 띄워주셨구나

아, 나의 조국은

김영식

행복 넘치는 땅
 이 땅 어디 가나
 뜨거움에 젖어 나는 우러르노라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
 못잊어 노래하는 사적비들을

천고의 밀림을 헤치고
 아아한 백두산정에 오르면
 눈보라 만리 혈전을 헤쳐
 광복된 조국을 안겨준
 수령님의 그 위업 뜨겁게 새긴 글발
 천년바위마다 력력하고

굽이굽이 직동령 넘어
 그날의 전호가를 찾으면
 포연 서린 화선길 헤쳐
 전승의 축포를 마련해주신
 수령님 그 자옥에 눈굽은 젖어드나니

이 땅 그 어디라
 유서깊은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강선을 찾으시던 갈림길에도
 청산별에 만풍을 안겨주시고
 끝없이 헤쳐가신 창성땅에도
 수령님 자옥 아니 찍힌 곳 그 어디나

노을피는 공장구내 해쫓는 농장별...
 때로는 발목 적시는 이슬길로
 때로는 비에 젖는 덩불속 언덕길로
 사랑의 자옥자옥
 그 길에서 지새신 밤은 그 얼마
 그 길에서 맞으신 눈비는 또 얼마

아, 자식을 찾아가는 어버이의 걸음엔
 이 세상 멀고 험한 길이 따로 없듯이
 그렇게 찾아가시였구나
 인민이 있는곳이라면
 이 땅, 그 어디라도

그래서
 가는곳마다 사랑의 이야기
 분계선마을에 가면
 웃음처럼 감알도 주렁진 마을에
 동해의 기슭에 찾아가면
 만선의 노래 유정한 그 부두에

진정 우리 수령님
 한순간 휴식도 잊으시고
 한평생 걸으신 사랑의 자옥에
 꽃은 피고 열매는 무르익어
 인민들의 행복넘친 창가엔
 한점 그늘도 없나니

아, 감사의 노래 불타는 마음
 돌이면 가장 좋은 돌을 골라
 말이면 가장 뜨거운 말을 골라
 절절히 새기고새기어
 가장 아름답고 해맑은 곳곳에
 인민은 기념비를 세웠거니

어이 다 노래하랴
 날마다 솟아 빛발치는 영광의 기념비
 아, 나의 조국은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기념비인걸...

우러러 뜨거운 이 마음이어 !

최광만

가장 준엄했던 전화의 그날에
우리 수령님 입으셨던 군복이 여기 있어라
전승기념관의 넓은 방안
아버이수령님의 수수한 솜군복이어

얼마나 많은 포연이
저 옷 갈피갈피에 스며있으랴
3년간 포화속에 인민을 안고 걸으신
수령님의 그 자욱이 여기 다 있다

평화론 인민의 안녕을 깨뜨린
미제침략의 불길을 맞받아
피어린 항일의 그날처럼
몸소 우리 수령님께서 입으셨던 군복
인민을 향한 원수들의 불비를 막아주신
아, 아버지수령님 군복

스며있어라
포화속의 철령을 몸소 넘으시여
가렬치절한 고지우에 병사들과 함께 계시던
그날의 전호가
그 준엄한 포연이

어려있어라
이 군복 입으시고 몸소 최전선을 찾아주신
그 넓은 품에 얼굴 묻었던
병사들의 감격의 눈물자국이

수많은 생각 불러내는
저 군복 앞자락
때로는 싸우는 고지우에
돌격으로 이끄는 기폭이 되었고

때로는 최고사령부의 밤
잠든 교아의 단꿈을 지켜준 요람이 되었으니

아, 보기엔 그토록 수수하여도
가장 숭고한 뜻이 어려있어라
사랑이 !
증오가 !
나래치는 강철의 의지가 !

빛발치고있어라
백전백승의 전법으로
원수격멸의 화살표를 힘있게 그어가시던
최고사령부의 그 불빛이 !
조선은 언제나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이 !

아, 조국 위한 성스런 싸움의 나날에
언제나 평범한 전사들속에 계시며
한평생 인민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조국을 지켜주신 우리 수령님

아직 이 땅에 원수가 남아있어
안아지킨 행복이 하도 소중하시여
원수격멸의 그 맹세 촘촘히 새겨안고
우리 수령님의 군복은 여기 있거니

우러러 가슴 적시노라
백천번 허리 굽혀
저 옷깃 뜨거이 쓰다듬고싶은
아, 전화의 그날 그이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 터쳐올리던 병사들처럼
자꾸만 설레이는 이 마음이어!

3인 1당

△나오는 사람들

박정승

최정승

문정승

민천산(가짜도사)

안사인(변절하는 심복)

월단(박정승의 딸)

류화(박정승의 처)

박첨량(박정승의 아버지)

담동(문정승의 아들)

금향(최정승의 첩)

홍무관(박정승의 심복)

허장사(문정승의 심복)

유겸상(최정승의 심복)

부원군

도승지

상궁

사진(백마국의 사진)

그밖에 하녀, 간판, 자객, 무관들, 문관들,
병졸들, 기생들, 《백마국》의 무사들...

서장

설화자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파쟁과 분렬의
죄악을 불사르며 길림에서 첫 막을 열었던 불후의
고전적 명작 《3인 1당》!

3 부통합을 운운하면서도 파쟁에만 열을 올리
던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에게 환상적인 옛 송도국의
이야기를 통하여 단결의 진리를 깨우쳐준 1929년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 그
혁명연극을 각색하여 다시 막을 열게 됩니다.

△막이 열린다.

△앞사막에 그때를 회상하며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광폭영사로 모셔진다.

《...그 연극이 효과를 냈습니다.

그들이 몇달동안 싸움만 하더니 그 연극을
본 다음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
으로 합쳤습니다.》

△황금룡상이 눈부신 빛을 뿌린다.

△방창속에 세 정승이 서로 앞을 다투며 그 룡
상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끌고가려고 한다.

△검은구름이 몰려오며 번개가 인다.

방창

먼 옛날 송도국 무릉도원에

세 정승이 검은구름 몰아왔다네

황금룡상 서로 탐내니

산천도 룡상도 빛을 잃었네

아 파쟁바람에

이 나라의 운명은 어이 될소냐

△방창이 고조될 때 제명이 새겨진다.

혁명연극

3인 1당 제 1장

송도국의 대궐

△왕실문앞에 두 호위무관이 서있다.

△인경소리 구슬프게 울린다.

△《박대감 들시오-!》하는 소리와 함께 박
정승과 안사인, 홍무관이 나온다.

△두 호위무관이 왕실문을 열며 나간다.

△침실쪽에서 왕실의원과 상궁, 시동들이 나오
다.

박정승 상궁, 상감마마께서 운명하셨다는데 그
게 사실인고?

상 궁 며칠전부터 병세가 더 악화되시더니...
방금전에 끝내 숨을 거두셨나이다.

박정승 뭐라구? 그럼 어서 나를 상감마마의 령
전으로 안내하라.

상 궁 저... 아직은 들어가실 형편이 못되어 먼
저 오신 문대감님도 침실밖에서 기다리고계시나이
다.

박정승 문공이 어느새? 아, 이 박정승도 찾지
않고 그냥 가시다니... 으흠...

상 궁 상감마마께옵선 그 누구도 찾지 않으시
고 친척이라고는 단 한분밖에 안계시는 부원군님만
조용히 부르셨답니다.

박정승 부원군만을?!

상 궁 예.

△상궁 들어간다.

안사인 상감마마께서 그 누굴 부르시던지간에 우리 동남당의 세력을 봐서라도 대감님을 새 임금으로 정했을거야 뻔하지 않소이까.

박정승 그렇긴 하지만 벌써 그런 입빠른 소리 해셔야 되나.

홍무관 (조용히) 원 대감님두…

박정승 으하하…

△이때 《최대감 듚시오.》하는 소리가 들린다.

홍무관 최정승이 오시오이다.

박정승 저 량반두 이제 기승을 부릴텐데… (심복들과 함께 한쪽에 비켜선다.)

△이윽고 최정승이 유점상과 함께 나온다.

유점상 대감님, 상감마마께서 운명하신게 틀림없소이다.

최정승 명줄두 꽤나 길다 했더니…

유점상 예 ?

최정승 상감마마의 명이 너무도 짧단말일세.

△문정승이 안에서 나오다가 그들을 보고 빈곡성을 터뜨린다.

박정승 문공이랑 벌써들 오셨됐구려.

문정승 난 이 대궐안에 까닭없이 불이 일어 룡상마저 타버린 바로 그날부터 상감마마께서 앓아누우셨기에…

운봉산성지에서 새 황금룡상이 다 만들어졌다는 그 희소식을 알려드리면 자릴 차고 일어나실것 같아서 달려왔는데… 이젠 누가 룡상에 앉아 이 나라를 다스린단말이요 !

최정승 살아생전에 그처럼 좋아하시던 왕새우도 잡춰보지 못하고 가셨으니…

박정승 왕새우라니 ?

최정승 난 글썽 백마국군사가 남쪽변경을 넘어 쳐들어온다길래 상감마마의 피신처를 정해드리려고 해청도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왕새우를 가지고 왔는데 그새 벌써… 어서 제상에라도 가져다 놓아드리게.

△유점상 나간다.

박정승 그 지성을 알아주거나 하시겠는지. (도승지를 발견하고) 아 망극하도다.

문정승 망극하여라.

△이윽고 침실쪽에서 도승지가 나온다.

도승지 대감님들 오셨소이까.

박정승 도승지, 그대 상감마마께서는 무슨 유언을 남기셨는고 ?

도승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상감마마께옵신 세 정승중에 왕권을 넘겨줄만한 충신이 과연 어느 정승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며 새 임금을 점지할 무슨 말씀인가를 부원군님에게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소이다.

박정승 (큰소리로) 부원군에게 ?

도승지 그렇소이다.

박정승 아, 상감마마께서 운명하시면 난 뒤따라 순사하겠다고 벌써 이렇게 혈서까지 써가지고 왔는데 충신을 몰라보시다니.

문정승 아, 살아생전엔 날 그토록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원통하오이다.

최정승 상감마마께선 날 막내자식처럼 여기시구 늘쌍 최정승 최정승 하시더니 절통하오이다.

안사인 (박정승의 귀에 대고) 이젠 그 부원군님에게 잘 보이는게 상책이오이다.

박정승 옳거니, (큰소리로) 자 ! 상감마마께서 충신이 없다고 한탄하시며 돌아가셨는데 이려고들만 있겠소 ?

최정승 그럼 어찌겠소?

박정승 자고로 충신은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뒤따라 순사하여 저세상까지 가서 모셨다 하거늘 우리 이제라도 순사하여 충신의 넋을 보여드립니다. (하며 손을 내민다.)

두 정승 뭐요?

박정승 왜? 목숨이 그렇게들 아깝소?

문정승 원 천만에. 목숨을 끊읍시다. (자기도 손을 내민다.)

최정승 가만, 내가 먼저 가겠소. (그들의 손을 잡는다.)

박정승 최공이 ? !

최정승 아 이거 난 안되겠군. 난 상감마마의 장례식에 다른 나라 조객들을 청할 일도 있고 해서 약간 뒤늦게 따라가야 할것 같소이다.

박정승 (그를 뿌리치고나서) 문공, 그럼 우리 둘이라도 심감마마의 뒤를 따릅시다.

문정승 따… 따릅시다. 그… 그런데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혼처나 정한 다음에 인차 뒤따를테니 박공이 먼저 좀…

박정승 아니, 그 집 아들이야 우리 딸과 이미 혼약을 맺지 않았소 ?

문정승 하지만 박공네 딸이야 내 아들보다 나이도 훨씬 우이고 또 궁합도 맞지 않는다니 어찌겠소.

박정승 그러구두 충신들이야?! 좋소, 그럼 나혼자서라도 목숨을 끊겠소.

도승지! 상감마마의 유언을 접한 부원군에게 이 혈서를 보여드리고 송도국의 충신 박정승은 이제 곧 칼을 뽑아 순사한다고 전해주길 바라오.

도승지 대감님, 대감님마저 이렇게 가시면 상감마마의 뜻을 누가 이어가겠소이까?

박정승 내가 아니면 뜻을 이을 사람이 없겠느냐. 어서 들어가서 내 이 결심을 전하지 못하고.

도승지 (겉에 질려) 알겠소이다. (급히 들어간다.)

박정승 (금시 자결할듯이 차비를 하다가) 아니, 내 왜 칼을 차고 오지 않았니?!

두 정승 뭐?

박정승 상감마마, 소신은 칼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하나이다.

최정승 칼이 없으면 이 대돌에 이마를 쪼아서라도 명줄을 끊어잡지요.

박정승 여보, 불품없이 그렇게 죽어서야 저승에 가서 그 흥한 얼굴로 어떻게 상감마마를 모시겠소.

최정승 뭐요?

문정승 자, 칼은 여기 있소이다.

박정승 엉?!

최정승 칼이 있으니 이젠 어서 불품있게 순사하십시오.

박정승 (문정승한테서 칼을 받으며) 그럼 내 죽은 다음에 묘나 잘 췌주시오.

최정승 그런 건 조금도 걱정을 말고 어서 편안히 가시오.

문정승 이렇게 먼저 가는 박공을 보니 감동을 금할수 없구려.

박정승 많이들 감동하고 따라배우시오.

(칼을 추켜들고 계단으로 오르며) 상감마마! 소신은 단칼에 목을 베여 충신된 이 마음 초개같이 바치겠나이다.

△모두 긴장하여 그를 주시한다.

박정승 야-앗! 아니로다. 내 생각이 짧았도다,

문정승 아니로다?!

최정승 내 생각이 짧았도다?!

박정승 그렇소. 죽은 정승은 산 개만도 못하다는 말을 내 그만 깜빡 잊었댔소.

두 정승 뭐요?

박정승 백마국놈들이 쳐들어오고있는데 상감마마께서 부원군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도 모르고 나까지 죽으면 공들이 누구한테 의거해서 그놈들을 몰아내겠소?

최정승 과연 힘든 말을 찾아내셨소이다.

문정승 범대가리에 개꼬리로군.

박정승 뭐요?

문정승 예, 수고하셨는데 어서 그 땀이나 씻으시오.

박정승 후유, 내가 죽지 않은게 정말 다행이요.

△이때 간관이 들어온다.

간 관 아뢰오!

박정승 무슨 일이고?

두 정승 웬일이고?

간 관 백마국사신이 입결할것을 요청한다고 하옵나이다.

문정승 상감마마께서 돌아가셨는데 사신은 무슨 사신이고?

간 관 오늘 상감마마께서 만나시기로 약조가 되었다고 하옵니다.

박정승 상감마마께서?

간 관 예.

박정승 음, 그럼 들어보내라!

간 관 예잇. (나간다.)

최정승 아니, 어찌자고 그러시오?

문정승 상감마마께서도 안계신데 이거 참 난처하게 됐소이다.

박정승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대신한다는데 그까짓 한 나라 사신이 뭐길래. 어험.

△백마국사신이 무사들을 거느리고 들어선다.

사 신 송도국 국왕께서 애석하게도 운명하셨다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바입니다.

△세 정승이 인사를 받는다.

사 신 헌데 이젠 왕의 일을 누가 맡아보시게 되는지요?

박정승 (계단위에 올라서며) 할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시오.

문정승 (따라 올라서며) 무슨 말인지 나한테 하시오.

최정승 나한테 하시오.

사 신 하하... 그렇다면 세 대감님께서 함께 해주시오이다. 나는 백마국황제폐하의 사신으로 다시 한번 언명하건대 우리의 요구대로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다면 우리 백마국의 대군은 원정을 중지하고 이제라도 물러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궁성에까지 당장 쳐들어올것이요!

박정승 궁성에까지? 흥, 어림두 없소.

사 신 그럼 우리와 그냥 맞서 싸워보겠다는 말씀이요?

무사 1 누구든지 즉각 답변하십시오.

무사 2 답변하십시오.

박정승 아니, 자들은 왜 저래?

△문정승과 최정승은 겹에 질려 움츠러들며 박정승을 진정시키려 한다.

박정승 (무사들에게 다가서며) 남의 궁성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도 모르구...?

△무사들 그 기상에 놀리워 뒤걸음친다.

사 신 아아, 박정승대감님에 대해선 우리 나라에서도 잘 알고있소이다.

박정승 난 원래 우리를 해치려드는 놈들과는 조금도 타협을 모르는 사람ियो.

사 신 그렇다면 어디 한번 두고볼까요?

박정승 두고보자는건 무섭지 않소.

사 신 정 이러시겠소?

박정승 맘대로 해보구려.

사 신 (큰소리로) 가만!

박정승 (더 큰소리로) 소린 왜 지르는거야?...

사 신 이거 실례했소이다. 그럼 며칠 더 기다릴테니 잘 의논들 해서 답변을 주시오. (나간다.)

최정승 아니, 박공은 뭐길래 증빨나게 혼자 나서서 그러시는거요?

박정승 내가 아니면 누가 나서겠소? 잔뜩 주눅들이 들어가지구...

최정승 아니, 누군 뭐 박공처럼 큰소릴 칠줄 몰라서 그런줄 아시오?

문정승 옳소, 저 백마국대군에 비해 우리의 군사력은 너무도 보잘것없은즉 우리가 큰소릴 치자면 솔개국에 원병을 청해야 하오.

최정승 아아, 적아간에 강약이 부동일 땐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북서당은 아예 백마국군사를 멀리 피해 해청도로 이 대열을 옮겨다놓고 실력배양에 전념할 결심ियो.

박정승 이제라도 우리 동남당에 최공네 북서당과 문공네 서남당의 군사까지 다 모아 통솔할 권력만 차례진다면 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켜내겠소.

최정승 박공이?!

문정승 가만가만, 이제 좀 있으면 상감마마의 유언을 접한 부원군이 나와서 우리 셋중에서 새 임금을 정해줄건 뻔한데 이렇게 갑론을박할게 있소!

최정승 하긴 그렇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새 임금의 뜻을 따르기 마련일텐데.

박정승 좋소, 그럼 어디 두구봅시다.

두 정승 두고봅시다.

△이때 《상감마마의 유언이요.》하는 소리가 들린다.

△뒤이어 도승지가 달려나온다.

도승지 유언을 접하신 부원군님이 나오시오이다.
세 정승 부원군이?!

△부원군이 간신히 걸어나온다.

박정승 그래 무슨 말씀이 계셨소?

부원군 상감마마께옵신 운명직전에 꿈을 꾸셨사온데 그 꿈에서 운봉도사님을 만나뵈었다 하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소이다. ...불원간 운봉산에서 수십년 도를 닦은 운봉도사가 나타나 새 룡상에 앉을 임금을 정해주실터이니 세 정승은 그 도사님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잘 따를지어다... (들어간다.)

박정승 운봉도사가 새 임금을 점지해주신다?!

최정승 운봉도사라...

문정승 옳소, 상감마마께선 언젠가도 나에게 그런 도사님이 있다고 말씀하셨댔소.

박정승 그래 그 도사님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십니까?

문정승 그 모상은 지금도 내 눈에 선하오!

△그가 설명하는데 따라 신비로운 음악이 울리면서 뒤무대에 운봉도사가 환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최정승 그런 도사님이 운봉산에서 내려오신단 말이지...

문정승 상감마마의 꿈은 꼭 맞으실게요.

박정승 자 그럼 우리 서로 한뜻이 되어 운봉도사님을 기다려봅시다.

두 정승 기다려봅시다.

△세 정승 저마다 자기 심복들을 불러내여 모의를 벌린다.

△박정승이 안사인과 홍무관을 이끌고 앞으로 나올 때 주름막이 닫힌다.

박정승 그러니 왕권은 그 도사님에게 달렸는데 어떻게 한다?!

홍무관 그렇다면 그 도사님을 우리가 먼저 맞아들여야지요.

박정승 옳거니, 우린 앉아서만 기다리지 말고 한걸음 앞질러가서 맞아들이세.

안사인 그럼 소인은 이길로 우리 사람들을 데리고 운봉산성지에 가서 그 도사의 행처를 알아보겠소이다.

박정승 어서 그렇게 하계!

안사인 예잇!

△박정승은 안사인을 떠나보내고 홍무관과 함께 나간다.

제 2 장

박정승네 집

△월단이가 의자에 앉아 자고있다.

하 너 (나오며) 아가씨... 꿀물을 타오라고 하시더니 그새 또 잠드셨네.

△박정승이 홍무관을 데리고 등장한다.

박정승 (하녀에게) 그래, 운봉산에 간 안사인이 오늘도 집에 오지 않았느냐?

하녀 저... 오시지 않았사와요.

박정승 (홍무관에게) 그럼 홍무관은 다시 궁성으로 가서 잠시도 자릴 뜨지 말고 도사님이 오시는가 살펴야겠네.

홍무관 예... 그런데 백마국군사들이 저 무주성을 넘어섰다니 그것도 걱정이 아니옵니까.

박정승 얹친데덮친다고 정말 골치거릴세.

홍무관 아무래도 병법에 능하신 대감님께서 전장에 나가보셔야 할것 같소이다.

박정승 그러니 날더러 도사님을 기다리지 말고 전장에 나가라는건가?

홍무관 글쎄 도사님두 기다리긴 해야겠습니까만...

박정승 아무튼 그 일은 내가 알아 처리할테니 홍무관은 어서 시키는대로 하게.

홍무관 알겠소이다. (나간다.)

△이때 박첨량이 안에서 흥얼거리며 나온다.

박정승 아니, 아버님은 어딜 또 나가시우?

박첨량 오, 내 묘자릴 좀 돌아보구 와야겠다.

박정승 이런 도포를 입고 나다니시면 남들이 로망을 한다고 흉봐요. 어서 방에 들어가 누워있거나 하시우.

박첨량 봐라, 그럼 내 이 도포를 벗어놓고나가면 될게 아니냐. (도포 벗어 돌의자에 던지고 나가려 한다.)

박정승 (나가다가 월단이를 보고) 빌어먹을년, 애빈 도사님을 기다리느라고 며칠째 밤잠도 못자고 돌아치는데 낮잠까지 자?

박첨량 그 못생긴 얼굴에다가 나이까지 차서 시집두 못갔으니 썩어진 잠밖에 더 자겠느냐? (나간다.)

박정승 (하녀에게) 애, 저걸 어서 안방에 갖다줘라. (안으로 들어간다.)

하녀 알겠사와요.

△이때 파수병이 문정승과 담동을 데리고 들어온다.

파수병 (문정승에게) 대감님, 예서 잠깐만 기다리시오이다. (안으로 들어간다.)

문정승 애, 담동아, 네 색시될 월단이가 저렇게 잠을 자구있구나.

담동 (월단에게 다가가서 들여다보다가) 아이고, 저 얼굴을 좀 보시와요. 얼마나 못생겼나. 게다가 이발까지 빠드러지구.

문정승 애, 이녀석아, 다 시들어진 호박꽃이긴 해두 짝소리 말고 내 말대로 혼사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도사님이 나타나기전에 박정승을 알려넘겨

서 멀리 따돌리고 이 애비가 룡상에 앉게 된다고 하지 않더냐.

담동 알겠사와요.

문정승 그럼 넌 어서 밖에 나가 기다려라.

△담동 나간다.

△박정승이 관복을 벗고 나온다.

박정승 아니, 당대 안오시던 문공이 내 집엘 어떻게?!

문정승 예, 내 오늘 박공한테 사죄할게 있어서요.

박정승 사죄라니요? (문정승 몰래 월단이를 흔들어깨운다.)

월단 아이, 대감님. (인사한다.)

문정승 오냐, 여보 박공, 내 지금껏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구 애들의 나이가 어쩔소, 궁합이 어쩔소 하면서 생각을 좀 달리해오다가 오늘에야 사돈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널리 양해해주오.

박정승 아니, 그럼 우리 월단이를 머느리로 삼겠다는거요?

문정승 예, 사실 우리 두 집 애들의 혼사야 돌아가신 상감마마께서 친히 맺어주신건데 그 뜻을 어기고 지금까지 끌어온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요.

박정승 예, 그러니 5년만ैया 아귀를 짓게 되누만.

△월단이 《어머니-!》 하고 찾으며 들어간다.

문정승 하하... 여보 박공! 이젠 사돈을 맺었으니 난 박공을 믿고 우리 서남당의 군사를 몽땅 넘겨드리겠소.

박정승 예? 아니 그게 진정으로 하는 말이요?

문정승 아 그렇지 않구요. 백마국놈들이 지금 무주성까지 쳐들어왔다는데 까놓고 말해서 누가 이 송도국을 지켜내겠소. 이런 때 병법에 능하신 박공이 나라의 군사를 틀어쥐고 전장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도사님께서 오셔도 응당히 박공을 임금으로 정하실게고... 그렇게 되면 사돈인 나 역시 얼마나 기쁜 일이요.

박정승 그럼 내 생각을 좀 해보고 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소.

문정승 사돈!

박정승 사돈!

이때 류화가 월단리와 함께 나온다.

류화 우리 월단이 혼사때문에 오셨다는데 그게 사실이오이까?

문정승 예, 이거 정말 안사돈님 불면목이 없소이다.

류화 원 별말씀을... 애, 월단아!

문정승 자 그럼 우리 잔치날이나 정할가요 ?

박정승 예.

류 화 자, 어서 사랑채에 들어가서 의논을 하십시오.

문정승 예, 참, 우리 담동이두 같이 왔소이다.

박정승, 류화 그래요 ? !

문정승 (밖에 대고) 애, 담동아 ! 들어오너라 !

△박정승이 문정승을 데리고 들어간다.

류 화 (월단에게) 어서 ! (들어간다.)

△새들이 지저귄다.

△월단이 몸돌바를 몰라하는데 담동이가 대문 안으로 들어온다.

월 단 도련님 오셨소이까 ? (인사한다.)

담 동 (인사를 받으며) 예.

△월단이 와서 큰절을 하자 담동이도 큰절로 받는다.

담 동 저, 우리 아버님의 의향을 들었겠지 ?

월 단 예. (꿀물사발을 권하며) 이건 꿀물이와요. 어서 드시와요.

담 동 월단인 지금 몇살이라구 ?

월 단 저... 서른살에 두살이나 더 먹었사와요.

담 동 저거 ! 나보다도 열한살 우니까 우리 셋째 어머니와 동갑이네.

월 단 그래두 우리 아버진 날보구 늘 열여섯살 꽃나이같다고 하시와요.

담 동 하긴 호박꽃두 꽃이야 꽃이지.

월 단 호박꽃 ? 아니, 그럼 도련님은 제가 싫다는 것이오이까 ?

담 동 아, 아니, 싫으면 이렇게 찾아왔겠어 ?

월 단 호호...

담 동 월단이, 우리 잔치를 한 다음에 싸우지 말고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의 좋게 지내자구.

월 단 돌아가신 상감마마께서 우리 아버님들끼리 의 좋게 지내라고 맺어주신 혼약인데 우리야 뭇 때문에 싸우겠사와요.

담 동 좋아, 이제 운봉도사님이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를 룡상에 앉혀주시면 나는 장차 왕이 되고 월단이 왕후가 될거야.

월 단 우리 아버님을 룡상에 앉혀주시면 나는 공주가 되고 도련님은 부마가 되시옵구요.

담 동 부마 ?

월 단 왕의 사위가 된단말이와요.

담 동 월단인 공주가 되게 좋아 ? 왕후가 되는게 좋아 ?

월 단 그야 왕후가 되게 더 좋지요 뭐.

담 동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룡상에 앉아야 돼. 알만하지 ?

월 단 네, 그럼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사와요.

담 동 좋아, 그러니까 이답에 이게 룡상이라면 난 왕이 돼서 이렇게 척 앉게 될게구. 월단인 왕후가 돼서 내곁에 의젓하게 앉게 될거란말야.

△월단이 그의 곁에 앉아 거드름을 피운다.

△이때 박정승이 나오다가 나무뒤에서 그들을 바라본다.

담 동 월단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월단이 아버진 꼼처럼 둔하고 미옥해서 룡상엔 애당초 앉을 재목이 못된대. 그래서 술술 열려서 전장에나 내보내구 그사이에 도사님이 나타나면 왕족가문인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된다고 했어.

월 단 하긴 우리 아버진 머리에 든게 없어서 칼부림이나 할줄 알았지 임금님이야 못되지요 뭐.

담 동 하하...

월 단 호호...

박정승 (그들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뭐가 어찌구 어찌 ?

△월단 혼비백산하여 달아난다.

담 동 안녕하시와요 ?

박정승 뭐 안녕하시와요 ?

담 동 그럼 몸 편히 계시와요. (하며 대문밖으로 내뺌다.)

박정승 이놈의 새끼 !

△이때 웃음소리를 내며 문정승과 류화가 나온다.

문정승 그럼 이달 스무닷새날을 잔치날로 알고 난 그만 돌아가겠소.

류 화 예, 우리 월단이가 나이가 있어와서 하루라도 더 끝면 재미가 없을것 같아서요.

문정승 아 그렇지 않구요. 소꿉도 단김에 빼랬다구. 하하...

△박정승 억이 막혀 하늘만 쳐다보는데 매미가 운다.

문정승 사돈 ! 그럼 전장으로 나가실 때 다시 만납시다.

박정승 (언짢아 힐끗 돌아다보며) 예...

문정승 아하, 매미소리에 취하셨나보군요.

류 화 예, 우리 대감은 매미 우는 소릴 무척 좋아하싡니다.

문정승 그럼 편히들 계시오. (나간다.)

류 화 아니 대감은 왜 인사도 없이 그렇게 우두커니 서계시우 ?

박정승 뭐 인사 ? 저 문정승놈이 날 업어넘겨 전장에 내보내구 제혼자 도사님을 맞아들여서 통상에 앉는다고 희떠운 소릴 제쳤대.

류 화 뭐라구요 ? 아이구 원 대감두. 아 이자 방금 날 보구 왕비가 될거라구까지 말했는데요.

박정승 뭐, 왕비 ?

류 화 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간다.)

박정승 아이구 저 맹꽁이두 얼리웠구나. (바깥쪽을 향해 샷대질을 하며) 야, 이 수수대같은 키찍 다리놈아, 네간놈이 군사를 맡겨준대구 내가 도사님을 기다리지 않고 전장에 나갈줄 알았느냐.

내 몸집은 이렇게 곰처럼 둔해두 머리 도는건 얼음판에 팽이돌듯한다 ! (빙그르 돌다가 넘어진다.)

하 녀 (나오다가 그를 보고) 아니 대감님께서 왜 이러시나이까 ?

박정승 아,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 말발굽소리 들린다.

△안사인 들어온다.

박정승 안사인,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됐느냐 ?

안사인 운봉산성지를 살살이 뒤졌으나 도사님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소이다.

박정승 뭐라구 ?

안사인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 운봉도사라는 귀인은 이 세상에 없는것 같소이다. 실지 있다면야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겠소이까.

박정승 아니 그렇다면 황금통상은 다 만들어졌는데 누가 새 임금을 점지해주겠나 ? 누가 ?

안사인 설사 그 운봉도사가 나타난다 해도 꼭 대감님을 새 통상에 앉혀주신다고야 장담할수 없지 않소이까.

박정승 그럼 어떻게 하자는건가 ?

안사인 그래서 소인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수 있는 가짜도사를 하나 만들면 어떨가 생각하옵니다.

박정승 가짜도사를 ?

안사인 예, 다른 당파에 불리하고 우리에게 리로운 일이라면 거짓도 진실이라 내우기고 없는것도 있다고 내밀어야 할게 아니오이까.

박정승 옳거니, 그런데 가짜도사를 만들자면 그와 비슷하게 생긴놈이 하나 있어야 할게 아닌가.

안사인 그런놈은 제가 꼭 물색해보겠소이다.

박정승 그래 ? 고답네 고마워.

안사인 그럼 곧 떠날 차비를 하겠소이다.

박정승 어서 그렇게 하게.

△안사인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 대문밖에서 떠들썩한 소리 들린다.

박정승 무슨 일이고 ?

파수병 (들어오며) 웬 거렁뱅이 같은놈이 대감님을 친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박정승 뭐라구 ?

△민천산이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온다.

민천산 글썽 이 집이 내 칠촌조카사위네 집이라는데 왜 자꾸 이러는고 ! (박정승을 보고 다가서며) 아이구 너 마침 죽지 않구 살아있었구나. 택수야... !

박정승 뭐 택수야 ?

민천산 (흠칫 놀라 돌아서며) 가만, 내가 집을 헛갈렸나 ? ! 대나무가 있는 남향집은 틀림없는데...

박정승 어디서 이런 얼뜨기같은게...

민천산 허 랑반두 몰라보구 얼뜨기라니 ?

박정승 뭐 랑반 ? !

민천산 내 해청도에서 30 년동안 글을 읽고도 벼슬 한자리 해보지 못하구 이 꼴이 뻘이지만 이제 과거급제만 하면 고을원님 한자리엔 능히 할 사람입니다.

박정승 으하하...

안사인 (길 떠날 차비를 하고 나오다가) 대감님, 저건 웬놈이오이까 ?

박정승 해청도에서 굴러온 랑반되물림같은데 저 주제에 과거급제를 해서 고을원님이 된다는만.

안사인 벼슬에 환장을 한놈이오이다.

박정승 저놈을 당장 내쫓구 입간 어서 떠나도록 하게.

안사인 예, 너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하고.

△민천산 투덜거리며 나가려 한다.

안사인 가만, 게 좀 쏘거라. 뻘소이다. 뻘소이다.

박정승 왜다니 ?

안사인 등잔밑이 어둡다구 뜨락안에 기여든 이런 명물을 두고 공연히 헛걸음을 할번했소이다.

박정승 아니, 그럼 이놈을 ? !

안사인 대감님, 이 관상을 좀 보시오이다.

비자루같은 눈섭에 코는 주먹같은 복코요, 게다가 저 수염발에 불탄 달리면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릴것 같지 않소이까 ?

박정승 그러구보니 갓끈 떨어진 시골랑반치군 그 관상이 유별난걸 !

안사인 그렇소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 뒤져도 이런 인물은 쉽지 않소이다.

박정승 음, 그야말로 하늘이 점지해준 우리의 도사님이 분명토다.

민천산 예 ? 날더러 도사님이라구요 ? 으흐흐... 난 아직 조반두 굶구 다닌다야. 택수야-

박정승 뭐 ?

△민천산 다시 움츠러든다.

박정승 아니 이게 정말 얼뜨기가 아니야 ?

안사인 그래두 글깨나 읽었길래 아직 과거급제 할 생각을 하고있지 않소이까.

박정승 하긴 지내 똑똑한것보다 약간 어리어리한 편이 가짜도사로 써먹는덴 더 낫지 ?

안사인 예.

민천산 날 가짜도사로 써먹는다고 ? 아이구맙시사. 그런 당치 않은 말쑼은 그만두시오이다. (나가려 한다.)

안사인 너 이놈 ! (칼을 뽑아 목에 대고) 박대감님의 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걸 모르느냐 !

민천산 아이구, 죽을 죄로 잘못했소이다.

박정승 네가 이제부터 운봉도사라는 귀인으로 둔갑해서 내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네 소원대로 어느 큰 고을에 원님으로 보내줄테다.

민천산 큰 고을원님으로요 ?

박정승 그래그래.

민천산 어이구, 오늘이야 날 알아보는 량반이 있구만.

큰 고을원님벼슬을 주겠다면야 내 무슨 일이든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박정승 그러면 그럴테지.

안사인 대감님, 저놈에게 색다른 도포를 입히고 관이나 하나 척 씌워놓으면...

박정승 귀신두 속지. 그런것들은 마침 우리 집에 있네. 내 부친이 저 세상에 갈 때 입자구 미리 마련해둔건데 입자가 안방에 들어가서 당장 가져오게.
안사인 알겠소이다. (들어간다)

박정승 도사님, 도사님의 거처는 내 집 별당으로 정할가 하는데 어떻소이까 ?

민천산 황감하오이다.

박정승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널 존대해주면 넌 도사님답게 나한테 반말을 써야 할게 아니냐.

민천산 엉 ? !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워.

박정승 하자꾸나워 ?

민천산 아 그럼.

박정승 좋아, 좋아 도사님.

민천산 가만, 그런데 내가 도사놀음을 하자면 뭘 좀 알아야 할텐데...

박정승 예, 그건 제 있다 다 말씀해드리겠소이다. 우선 지금 백마국놈들이 쳐들어오고있는데 나라를 구원하자면 세 당파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하고 또 병법에도 아주 능한 인재가 룡상에 앉아야 하거늘 이제 세 정승이 다 모여오면 그저 이 송도국에 새 임금이 될 인재는 박정승밖에 없노라 !-

이 한 말씀만 엄하게 해주시면 되겠소이다.

민천산 아 그거야 뭐 힘들게 있나. 이 송도국에 새 임금이 될 인재는 박정승밖에 없노라 ! -

박정승 됐소이다. 됐소이다.

안사인 (도포를 들고 나오며) 대감님 !

박정승 자 어서 그 도포를 입혀드리세 !

△방창속에서 박정승과 안사인이 민천산에게 도포를 입히고 관을 씌우며 춤추듯 돌아친다.

방창

이 세상에 도사가 있거나 한가
있건없건 만들면 도사님이지
가짜로 만든 도사 그 누가 믿겠나
믿건말건 막판인데 해볼판이지
나라와 백성이야 흥하건망하건
룡상에만 올라타면 된단말인가

박정승 으하하, 안사인은 빨리 문정승과 최정승네 집으로 뛰여가서 드디여 운봉도사님이 나타나 이 박정승 대감님네 덕으로 먼저 왕림하셨다고 알려라 !

안사인 분부대로 다녀오겠소이다. (나간다.)

박정승 (안에 대고) 여보, 마누라 ! 도사님께서 오셨소.

△류화와 월단이 달려나온다.

류 화 아니, 도사님이라니요 ? !

박정승 도사님께서 이제 날 룡상에 앉혀주시겠
다오.

류 화 월단아 ! 우리 집에 대통운이 텃구나.

박정승 어서 인사를 드리오.

류 화 도사님, 이거 황공하나이다. (큰절을 한다.)

민천산 (류화를 바라보며) 거 몸집두 꽤나 실하다.

류 화 예 ? !

△무대 어두워지면서 민천산과 박정승 국부조명을 받으며 나온다.

민천산 내 이제 고을원님벼슬을 하게 되면 나한테두 저런 마누라가 하나 차례지겠지 ? !

박정승 암 차례지구말구.

민천산 여봐라, 난 이제부터 고을원님이 됐노라 !

박정승 으하하... 자, 어서 별당으로 가십시오.

△암전된다.

(다음호에 계속)

빛나라 향도의 별

알렉세 님보나

오 향도의 별 **김정일** 동지
내 비록 그이를 가까이 모시지 못해도
그이를 우러르고
그이를 따르노라

하늘에 못별들 총총해도
향도의 별은 오직 하나
그 별은 나의 별
희망의 별

그 별빛은 등대의 빛과 같아
어둠속을 헤매이는 사람들
그 빛발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거니

내 그토록 찾아헤매이던 희망의 빛발
그이를 보았거니
그이는 향도의 별
내 그이께 영원토록 충성하려는
오직 한마음뿐

이 한몸 정원에 꽃있되여
그이를 기쁘게 헤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랴

독립을 찾은 이 땅엔
할 일도 많아
조국의 밝은 앞날을 위해
내 무엇을 아끼랴
내 언제나 그이께 충성하리

영원히 빛나라 향도의 별이여
김정일 동지이시여
우리의 앞길 밝히시며

우리 충심으로 인사를 드리노라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필자는 부룬디신문 《러누보》 기자임)

백두산의 단풍계절

리찬영

백두산의 단풍계절은
한계절도 아니고
너무도 짧은
한때의 한순간

눈과 비
바람속의 이 산정에서야
온 산협이 불타도
그 누가 쉬이 불수 있었던가

마가울 찬눈속에서도
오히려 태양의 빛은 뜨거워
고산초의 파아란 잎새들
피빛으로 붉어지는 때

하야니 날리는 눈발속에
불수록 타는 단풍잎은
투사들 홀린 피자육인듯
눈뿌리 뜨거웁고

설레이는 밀림속 점점의 붉은 잎은
너대원들 군모의 유정했던 별인듯
때로는 아득히 나뭇기는 단풍잎의 물결은
펼러이는 붉은기의 그 한끝인듯

설한풍속에서도 심장을 다 바친
투사들 그 위훈 고결한 그 넋이
있있에 어린듯 내 가슴도 불타는
오, 백두산의 단풍계절이여

눈과 비
바람속의 이 산야에서
백두의 단풍계절은
한때 한순간이여도

내 가슴에 새겨지는
못잊을 계절, 불타는 계절
투사들처럼 살리라 맹세로 불타는
아, 영원한 계절

위대성에 대한 생각

리병철

누구도 대신할수 없고
누구와 교대도 할수 없는
위대성을
심장의 말로 우리는 노래합니다

...쓰시는 글이라면 구절구절
주체의 열이 울려나도록 쓰시고
비준하실 문건이면 천갈피 만갈피
수령님의 뜻이 깃들었는가를 여겨보시며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
혁명을 이끌고 가시는 위대한 지도자

빠른 걸음
통이 큰 일숨씨를 으뜸 좋아하시며
일을 해도 글을 배워도
백두의 선렬들을 거울삼도록
장창 이끌어주시고 떠밀어주십니다

하기에 그이의 존함은
우리의 저 푸른 하늘처럼 폭넓게
그이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 안겨사는 광활한 땅처럼 폭깊이
청신한 시대의 공기속에 해말처럼 스며있어
삶의 꽃 사시장철 피는 조국입니다

혁신과 창조로 들끓는
세월과 세월을 잇대이시며
위대한 주체의 뜻으로

가는곳마다 일떠세우신
만년대계의 금빛 기념탑들을 손꼽아봅니다

그 모든 기념탑들을
내 딛고 건너뛰며
우리의 날개돋친 걸음이
남먼저 와닿은 이 지점은
그렇습니다, 승리한 사회주의가
저기 지척에 바라보이는
시대의 맨 앞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이 땅에 태어나
풀빛 공민중
까마아득한 그 번호속에 살아도
비길데 없는 긍지가 있는가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
친애하는 그이를 불같이 따르며
찬란한 위대성의 해발에 싸여
결심 품고 주체의 위업 빛내여나가는
당원전사의 자부
늘 가슴에 이토록 부푸는가봅니다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따르며 위대성에 매혹된 녀들이라
물속이고 불속이고 따라서며 우리는 대답합니다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 ! 》

애국의 글발

-청봉숙영지 구호목앞에서-

장혜명

그 누가 읽으라고 썼다기에는
너무도 깊은 밀림속에
내 가슴 세차게 울리는
글발이 있이라

《조선독립 만세 ! 》
《항일대전승리 만세 ! 》

이 글발을 새기며
하루밤을 여기서 묵어간 투사들은
최후를 마칠 때에도
이 말을 소리높이 웨쳤으려니

오, 그 누가 읽으라고만 남긴

글발이 아니였구나 !
그것없인 한순간도 못살았던
애국의 붉은 피 글발로 굳어진것이였구나

기나긴 항일의 20 성상에서
레사로운 숙영의 밤
남몰래 새겨놓은 몇줄의 글발에조차
조국애는 이리도 뜨거이 굵이쳤거늘

알겠노라, 알겠노라
청봉의 글발이여
애국을 위한 류다른 순간이란
달리없음을 오, 내 알았노라

왕재산의 참나무

유국진

왕재산 마루에 뿌리를 내리고
그날을 못잊어 설레이는 참나무
자주의 길따라 조국을 찾자시던
수령님 그 말씀 오늘도 전해주네
아, 오늘도 전해주네

봉화의 불길이 아지마다 어리여
투쟁의 신념을 새겨주는 참나무
단결은 승리다 혁명의 생명이야

수령님 높은 뜻 가슴마다 심어주네
아, 가슴마다 심어주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인민의 마음속에 솟아있는 참나무
우리 당 따라서 세대를 이어서
혁명의 한길로 우리를 불러주네
아, 우리를 불러주네

나에게는 화선악기가 있다

류동호

나에게는
가보처럼 소중한 악기가 있다
나의 아버지
1211 고지에서 가지고 온
탄피하모니카

악기라기엔 너무도 믿기 어려운
일곱개의 기관총 탄피뭉음
내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우에서 재롱으로 배운 악기

밤새도록 불고불며
전투놀이로 밤새우던 그 나날엔
미처 몰랐다
승리한 고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화선악기를 가지고 왔던지

그 소리 올리면
마음의 교요를 흔들고흔들며
걸어보지 못한 화선길 떠오르고
엎드려보지 못한 전호 가슴에 뜨거워
발밑엔 파편이 밝히고
마음의 푸른 하늘엔 포연이 서린다

조용히 귀기울이면
불타는 전호가 화선악기소리
원썹격멸의 포성으로 울려오고
불뿔는 적화점 몸으로 막는 영웅전사
아이들의 맑은 웃음 비껴간

저 푸른 하늘에서 밝게 웃는다

아, 그 소리엔 다 있었다
내 딸의 맑고맑은 옥류금소리
창가마다 울리는 행복의 노래소리...
전호가의 그 노래에 조국을 싣고
병사들의 꿈과 미래를 싣고
행복한 오늘에로 1211 고지가 왔다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불타는 고지에 올리던 결전의 노래
아직은 끝나지 않아
행복의 노래에 음향을 맞추어
오늘은 내가 아이들에게 배워주는 악기

아이들의 눈빛엔 더 고운 웃음 비끼라고
창가들엔 더 아름다운 노래 흐르라고
이 땅에 언제나 그 언제나
행복의 노래만이 끝없이 울리라고
이밤도 울리는 화선의 노래여 !

나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준 화선악기가 있다
행복에 젖은 이 가슴을
끝나지 않은 계급의 전호가에 세워
한생을 지켜갈 영원한 행복을 새겨주는
아, 나에게는 투쟁의 노래가 있다

조양나루

서봉제

하늘이 비껴
물 맑으니
해빛에 잠겨
하 맑으니

그리도 꽃은날, 그 여름날
물결 험한 이 나루 건느신
선생님의 모습
우렛이 안겨와 뜨겁게 안겨와

맑은날
마른 길 오시였다면
그리는 마음 이리도 뜨거울가
말해다오 너 말해다오
홍수에 뒤번지던 그날의 허천강아

나라를 빼앗겨 사무친 모진 슬픔
피나리보짐에 떠실고
어둠속에 쫓기우다 정처없이 헤매이다
세월을 등져살던 겨레를 불러
삼수갑산 한끝까지 찾아오신 그 걸음

참혹한 설움의 호곡인양
노호하는 강물은 배전을 치고
세찬 광풍은 폭우 몰아 갈 길 막았건만
마를새 없던 그 두루마기자락 날리시며
저기 동점령의 칼산에 높이 오르신

김형직선생님 !

쫓겨사는 민족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눈물에 앉아서 한탄 말고
이 땅에서 총칼 들고 일제를 죽치자
삼천리에 울려퍼진 그날의 메아리여

아,
줄줄이 쏟아지는 햇빛
어찌 철쇄로 가리울수 있다더냐
세차게 흐르는 강물
어찌 총칼로 베일수 있다더냐

짓밟혀 숨막히는 강토 삼천리
역사철사로 칭칭 묶이웠어도
항일의 구국성전에 민족자주의 녀를 불러
걸고걸으신 그 걸음 지경을 몰랐구나
겨레가 사는 두메 한끝 작은 마을도
선생님의 한품에 다 안겨있었구나

그날도 맑은 날
마른 길 오시였다면
우리 마음 이리히도 젖을가
해빛에 잠겨 물 맑으니
그리운 모습 거울처럼 마주셨구나
아, 내 고향 조양나루

탄부의 삶

신지락

눈바람 모질어도
봄날의 새싹이 움트라고
봄날의 꽃향기 아름다우라고
땅속깊이 뻗어가는 뿌리

비바람 모질어도
푸르른 잎 더 무성하라고
진한 향기 더 그윽하라고
지심깊이 뻗어내리는 뿌리

아, 깊이깊은 땅속에서

꽃을 피워주고
열매를 살찌우는
그 뿌리처럼

땅우의 행복 더 풍성해지라고
락원의 내 조국 더 아름다워지라고
탄부, 나는
오늘도 땅속으로 내려간다

더 깊숙이
더 깊숙이

명제해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김 정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창시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주체의 이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어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이 집대성되어있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이 담겨져있다. 그가운데서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은 우리 혁명이 한치의 드림도 없이 영원히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고귀한 재부로, 드림없는 초석으로 된다.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형상하는데 커다란 힘을 경주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룩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의 전통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다져졌으며 불패의 위력을 나타내었는가를 깊이있게 그리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한 혁명투쟁의 나날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 경애하는 수령님의 뛰어난 령도풍모를 감명깊게 그려내는것이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진정한 통일단결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여서만 보다 공고하게 다져질수 있다.

예술영화 《조선의 별》과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 인간적 믿음과 사랑, 배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불타는 충성심을 낳은 참다운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창작에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형상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를 감명깊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혁명전사들의 무한한 충실성,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이

사상의지적으로뿐아니라 의리적으로도 철통같이 다져진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라는것을 보여줄수 있으며 이 통일단결은 그 어떤 간난신고도 뚫고 승리에로 나아가는 위력한 힘으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확인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의 전통을 이룩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있게 형상하자면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간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풍모를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은 수령의 탁월한 령도와 고결한 사랑과 함께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실성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그들은 그 어떤 시련이 겹치고 죽음의 고비가 막아서도 오직 자기 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갔다.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청년공산주의 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니었던 이런 고결한 사상정신세계가 깊이있게 그려져야 한다.

사령부를 멀리 떠나 공작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직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하여 한몫 바쳐 싸우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풍모(총서 《충성의 한길에서》 중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를 비롯하여 것처럼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새로운 신심과 희망에 넘쳐 지하공작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유격대를 조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 유철(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등 항일유격대원들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혁명전사의 참다운 전형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풍모를 깊이있게 그려내어야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혁명전통을 심오하게 반영할수 있다.

작가들의 정다운 집

김성환

우리를 태운 승용차는 곧게 뻗은 넓은 도로를 질주했다. 조선문학창작사 우산장창작실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강선의 아침하늘을 붉게 물들인 쇠물노을도, 대안의 우렁찬 기계음향도, 저기 옥도리벌판도 차창에 비쳐들며 우리의 갈길을 재촉하는듯싶었다.

남포시내를 벗어나 포석길을 한참 달리던 승용차가 뉘시군들이 점점이 모여앉은 호수를 가로질러간 다리를 지나자 《평양 60 킬로미터, 남포 12 킬로미터》라고 쓴 표식이 나타났다.

우산장창작실 어구였다. 소소리높은 국사봉마루에서부터 신통히도 황소의 머리와 꼬리같은 두골짜기가 굽이쳐내렸는데 오른편의 큰 골짜기에는 여러개의 창작실들과 회관, 정각들이 자리잡고있었으며 왼편의 작은 골짜기에는 로대식 중앙현관을 갖춘 3층건물이 ㄱ자형의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문학의 믿음직한 창작기지인 우산장창작실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이 작품을 잘 써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창작실을 꾸리고 거기에 가서 글을 쓰게 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창작실을 우산장휴양소에 꾸리고 작가들이 거기에 나가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속에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우산장창작실 !...

공장과 농촌, 탄광과 어촌... 그 어디에나 찾아가 들끓는 현실을 체현한 작가들이 여기서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80년대의 주인공들을 창조하고있다.

1. 해빛같은 사랑

우리는 취향정앞에서 조선문학창작사 부사장동무를 만났다. 그는 사람좋은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한 작가들이 독자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좋은 작품을 쓸수 있었는가고 물어오면 누구나 가슴뜨겁게 말하고싶은 사연이 있습니다.》

가슴뜨거운 사연 ! 그것은 무엇일까 ? 우리는 그것을 듣고싶었다.

부사장동무는 못잇을 그 사연을 더듬는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을 들어 휴양조건물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여기의 어느 각에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자욱이 깃들어있습니다.》 하고는 먼저 가까운 곳의 건물로 우리를 안내하는것이였다.

《자, 날씨두 찬데 안으로 들어갑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구 직접 눈으로 보면 알게 될겁니다.》

우리가 처음 들린곳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70년 5월 12일에 친히 다녀가신 2층으로 된 창작실이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층과 2층의 매 방들을 차례로 돌아보시면서 작가들이 쓰고있는 의자며 책상을 비롯한 비품들을 일일이 헤아려주시였으며 지어는 조명조건과 채광조건까지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그것을 당정책적 안목을 가지고 가꾸어야 한다고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는 먼저 1층을 돌아보았다.

매 방에서 2명의 작가들이 창작하고있었다. 탁상등과 책꽂이가 놓인 두개의 책상, 비단이불과 《마안산》 모포를 포개놓은 두개의 폭신한 침대... 얼마나 아늑한가. 창밖에는 흰눈이 쌓였는데 창턱에는 망울터친 국화꽃화분이 놓여있었다.

2층에는 넓은 휴게실도 있었다.

개인용 안락의자며 긴 꼬파들사이에는 푸르싱싱한 열대식물들의 날직한 잎새를 펼친 화분이 여러개 놓여있었고 벽 랑쪽에는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와 갖가지 오락기구들이 갖추어져있었다.

우리는 어느 한 방에서 창작에 열중하고있는 작가 림금단동무와 만났다.

《저는 우산장에서 세월이 가는줄 모르고 창작하고있습니다. 아무런 불편도 없기때문이지요.

두해전 서사시 <새싹이 움틀 때>를 쓸 때도 그랬고 지난해에 역시 서사시인 <백두산의 봄눈>을 창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출입문을 보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손수 여닫아보시면서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 방해될 자그마한 소음이라도 들리지 않는가를 귀기울여보신 출입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뜨거움에 젖어있었다.

이제는 50고개를 훨씬 넘긴 그는 세살짜리 손자를 가지고있는 녀성으로서 집을 떠나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운것도 많을 나이다.

하지만 그는 세상불편을 모르고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서 금동이같은 손자녀석을 안아보고싶은 마음도 불쑥 떠오르긴 합니다... 이럴 때면 말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가들이 주에 한번씩 일요일에는 평양을 다녀오라고 보내주신 배스를 타고 집에 갔다오면 그 마음조차 말짱 없어진고만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는 어떤 경사가 있을줄 압니까? 우리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들의 가족들이 남편과 아버지들을 찾아 사랑의 배스를 타고 몽땅 여기로 나왔습니다. 저의 가족들도 손자녀석을 앞세우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산장의 경사였지요. 정말 당의 은덕을 어디에 비기겠습니까.》

그는 안경을 벗어두고 물기어린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가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음에 들린 곳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70년 5월 24일에 친히 다녀가신 창작각이었다.

이날 새벽 2시가 넘은 야삼경에 친히 승용차를 달리시여 이 각을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2층 응접실에서 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치하의 교시를 작가들에게 빨리 전달해주고 싶어 이렇게 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창작에서 지침으로 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한겨울에도 맑은 응달샘이 솟구치는 언덕반이에 자리잡고있는 이 각을 지금은 작가료양소로 리용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가료양소를 따로 나오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던 것이다.

우리는 장편소설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써서 이미 독자들과 친숙해진 소설가들인 정창윤동무와 백철수동무를 만났다.

모두들 혈색이 좋았다.

《이것 참, 억지로 여기루 떠밀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료양생활을 하니까 무슨 질병이라두 있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는데 사실은 아무 병도 없지요. 일전에 장편소설 <먼길>을 끝냈을 때두 그랬구 이번엔 중편소설 <법칙>을 끝내니까 또 료양을 떠밀어서 왔는데 이렇게 신수가 편편한 사람이 료양생활을 하기는 아마 작가들뿐일겁니다.》

창작에서도 개성이 있고 생활에서도 인상적인 정창윤동무의 말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베푸시는 은정에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쓴 장편소설 <념원>은 별로 신통한 작품이 못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대우를 받으며 료양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백철수동무는 받아안은 은덕에 다 보답하지 못하는 자책으로 목메어하였다. 작가들은 누구나 작품을 끝내면 휴식으로 30일간 료양생활을 하고있다고 한다. 료양기간에는 갖가지 보약들과 고가약들을 쓰며 각종 치료를 받고있을뿐아니라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공급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그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료소로 갔다.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의약품들을 그췌

히 갖춘 치료실에 잇달려 감탕실, 한증실, 전열기실이 꾸려져있었다.

《우리 작가들을 아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사랑을 천백편의 장편소설에도 다 담지 못할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 은정이 가슴사 무칠뿐입니다.》

진정에 넘쳐 하는 정창윤동무의 말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작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좋은 문학작품!

작가와 작품을 두고 기울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을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서해지구에서 제일 경치좋은곳에 자리잡은 10여각의 현대적인 휴양소를 작가들의 창작기지로 통채로 넘겨주신 그 은정.

언젠가는 우산장에 온 기념으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고 또 언젠가는 우산장에서 작가들이 밤을 새우며 일한다고 하시며 손수 잡으신 농어를 보내주신 그 사랑.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87년 11월 우산장창작실의 운영실태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대형화물자동차와 승용차를 보내주시었으며 신형천연색 텔레비존수상기까지 또다시 배려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사랑과 은정으로 솟아난 우산장창작실!

우리가 찾아간 창작실마다 둘러본 방마다 넘쳐나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배려의 훈향이었다.

부사장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시는 배려를 해빛에 비긴답니다.

해빛이 없이야 어디 꽃이 폼니까, 열매가 무르익습니까!

우리 작가들의 존재도 창작적 비결도 리치는 같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작품을 쓸수 있는것은 이토록 훌륭한 창작조건을 마련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해빛같은 사랑이 있기때문입니다.》

웁은 말이였다. 해빛같은 그 사랑속에 독자들이 보물이 일도록 읽어가는 문학작품들이 썩여지고 감동깊은 창작소식, 작가일화들이 태어나는것이다.

우리는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알고싶어하는 창작소식을 취재하기 위하여 소설가들과 시인들이 있는 창작실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다음호에 계속)

나의 기관사

한웅빈

1

…아마도 나는 이 이야기를 좀체로 이해할수 없었던 기관사의 성미로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다. 이상스러운 성미라고 할가.

그렇다. 아무래도 그렇게 말해야 할것 같다. 한달나마 같이 승무했으나 나는 도저히 그에게 익숙해질수 없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화를 내는 때도 있고 눈섭을 잔뜩 찌프리고있기도 했는데 그 까닭은 도무지 알수 없었다. 어떻게든 그의 왼쪽 눈섭이 찌프러지면 벌써 기분이 좋지 않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그 눈섭이 언제 찌프러질려는지 는 도대체 짐작하기 어려웠다.

며칠전에 있는 일만 해도 그랬다. 그날 나는 아주 좋은 기분으로 출근했었다. 경기장에 갔다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추첨제에 당첨되어 멋들어진 멜가방을 받았던것이다.

나는 그 가방을 메고 출근했다.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뜻하지 않게 맞이한 《행운》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별로 자랑하고싶었다.

《들어가면서 그저 심심풀이로 한장 샀었는데 글썄 …》

누구나 놀람과 감탄을 적당히 표시해주었다. 《모든 일이 잘되어나갈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관사는 담배를 피우며 차축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경기장에 갔잖나?》

《예.》

나는 열변도나마 한 말을 또 시작했다.

《들어가면서 그저 심심풀이로 한장 샀었는데 당첨번호를 부를 때 글썄 내 번호가 불쑄…》

기관사가 마뜩지 않게 눈을 치뜨고 보는바람에 나는 말을 중등무이했다.

《그래 어데가 이겼다는건가?》

《예? 그거야…》

대답하려던 나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경기승패를 알려고 던진 물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그의 왼쪽 눈섭이 잔뜩 찌프러져있었다. 무엇때

문일가? 어리둥절해서 바라보는데 그는 버럭 소리 질렀다.

《주행부 청소나 빨리 해!》

하고는 도로 차축으로 돌아서버렸다

《요즘 젊은너석들이란, 음-!》

《?!》

무엇때문에 눈섭이 찌프러졌는지 도대체 알수 없었다…

물론 다른 기관사들이라고 하여 늘쌍 기분이 좋아있는것은 아니었다. 원래 나의 기관사였던 (나는 얼마전까지는 이 기관사의 조사가 아니었다. 기관사가 료양을 가는바람에 뜨내기조사로 되어 이 기관사에게까지 굴러온것이었다.) 17 호 기관사는 무척 유쾌한 사람이었으나 기분 나빠하는적이 적지 않았다. 담배를 잇고 나왔다가나 신경통으로 어깨가 쏸다거나 경기장에서 추첨표를 다섯장이나 샀는데 한장도 맞지 않았다가나… 그러나 이 기관사처럼 까닭없이 화를 내는적은 없었다.

전번 승무때에는 어지간히 친숙해진듯이 느껴졌었다. 우리는 미구에 통과하게 될 기관차대의 300 만키로메터 무사고기록에 대하여 말을 주고 받았었다. 웃기도 했다.

그러나 앞에 속도를 늦추라는 서행표식이 나타나자 친숙해진듯하던 그 느낌은 산산이 깨어져버렸다. 내가 규정대로 《속도 20 키로메터-!》하고 알렸는데 그는 응답할 대신 제동변에 손을 가져가며 《빌어먹을것들!》하고 웅얼대는것이였다.

《?!》

아연해진 나에게 그는 손가락으로 서행표식을 가리켰다.

《저걸 보면 뭘 생각되는게 없나?》

생각되는게 없는가라니? 그 표식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생각해 한다. 어느 일터에 가나 맨처음 눈에 띄우는 《로동안전》, 《안전제일》의 글발들,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선박들에게 주의할것을 거듭거듭 알려주는 일기예보… 나는 학습토론이라도

하듯 엮어댔다. 그런데 기관사가 말허리를 툭 잘라 버렸다.

《됐네!》

《?》

《노래만 부르고있군!》

하고 외면하는 그의 눈썹은 잔뜩 찌프러져있었다.

《요즘 젊은너석들이란, 음-!》

그때 나의 놀렘과 의혹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 도저히 이해할수 없었다! ...

그러나 나는 그를 존경했다. 그는 내 나이의 거의 두배에 가까운 로동년한을 가지고있었다. 해방 전에 벌써 소년로동자였고 해방후부터는 기관차 승무원이었다. 전쟁시기에도 기관사로 전시수송을 보장했다. (그의 왼쪽 눈썹이 자주 찌프러져 푸들푸들 떨리는것도 그 시절에 적 비행기의 폭탄파편에 다친때문이다!) 그리고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 ...실로 그가 기관사와 함께 걸어온 길은 보다 형상적으로 말하면 《조선전사》 23 권부터 마지막권까지에 해당한다고 말할수 있었다. 한가지 이상스러운것은 그가 아직 공훈기관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허나 그것은 중요한것이 아니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그에 비하면 나는 유치원, 학교, 기관차대, ... 이렇게 곧추 뻗은 《포장도로》만을 걸어온 애송이었다. 그를 존경하는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기관차대 부대장은 내가 이 기관사와 승무한다는것을 알고는 무척 기뻐해주었다.

《잘 배우라구. 기관사가 되려면 그런 진짜배기 기관사가 되어야지.》

나는 부대장의 말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습관되어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서 존경의 대상이었다. 우리 이웃집에서 살았던것이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서글서글했고 인상이 좋았다.

《기관사아바이와 잘 아는 사인가요?》

《잘 알다뿐이겠나! 해방전부터 같이 일했지. 해방후엔 보조조사, 복무조사로 한 기관차를 탔고 ...》

《전쟁때에도 같이 싸웠겠구만요?》

《전쟁때?》 부대장은 대답대신 창밖을 내다보고는 몸을 일으켰다. 《잘 배우라구. 동무도 그런 기관사가 되라구!》

부대장까지 이렇게 말하니 내가 기관사를 존경하는것은 응당하지 않은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 존경은 의무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아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할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승무가 어떤 승무였는가 하는것부터 시작했어야 할것이였다. ...

그것은 류다른 승무였다. 우리가 승무를 무사히 마치기만하면 기관차대는 300 만키로메터 무사고를 돌파했다는 영예를 지닐것이였다. 그런데 출발 직전 제일 가파로운 1,000 대 24 구배구간에 이슬비가 내리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배와 이슬비, ... 요란한 환영곡과 인사말, 울긋불긋한 꽃다발들이 아니였더라면 걱정과 시름을 안고 떠났을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기관사와의 마지막승무였다. 료양갔던 17 호기관사가 하루이틀내로 돌아올 것이기때문이었다. 나는 이것이 기뻐다.

기관차에는 중요한 승무라고 하여 부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가지 않았더라면 대장자신이 참석했을수도 있었다.

실로 류다른 승무였다! ...

우리는 건인정량을 끌고 떠났다. 렬차는 여느때 처럼 석탄, 쇠돌, 세멘트, 목재, 연유 등등의 화차들로 편성되었고 기관차에는 기관사와 부대장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앉아있었다.

두사람은 같이 가게 된것을 무척 기뻐했다. 나 역시 기뻐다. 답답하지 않은 유쾌한 승무길로 될것이기때문이었다.

두사람은 옛일을 추억하기도 했고 감회에 잠기기도 했다. 그 추억이란 나와는 거리가 먼것이였다.

나는 가까와오는 스물넷구배와 그곳에 내리고 있을 이슬비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간이였고 생각은 그너머의 풍년역으로 흘러갔다. 그 자그마한 간이역에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처녀가 있었다.

금년초, 강산같이 내린 눈우로 눈보라가 구름처럼 몰려다니던 새벽이였다. 전조등불빛은 줄곧 끝없는 눈보라의 바다를 헤쳐갔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볼수 없었다. 나중에는 앞길에 황막한 눈바다만이 있고 인간의 모습은 영원히 볼수 없을것만 같은 고독감까지 스며들었다.

그런데 불쑥 전조등불빛속에 노란 신호등을 쳐든 처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풍년역의 전철원이였다. 눈보라가 다른 모든것을 가리워버려 그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다.

렬차가 홈에 멎었을 때 나는 그쪽을 돌아보았다.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싶었다.

마침내 처녀가 홈에 나타났다. 추위에 뽀뽀 언뜻 무척 작아보였다. 어린 처녀 같았다. 기관차옆에 왔을 때 나는 소리쳐 물었다.

《동무가 우리 렬차를 영접했소?》

처녀는 멈춰섰다.

《예.》

나는 훌쩍 뛰어내렸다.

《동무 이름이 뭐요?》

처녀와 마주서자 나는 저으기 당황했다. 내려다 볼 때와는 판판으로 몸매가 후리후리하고 키가 거의 나만한 스물두세살된 처녀였다. 머리칼에서는 흰 눈송이가 녹아 작은 별들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왜 그러니까?》

의혹이 실린 눈동자가 놀랄만큼 가까이 있었다. 처음으로 처녀의 눈동자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았다. 나는 처녀들의 눈동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 듯했다. 처음으로 깨달은 그 아름다움이 나를 더욱 당황케 했다.

그때 기관사의 출발기적이 울렸다. 나는 서둘러 승강대손잡이를 잡았다.

《왜 그러니까?》

처녀의 의혹과 불안에 찬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대답할사이없이 렬차가 움직였다. 처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멀어졌다. 그러나 그 눈동자와 《왜 그러니까?》하던 음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맞이하려고 눈보라속에 서있던 그 모습, (나를 맞이하려? 사람이란 이렇게 어리석어지기도 한다!)...

《덧신호 열림-!》

하는 부대장의 소리에 나는 흠칫했다. 얼른 기관사를 결눈질해보았다. 나를 굽지 않은 눈길로 노려보고있었다.

《신호도 못보고 뭘해?》

부대장이 씨물씨물 웃었다.

《처녀 생각이라든가?》

통담인줄 알면서도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쓴 듯했다. 얼른 차창밖으로 얼굴을 돌렸다.

크지 않은 읍거리가 지나가고있었다. 네모나게 지은 문화회관이 보였다. 간판에 《철길우에서》라는 영화제목이 씌여있었다.

《<철길우에서>라...》

부대장은 나의 무안함을 풀어주려는듯 영화제목울 소리내어 읽었다. 예민한 성격이었다.

《우리 이야기인가?》

《예.》

나는 얼른 대답했다.

《기관차승무원들이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후퇴시기?》

그때 기관사의 거칠은 음성이 내우에 떨어졌다.

《전도나 감시하라! 원눈 팔지 말구!》

그의 왼쪽 눈썹이 사납게 찌프러져있었다.

《무슨 흥타령이야? 승무중에!》

《...》

나는 참았다. 부대장도 있었고 더우기 마지막 승무였다. 그러나 전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돌이켜지며 기관사에 대한 의혹은 소용돌이치는 불만으로 변해갔다.

다행스럽게도 역이 가까와왔다.

《화차상태를 검열하라. 30분 정차야!》

나는 역에 들어서기 바쁘게 뛰어내렸다. 화차들이 와당탕거리며 지나갔다. 후속 끼쳐오는 차바람, 발밑을 흔드는 진동,...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듯했다.

이러나저러나 이젠 마지막이다. 저 기관사와는... 그리고 여기서 떠나면 스물넷구배고 그것을 넘으면 300만키로메터 무사고의 테프를 끊는것과 다름없다. 마지막장식이 아주 괜찮은셈이다. 정말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가려는 모양인지...

봉- 소리를 내며 렬객렬차가 스물넷구배쪽에서 미끄러져 들어와 멎었다. 나는 한가해보이기도 하고 분주해보이기도 하는 렬객들보다 축축히 젖은 객차지붕에 더 눈이 갔다. 아직 이슬비가 내리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여-조사!》

나는 흠에 내리선 사람들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기관사동지!》

로양을 갇던 원래 나의 기관사-17 호기관사였다. 그는 사발처럼 동실동실해진 얼굴로 줄곧 만조스레 병실거렸다.

《몸이 낫단말이지? 다섯키로나 불었어. 이젠 몸을 돌보자는게야. 그런데 어때? 저 렬감과 다니기가?》

그는 기관차쪽을 가리켰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말도 말라요. 무슨 성미가 그런지...》

《왜?》

나는 방금전에 영화이야기를 하다가 메주먹은 사실을 말했다. 그는 혀를 찼다.

《저런! 실수했구만!》

《실수라니요?》

《그 사람들앞에서 후퇴때 이야기를 꺼냈으니 말이지.》

《왜요?》

《아직 모르던가?》

그는 시계를 보고나서 빠른 말씨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머나먼 시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던 이야기였다.

...1950년 가을의 전략적 일시적 후퇴시기, 유격투쟁하러 산으로 들어가는 대렬속에서 두 친구가 부축하며 걷고있었다. 해방전에는 기관구의 소년공으로 해방후에는 한기관차에서 보조조사, 복무조사로 승무해온 그들이었다. 한 친구는 굵질린 발때문에 가까스로 걷고있었다. 발은 점점 더 부어올랐고 아픔도 심해졌다. 가파로운 고개길이 앞에 막아섰을 때 그는 마침내 머리를 흔들었다.

《안되겠어, 아무래도 골절된것 같아.》

산에 들어가서는 골절된 발을 치료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친구는 고개아래의 마을에 떨어졌다. 다른 친구는 대렬과 함께 갔다.

그런데 하루밤 자고나니 부었던것이 내렸고 아픔도 사라졌다. 끝결이 아니었던것이다.

서둘러 떠났으나 이미 회복할수 없는 《연착》이었다. 집결지점은 텅-비어있었다.

시간표에서 떨어진 렬차에게는 대피밖에 차례질것이 없었다. 그는 피신해있다가 인민군대의 재진공을 맞이했고 기관차대로 돌아왔다.

산으로 들어갔던 친구도 돌아왔다.

그러나 상봉은 기쁨을 주지 못했다. 친구를 보는 순간 《나는 락오자다!》하는 가책이 그를 전율케 했다. 그 고개만 참고 넘었더라면!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친구를 볼 때마다 가책의 목소리는 의연 날카롭게 되살아나군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듯했다. 그는 친구와 만나는것을 어색해했고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친구도 역시 그와 만나기를 저어하였다...

《그 두사람이라는데 바로 부대장과 저 령감이란 말이야, 이제 알만해?》

나는 문득 얼마전에 승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 기관사가 아무 이유없이 걸음을 멈추던 일이 떠올랐다.

《한대 태우고 가세.》

그는 방금 담배를 피웠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숙단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정문에 부대장이 서있었던것만 같았다.

《그런데 왜 아직 공훈기관사는 못되었는가요?》

《오- 그건 건인정량을 너무 초과했다가 퇴행사고를 낸때문이야. 10년전의 일이지. 그때... 예쿠! 차가 떠나누만, 그럼 수고하게-!》

려객렬차는 떠났고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자리에 그냥 멍하니 서있었다. 이제까지의 일들이 런던아 떠올랐다. 까닭없이 화를 내거나 침울해지고 기분 나빠하고... 가방을 들고 흥얼대는 내가 비웃는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이제껏 나는 그에게 의혹을 품어왔고 불만까지 가졌었다. 그러나 그의 어두운 정신생활의 일면을 알게 된 이때에는 모든것이 리해되었고 의혹도 불만도 봄눈처럼 녹아버렸다. 까닭없이 화를 내거나 불만에 차있는듯하던 성격, (그것은 자신에 대한 불만때문이었을것이다!) 좁체로 익숙해질수 없었던 그 성격을 나는 지금은 리해한다...

나는 그를 리해할수 있었다!...

3

《저-》

하는 소리에 나는 돌아보았다. 체소하고 별로 초췌해보이는 사람이 뒤에 서있었다.

《수고하십니다. 기관사동지.》

나는 서둘러 그의 말을 막았다.

《난 조삽니다. 기관사는 저기에-》

《예, 예, 알만합니다. 그런데... 아, 참!》

그는 부산스레 주머니를 뒤졌다. 그러자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인삼냄새가 물씬 풍기는 화려한 담배가 나왔다. 《인삼》이었다.

《한대 피우십시오.》

나는 담배를 좋아하는 기관사 생각이 나서 한대 뽑아 귀바퀴에 끼웠다. 그런데 그는 껍채로 쑥 내밀었다.

《냉고 피우십시오.》

나는 한결음 물러섰다. 껍채로 인심쓰는것이 심상치 않았다.

《난 안피웁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예. 저-전 은덕농기계공장 인수원입니다. 저 방통이 제 날자에 오지 않아서 와보니까...》

그는 역구내 한구석을 가리켰다. 외롭게 서있는 두개의 유개화차가 보였다.

닷새전에 여기까지 와서 제동장치가 고장났다고 한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독촉하여 수리해놓았으나 렬차편성에 물릴수 없어서 아직 못박혀있다는것이였다.

《우리 공장은 저 방통이 래일까지 못들어가면 몇고맙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초췌한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 기대가 함께 어려있었다. 몸은 필요만 하면 나같은 조사에게라도 열백번 허리를 굽힐 자세였다.

나는 그의 애원을 더 듣지 않으려고 서둘러 말했다.

《그 문제는 사령과 전화로 토론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렬차편성에...》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게도 해봤지요. 어데 돼야말이지요. 사령은 기관사가 더 달겠다고 하면 지시를 주겠다고 하고 기관사들은 또 사령지시부터 받으라는겁니다. 서로 밀대기를 하면서...》

हा고는 꺼지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말로는 다들 <건인초과>, <건인초과>하면서도...》

탄식속에서 튀겨나온 일종의 비난에 나는 슬며시 화가 났다. 직업적인 심리에서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만 두시오! 그저 <건인초과운동>인줄 압니까? <5. 18 무사고정시건인초과운동>이란말입니다. 무사고정시! 그게 튼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의 렬차가 아니라 온 철도가 튼단말입니다. 그런데 저따위 화차때문에...》

《뭐요?》

휘줄근해보이던 상대방이 갑자기 험악한 기세로 접어들었다.

《저따위 방통이라구?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수 있소? 바로 그런 머리통들때문에 우리 방통이 닷새째 처박혀있소! 버섯이 돋는단말이요! 저따위 방통? 저 방통에 한 공장의 인민경제계획이 달려있소! 공장이 멎는단말이요. 공장이!》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대로 물러선다는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었다.

《큰소리는 무슨 큰소리요? 그게 그래 우리 기관차때문이요? 인수원동무 아니래도 큰소리칠 사람은 얼마든지 있소!》

나는 곧 자기가 엉터리없는 소리를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으나 아직 그가 손에 그냥 쥐고있는

《인삼》 담배를 보자 (의심할바없는 《퇴물》 이었다!) 또 한바탕 엉터리없는 소리를 쏟아놓고말았다.

《시시하단말이요! 기관차가 그따위 너절한거나 먹고 구배를 올라가는줄 압니까? 기관차는 전기를 먹는단말입니다. 3천 3백 직류전기만을!》

그때 기관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무슨 소리를 더 떠들어댔을지 몰랐다.

《어힘!》

언제부터 와있었는지 기관사가 몇발자국옆에 서있었다.

인수원은 즉시 나를 내버리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기관사동지십니까? 정말 수고하십니다!》

기관사는 빨래줄같은 인사에 단마디로 대답했다.

《그만하오. 나도 다 들었소.》

인수원은 담뱃예라도 부딪친듯 멍해졌다.

기관사는 나에게로 돌아섰다.

《화차는 다 봤나?》

《아직...》

《한심하군!》

그는 화차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나는 창피한 기분으로 주춤주춤 따라갔다. 그는 내가 하는 엉터리소리를 다 들었을것이다. 17 호기관사와 말장단을 벌리는것도 보았을수 있다. 이제 또 무슨 말로 몰아댈지 모른다. 그러나 참자. 그를 리해해야 한다...

그런데 화차를 살피며 걷던 그가 갑자기 허허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놀랐다. 왜 웃는것일까. 커다랗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3 천 3 백전기만을 먹는다구? 그것도 직류전기만을?》

그는 또 웃었다. 그 말이 무척 그의 마음에 들었음을 나는 깨달았다. 그 말 한마디만은 팬찮은것 같기도 했다. 북데기속에 알이 있었다!

나는 기분이 좋아져서 (대단한 칭찬이라도 받은듯했다!) 뒤를 쫓아가며 말했다.

《시시한 작자예요. <퇴물>까지 맥이러들면서...》

《퇴물을?》

나는 그의 가슴에 코를 박을번했다. 그는 돌아서서 《시시한 작자》를 보고있었다.

인수원은 아까 그자리에 주저앉아있었다. 꺼지게 한숨을 몰아쉬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의 머리로 파란 담배연기가 한숨처럼 맥없이 꼬여오르기 시작했다.

기관사는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10 년전에 있었다는 그 퇴행사고를 생각하고있지 않을까. 《중소! 내가 달아주겠소!》 하고싶은 욕망과 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나라도 역시... 그러나...

기관사는 나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미소라도 지을듯 입귀를 쭈긋했다.

《거 귀에 끼운건 뭐가?》

나는 귀에 손을 올려가자 당황망조했다. 아까의 그 《인삼》 담배가치가 잡혔기때문이었다. 까맣게 잊고있었던것이다.

《이리 내게.》

기관사는 담배를 들어다보며 비죽이 웃었다.

《<퇴물> 담뱃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는 내 말은 듣지 않고 인수원쪽을 돌아보았다. 인수원은 흠에 서있는 부대장에게로 달려가고있었다. 기관사는 나의 어깨너머로 등뒤 어텐가를 보았고 다음은 역운전지휘원실 창문으로 눈길을 돌렸다.

눈길과 거동이 별로 착잡해보였다.

잠시후 그는 나에게 내 등뒤 어텐가를 가리켰다.

《검열해보게.》

나는 등뒤를 돌아보자 의아해졌다. 그곳에는 문제거리의 화차 두개가 서있을뿐이었다.

나는 기관사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내앞에 없었다...

역운전지휘원실창문으로 사령전화를 들고있는 그의 상반신이 보였다. 나는 그가 왜 화차를 검열하라고 했는지를 깨달았다. 놀라움은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어떻게 감히 저런 결심을...

흠에서는 부대장이 인수원에게 친절하게 말해 주고있었다.

《도와줄 마음이야 왜 없겠소? 그렇지만 우린 사령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일수 있는 사람들이요. 또 앞에 1,000 대 24 구배가 있는데 퇴행사고라도 나면 큰일이 아니요? 사령에게 잘 제기해보시오!》

인수원은 손을 책 짓고는 대합실로 들어가버렸다.

나는 무뚝뚝하던 기관사와 친절한 부대장이 대조적으로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서로 너무도 달랐다. 말도, 행동도...

《거게서 뭘하오?》

부대장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두개의 화차옆에 와 있었다.

《기관사아바이가 점검하라고 해서...》

《기관사가?》

《지금 운전지휘원실에서 사령전화를...》

《뭐?》

부대장의 시선이 화살처럼 지휘원실로 날아갔다.

나는 은근히 그가 사령전화를 중지시켜주기를 바랐다. 화차 두개때문에 기관차대의 명예를 위협에 내맡길수는 없었다. 또 이번까지 일이 잘못되면 기관사는 공훈기관사는커녕 기관차에서 영영 내려야 할것이다...아니, 그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300 만키로메터 무사고를 말아먹은 조사로 되고싶

지 않았다. 이것이 첫째였다. (지금에 와서는 솔직히 말해야 할것이다.)

때문에 나는 부대장이 운전지휘원실로 향했을 때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가 문앞에 채 이르기전에 기관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사령전화가 끝난것이였다.

나는 사령이 승인하지 않았을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보려 했다. 1,000 대 24 구배에 이슬비가 내린다는것을 사령도 알고있을것이다.

기관사는 문밖에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서 받은 《피물》담배였다. 나의 두번째 기대 역시 실현되지 않은것이였다!...

《사령지시를 받았나?》

부대장의 물음이었다.

《런결하라더군.》

《런결?》

부대장의 목소리는 대변에 갈려 나왔다.

《기관차대의 300 만키로메터 무사고가 여기에 달려있다는걸 모르나? 부대장이 할 일이 없어서 침습했는줄 아나?》

《걱정 말게. 어떻게 하든 넘어갈테니!》

《뭐라구?》

부대장의 귀밑에서 주먹같은 살덩어리가 꿈틀하고 뛰놀았다.

《10 년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어떻게 됐나?... 화차 두개가 뭐가 그리 커서 그러나? 그레 300 만키로메터가 중요한가, 방통 두개가 중요한가?》

기관사는 대답대신 두개의 화차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지!》하는 말을 읽는것 같았다. 부대장도 그 말을 읽은듯 목소리를 더 높였다.

《이번까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나? 모르는가?》

《그렇지만 다르게는 할수 없지 않나?》

《다르게 할수 없다구?》

《그렇네!》

《...》

나는 기관사를 이해했다. 다르게는 할수 없다. 지난날로 인한 가책과 피로움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10 년전에도 그래서 더 런결했을것이다. 그러나 사고로 끝났을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잘못되면 무엇이 기다리고있을지 그도 역시 잘 알고있다. 그러나 비판이나 처벌보다 더 무서운것이 있다. 지워버릴수 없는 가책과 피로움, 그때문에 다르게는 할수 없는 인간의 성정, 가책의 가시덤불보다 더 괴로운것이 어데 있으랴...

그렇다. 나는 기관사를 이해했다! 그리고 역시 다르게 해서는 안되는 나자신을 느꼈다.

나는 기관차로 달려갔다. 런결지레대를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기관사아바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어-가네!》

하는 기관사의 대답이 나에게서 《고맙네.》하는 말처럼 들렸다.

운전지휘원의 푸른 기발이 쳐들렸다.

《떠남-!》

《떠남-!》

그때야 사연을 알게 된 인수원이 흠으로 달려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떠났다. 나는 그에게 손을 저어주었다. 그는 손을 마주 저을 대신 허둥지둥 따라오기만했다. 침묵에 걸려 넘어질뻔하면서도 발밑이 아니라 기관차만 바라보며 그냥 따라왔다. 나에게서 그의 눈에 눈물이 어려있을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인수원이 계속 따라오는구만요.》

나는 기관사에게 말했다. 기관사는 아무 대답도 없이 주간제어기 손잡이를 앞으로 밀어가기만 했다. 무뚝뚝한 얼굴, 마치도 화차를 더 런결한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인듯했다...

렬차는 이미 질풍같이 달리고있었다. 더 빨리! 높은 속도를 얻을수록 그 타력으로 스물넷구배를 쉽게 넘을수 있다. 좀더 빨리!... 스물넷구배만 넘으면 풍년역이다. 그 역에서는 우리가 300 만키로메터 무사고 테프를 끊는다는것도, 두량의 화차를 더 달았다는것도 알고있다.

풍년역 전철기앞에서는 《그 처녀》가 우리 렬차를 영접할것이다.

《축하해요. 조사동무!》

《고맙소. 동무 이름은 뭐요?》

《제 이름은...》

드르륵- 기관사가 열차창을 끌어내리고 뒤를 돌아본다.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 저 표정은 너무 긴장해서일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모험적인 견인 초과인것이다. 나는 그를 이해한다.

그런데 그는 이윽도록 뒤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 혹시 무슨 이상이 생긴것이 아닐가... 얼마 후에야 천진히 머리를 돌렸다.

《뒤 좋음-!》

의외에도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무엇을 보았을가. 그는 어지간한 일로는 웃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특별히 눈에 띄는것이 없었다. 그저 석탄, 쇠돌, 세멘트, 원목, 연유...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기관사는... 아니, 아무래도 나는 그를 이해하기 어렵다!...

《구배 주의-!》

스물넷구배가 시작되었다. 기관사의 입가에는 굵은 주름살이 패웠고 부대장은 몸을 앞으로 수긋했다. 그러면서 웬일인지 시계를 얼핏 보는것 같았다.

치달아오르던 속도계의 바늘이 정지해버렸다.

아득한 구배길, 고개마루에 서있는 흰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인다. 《모두다 제 3 차 7 개년계획 수행으로!》 축축히 내리는 이슬비, 레루길이 기름에 절은듯 번들거린다.

문득 속도계바늘이 놀랜듯 흠칫하더니 아래로 툭 떨어진다. 나는 흠칫했다. 나 자신이 그 바늘우에 올라서있는듯했다.

씩- 압축공기소리, 모래를 뿌리기 시작한것이 다.

계속 떨어지는 속도계바늘, 부대장은 그때마다 흠칫흠칫하며 팔목을 보군한다. 시계는 왜 자꾸 불가. 습관일가. 어쨌든 그도 나처럼 속도계바늘우에 올라서있다는것만은 명백했다.

태연한것은 기관사뿐이다. 기관차대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것이 실려있는 속도계바늘을 전혀 못보는듯하다. 어쩌면 저렇게 태연할수 있을가. 저 태연성과 침착성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가...

쭈르륵- 차창으로 물방울이 흘러내린다. 무슨 물방울일가. 아, 이슬비가 내리고있지, 저주로운 이슬비.

기관사의 얼굴에서도 물방울이 흘러내리고있다. 차창으로 뿌려든 물방울일가. 아니, 그것은... 땀이다. 마치도 바위돌이 땀을 흘리는것을 보는듯 현실 같지 않았고 그만큼 가슴을 죄여들게 했다.

부대장은 엉거주춤하고 섰다. 또 팔목을 본다. 시계는 왜 ?... 문득 그 원인을 깨달았다. 그는 퇴행할 경우를 생각하고있는것이다. 퇴행해도 10 분내에 떠난 역에 되돌아가면 사고를 《먹지》않을수 있다. 간부다운 예견성이랄가.

허나 나는 그에 대한 존경이 견줄수 없이 허물어짐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의 존경은 한순간에 밀돌췌은 돌담처럼 무너져버렸다.

달음질쳐오던 전주들이 이제는 헤엄치듯 허우적거리며 마주 온다. 앞으로 50 메터...

《이제라도... 아직은...》

신음소리처럼 들리는 부대장의 말이다.

10 분을 잃기전에 미리 퇴행하자는 뜻이다.

그는 300 만키로메터 무사고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있다.

《이제라도 ? 》

기관사의 눈섭이 토막날듯 찌프러졌다.

《그렇게 무섭나 ? 진짜로 무서운건 공장이, 발전소가 멎는거야 ! 그보다 더 큰 사고가 어데 있나 ? 저게 그저 화차로만 보이냐 ? 공장이구 발전소야 ! 제철소구 ! 인민경제란말이야. 인민경제 ! 》

저것은 부대장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일수도 있다. 그렇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

《올라 못가면... 죽어야지 ! 》

《... 》

속도계의 바늘은 맨아래 눈금에서 떨고있다. 공회전만 한번 했다가는 끝장이다.

앞으로 20 메터, 평지에서의 20 키로메터도 이 보다는 가까울것이다. 고개마루의 《제 3 차 7 개년

계획》 구호가 아득히 먼세상의것처럼 보인다. 힘겹게 끌려오는 긴 화차행렬, 인수원의 초조와 불안에 찬 얼굴이 얼른거린다. 공장, 발전소, 제철소... 문득 나라의 인민경제가 이런 구배길을 오르고있는듯한 환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몸을 떨었다. 심장이 터지는듯했다. 못올라간다면 ? ... 《죽어야지 ! 》 ... 나는 벌떡 일어섰다. 예비모래배낭을 움켜쥐었다.

《조사 ! 》

덜미를 잡는 기관사의 호령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심장이 터져버릴것이다.

나는 기관차에서 뛰어내렸다. 젖은 레루길에 모래를 뿌리며 달려올라갔다. 스무메터도 못되는 거리가 왜 그리도 멀어보이는것인지, 숨이 가빠왔고 땀과 비방울이 눈앞을 가렸다.

고막을 치는 기적소리, 저것은 기관사가 나를 내려다보며 소리치는것이다.

《더 빨리 ! 더 빨리 ! 》

쿵쿵거리는 진동, 이것은 인민경제가 구배길을 오르는 발구름이다. 더 빨리 ! 더 빨리 ! ...

붕- 하는 기적소리가 길게길게 울릴 때에야 나는 구배를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승강대에 매달렸다. 《제 3 차 7 개년계획》의 글발이 눈앞에서 흘러가고있었다.

5

구배를 넘어서자 속도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운전실로 들어서려던 나는 주춤했다. 운전실안의 공기가 너무도 무거웠기때문이었다. 두사람의 얼굴은 침울한 그늘로 덮여있었다.

《글쎄 옛날일이라는게 잊혀지지 않는것이지... 》

기관사의 말이였다.

옛날일, 나는 동정과련민의 감정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그것은 그토록 깊은 상처였던가. 지금같은 때에도 잊지 못하다니... 차창으로 불어드는 바람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날린다. 그는 지금 그 바람속에서 1950 년가을의 락엽냄새를 감촉하고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저 피로움과 가책은 영원히 가셔질수 없는것일가...

산간마을의 나지막한 집들, 작은 창문들이 호기심많은 눈동자들처럼 차를 향해 열린다. 조무래기들이 까닭모를 환희에 넘쳐 환성을 올리며 차를 따라 달음박질을 친다.

구름사이에서 눈부신 해살이 차를 마중하여 내려비친다. 거무칙칙하던 땅도 비에 젖은 풀잎사귀들도 일시에 생기를 띠고 눈부시게 반짝거린다.

이슬이 반짝거리는 밭고랑에서 한 처녀가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보고있다. 머리수건이 팔락거리고 해빛을 담은 입술이 방긋이 미소하고있다. 종달새 소리를 들었는가부다, 은방울을 굴리는듯 할 그 소리...

나는 두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음을 깨달았다. 눈을 깜 감았다. 바람이 눈물방울을 씻어갔다. 그것이 혹시는 점점 세차게 맞바아치는 차바람때문에 솟는 눈물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

《자넨 너무 자기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것 같아.》

기관사의 말이였다.

《어떻게 생각 안할수가 있나?》

부대장의 음성은 높지 않았으나 푹푹히 들렸다.

《그때 발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고개만 없었더라면 끝까지 갔을게 아닌가. 그리고 보면 락오자로 된건 발때문이 아니였던말이야. 부족했던건 의지, 의지 하나였던말일세 !》

(?!)

나는 아무것도 알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것인지.

《그런데 그 먼 옛날의 일을 두고는 가슴아파하는 자네가...》

기관사가 말하고있었다.

《오늘은 어떻게 그리 험사리 물려서자구 할수 있나 ?》

순간 나는 손에 들고있던 예비모래배낭을 떨어뜨렸다. 바닥의 물주전자가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뒤집어졌다.

두사람은 흠칫하며 돌아보았다. 나는 어쩔바를 몰랐다. 부대장이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뒤운전실에 가겠네, 피곤하구만.》

그는 두볼이 푹 꺼진것이 몇분사이에 증병이라고 앓고난듯했다.

나는 뒤범벅이 되어버린 머리로 조사석에 가 있었다. 《그 사람》은 기관사가 아니라 부대장이였다 ! 왜 기관사라고만 속단했던가, 간부가 아니라 는것, 공훈기관사가 못되었다는것, 리해하기 어려운 성미... 그리고는 모든것을 리해했다고 생각했다.

허나 이제는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아무것도 리해할수 없었다. 기관사의 이상스러운 성미는 단순히 천성적인것이었던가, 모르겠다. 알수 없다. 한달나마 같이 승무했으나 나는 종시 그를 조금도 리해하지 못했다...

《모르겠거든 !》

기관사의 찌프러진 눈썹이 움칫움칫 떨고있었다.

《자넨 그 서행표식이 생각나나 ?》

《...》

《그 표식자체야 얼마나 좋나 ? 자네 말대로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제도를 볼수 있지. 그런데 그 표식이 거기에 서있은지 얼마나 되는지 아나 ? 한달이 됐네. 사고만 없으면 일없다는거지. 기껏해야 비관 몇번 받으면 되고. 이게야말로 제도의 고마움을 악용하는게 아닌가 ? 그게 곧 인민경제의 속도를 늦추는것인데도 ! 아마 전쟁때 행군속도를 늦추자고 했다면 군사재판에 넘기자고 했을거네.》

《전쟁때에야 물론 그랬겠지요.》

《그럼 지금은 ? 자넨 지금 우리가 쉬운 길을 가는줄 아나 ? 그때보다 더 어려울수도 있어. 우린 지금 구배길을 오르고있어. 방금 오른것과 같은. 3차 7개년계획이 얼마나 높은 고갯가 ? 그런데 물려서자구 ? 전쟁때라면 그러지 않았겠지 ?》

《그건 아마...》

나는 적중한 말을 고르려고 애썼다.

《그때엔 모든게 명백했구...》

《그래, 그때엔 명백했지. 비겁분자도, 동요분자도 ! 그러나 오늘은 그게 눈에 잘 알려지지 않지. 물려서두, 주저앉아두 눈에 띄지 않는다구 해서 별치않게 여긴단말이야. 나라에 주는 손해는 더 큰데도 !》

《 ! 》

살같이 달려오는 검은 레루길, 그우에서 해빛이 번개섬광처럼 병긋거린다. 각막을 찢고 동공을 찌르는 예리한 그 빛, ...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기관사가 지난날의 일때문에 피로와하고 일을 더 하려한다고 생각했던것은...

드놀줄 모르는 태연성과 침착성, 그뒤에는 모든것이 다 있었다. 책임감도, 의무감도... 허나 《자기》만은 없었다 !

나의 기관사, 강철의 궤도우에서 한생을 변함없이 달려온 로당원...

《여-조사 !》

나는 그를 보자 놀랐다. 눈썹은 언제 찌프러졌던가싶게 쪽 펴졌고 입가에는 미소까지 어려있었다.

《저걸 보라 !》

그는 차창밖을 가리켰다. 공장이였다. 높이 솟은 굴뚝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오르고있었다.

《전번엔 연기가 오르지 않았지 ?》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랬던것 같기도 했다.

《조업했구만. 응 ? 연기오르는걸 보지 ! 굴통이 터질것 같구만 !》

그는 기적변을 꼭 눌렀다. 긴 기적소리, 그 기적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와 승무해온 나날들이 돌이켜졌고 그동안의 일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안겨왔다. 이해할수 없었던 성격, 서행표식을 보며 화를 내던 일, 화차행렬을 오래도록 돌아보며 짓던 미소...

기적소리... 기적소리...

이것이야말로 진정 큰 기쁨이며 큰 피로움이였다. 나라의 동맥과 함께 숨쉬는 기관사다운 기쁨이며 피로움이였다.

그에 비하면 부대장의 피로움, 그것은 피로움이 아니였다. 자신에 대한 불만에 불과했다. 한갓 상처 입은 자존심의 아픔이었을뿐이였다.

그러면 나의 기쁨은 ? ... 운수좋은 추첨제의 당첨, 때맞게 차례진 무사고기록돌과의 영예... 아, 좀더 일찌기 이 기관사를 알았더라면 !

허나 나는 이 승무를 마치면 17 호기관사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자 가슴은 빈집처럼 공허해졌다. 안전한 견인정량, 듣기 좋은 말, 잊어버린 담배와 신경통의 세계...

나는 말라드는 입술을 추겼다.

《저- 이제 이 차엔 누가 조사로 오는가요 ?》

《자넨 조사가 아닌가 ? 》

《날 17 호로 도로 보내지 않겠어요 ?》

《난 내 차에 오를 조사를 기관사가 되기전엔 다른 차에 보낸적이 없어. 전철기-》

그는 기적변을 툭 때렸다.

《좋음- ! 》

풍년역이였다. 전철기, 전철원처녀, 나는 서둘러 차창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전철기는 벌써 지나쳐버렸다.

홈에서 운전지휘원의 푸른 기발이 펄펄 날린다.

통과다. 풍년역은 너무도 작은 간이역이다. 처녀는 이 기관차의 승무원이 나라는것을 알수 없을것이다. 모르고말것이다.

허전했다. 말할수없이 아쉬웠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듯 덤덤한 기관사의 얼굴을 보자 곧 위안을 찾았다.

앞으로 알게 될것이다. 이제부터는 이런 류다른 승무가 나의 생활로 될것이어늘 ! ...

봄, 처녀들이 웃는다

엄형조

갔는가, 겨울은
왔는가, 봄은
내가에서 손을 씻던 처녀 하나
환성을 지른다
-어마나, 버들개지!

뻗어간 새 철길 비끼인 내물에
삽이랑, 곡괭이랑 씻어내던 처녀들
일시에 머리드는데
맑고맑은 눈동자들속에
소담스레 부푸는
아, 살찐 버들개지

-애들아! 봄이다. 봄이 왔다!
물보라 튕기며 날리며
달리어 달음질쳐 모여든 처녀들
어깨성 쌓았네
어깨성 쌓은속엔 소중한 봄의 전달자!

아직은 들성들성
내가에 얼어붙은 눈덩이들...
허나 처녀들 몰래

움틀수 없는것 버들개지
처녀들 몰래
울수 없는것 봄이던가

처녀들 눈가에 이슬이 핑그르르
위혼을 안고 험한 겨울 이겨낸 그것이 기뻐서
버들개지 둘러싼채 웃고 또 웃고...
산너머 골짜기에서 터지는
겨울의 마지막 눈보라도 잊고만들

정말 잊고말았네
북부철길돌격대원 처녀들은
나서자란 고향, 두고온 고향에선
버들개지 철 지나
산에 들에 진달래 꽃잎술 벌린줄

어쩌랴, 그런들
계절이 주는 봄은 뒤늦게 받았어도
완공의 그날로 흘러흐르는
자기들의 마음속 지향의 봄시내엔
제일먼저 버들개지 탐스럽게 싹틔운
아름다운 돌격대처녀들인데야

80년대 혁신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일대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로 높이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온 누리에 떨치고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3월도 하순이라 평양거리의 가로수들은 푸른색을 띠기 시작하였다. 화창한 봄날, 우리는 광복거리에 나가 현지체험을 하며 작품을 쓰고있는 조선문학창작사 평양시창작실 소설가 김삼복을 찾아떠났다. 광복거리 건설장은 들끓었다. 안골체육촌에 있는 큰 건물의 벽체에는 광복거리를 로동당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로 훌륭히 건설하자고 호소하는 대형 구호판이 걸려있고 그아래에는 대서특필한 전투속보들이 나붙어있었다.

혼합기소리, 기증기소리, 호각소리... 건설장은 마치 하나의 불도가니를 연상시켰다. 안골체육촌은 그 어느 대상도 서로 같지 않는 자기의 독특한 양상과 형식을 가지고 솟아오르고있었다.

현장일군은 소설가 김삼복동무가 얼마전부터 저쪽 주택지구로 가서 생활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얼마전에 작가동무는 자기가 쓴 소설의 한 대목을 우리에게 읽어주더군요. 장편소설의 제목은 <기념비>라고 함데다. 거기에 나오는 당비서는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은 사람이더군요. 그 당비서는 로동자들속에서 항상 보고 느끼고 호흡하면서 남이 보지 못하는것을 보며 남이 느끼지 못하는것을 느끼더군요. 당일군들은 이런 예리한 관찰과 감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소설가가 쓴 장편소설의 초고가 독자들에게 좋은 반영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소설가를 만나려 주택구역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를 만날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그는 이런 말부터 시작하였다.

《휘황한 태일을 설계하고 <80년대속도>로 내달리는 조국의 표상을 그대로 그려볼수 있게 하는 풍부한 생활적 내용이 바로 이 현실에 있지요. 이런 생활을 알게 되는것은 쉽게 얻어지는것이 아니랍니

다. 이 거리의 주택구획을 좀 보시오.》하며 그는 여기서 건설자들은 12분에 한세대씩 건설한다고 했다.

12분에 한세대! 이것은 실로 대단한 건설속도이다. 돌이켜보면 1950년대말에 우리 수도건설자들이 14분에 살림집 한세대씩 조립하면서 《평양속도》로 전진할 때에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속도를 두고 경탄을 금치 못했었다. 광복거리 건설자들은 《평양건설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이번에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른 살림집건설속도를 기록하였다.

광복거리에 일떠서는 살림집들은 20층, 30층, 40층짜리 고층건물들이며 세대당 연 건평이 평균 110평방미터, 최고 180평방미터나 되는 세칸, 네칸짜리의 규모가 큰 살림집들이라 한다. 살림집들의 규모와 작업량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광복거리 건설자들이 창조한 건설속도는 《평양속도》때에 비하여 2.5배나 되는 비상이 빠른 속도라는 소설가 김삼복동무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서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수도건설사상을 받들고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는 한 당일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소설의 주인공원형입니다. 현실주체의 소설문학에서 보게 되는 풍부하고 참신한 형상은 반드시 생활에 대한 진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로 충만된 벽간 생활속에 있다고 하여 생활체험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대한 현실체험, 이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맞닿게 되는 창작에서 기초적이며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한 학생소년궁전앞 광복거리의 종점까지 왔다.

만경대 갈림길로부터 팔골다리까지의 구간에 형성된 기본도로축을 중심으로 서로 나앉기도 하고 들어앉기도 하며 집중되어 겹치기도 하면서 립체적으로 형성된 살림집들이 키돋움하여 솟아난것을 보는 우리의 생각은 더더욱 깊었다. 우리는 이 보람찬 현실속에서 생활하면서 창작을 하고있는 소설가 김삼복동무의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

우리가 북부철길건설장에 나가 현지체험을 하면서 창작생활을 하고있는 평양시창작실 시인 구희철동무를 찾아 혜산을 떠나는 열차에 올랐을 때는 봄이라 하지만 내륙지방의 산밭들에 아직 흰눈이 덮여있었다. 종착역에 내린 우리는 역구내측선에 늘어선 숙영차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북부철길건설지휘부의 한 일군을 만났다. 우리와 동행하게 된 그는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작가 구희철동무를 만나러 왔지요. 이곳에서 한 50리 떨어진 건설현장에 있습니다. 청년건설자들의 사랑을 받는 시인이지요. 그곳까지 함께 가봅시다.》

내륙깊이 뻗어간 철길은 구배가 심하고 차굴도 많았다. 우리를 태운 모다카는 패속으로 달렸다. 길고 짧은 차굴을 련속 빠져나가며 구배가 센 철길을 썩썩 치달아오르는 모다카앞으로는 험한 산밭들이 마주왔다. 철길이 에돌아간 산모퉁이에는 새로운 광경이 우리의 눈길을 이끌었다. 철길건설장이다. 사방에 내걸린 구호판, 숙보판들과 바람에 세차게 펄럭이는 오색기들, 긴 레루를 싣고 움직이는 레루운반차들, 와-와, 기세를 올리는 청년건설자들…청춘의 정열이 차넘치는 철길건설장은 눈덮인 산밭과 조화를 이루어 한폭의 그림과 같았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을 또 만날수 없었다. 그는 이곳에서 10여리 떨어진 어느 한 려단에 일하는곳에 갔는데 저녁에야 온다는것이였다.

《이것보십시오. 작가동무의 도움으로 우리 건설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와 실화들을 썼는가를…》

지휘부의 그 일군은 우리앞에 전투속보신문철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청년건설자들이 창작한 서정시와 벽시, 실화, 수필, 단상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실려있었다.

《참으로 정력적인 시인이지요. 여기 새 철길 500여리구간에 있는 건설자들을 찾아 그는 다섯

번이나 다녔지요. 이 과정에 그는 지평이만 해도 다섯개나 갈았답니다. 허허…》

북부철길전투속보를 들여다보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잡지 《조선문학》 1호에 시인 구희철동무가 쓴 새해결의가 떠올랐다. 그때 그는 이렇게 썼다.

…《현실로 가자!》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작가는 땅에 묻히지 못한 씨앗과 열매를 기대할수 없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현실, 그곳엔 시의 생활이 있고 참신한 종자가 있고 풍만한 정서가 있는것이다.

《현실로 깊이 들어가자!》 이런 심장의 웨침이나의 걸음을 벌써부터 서두르게 한다. 새해의 첫 자욱을 나는 북부철길 건설장에 남기려 한다. 유람식이 아니라 로동생활로 보람있게, 현실취재가 아니라 땀으로 현실체험을 쌓기 위해…

지휘부의 일군은 우리에게 시인은 북부철길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노래한 시들을 신문 《로동청년》에 20회나 게재하였고 잡지 《새세대》 매호마다 실화를 련재하여 청년건설자들을 고무한다고 했다.

저녁에야 우리는 시인과 만날수 있었다. 다감한 그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생각케 하였다.

그중에서 한가지만을 소개하자.

《…아직도 제가 쓴 일부 시가운데는 서정시적 예리성이 없으며 성격이 희미한 웨치는 식의 시들이 있는것은 서정시에서의 성격문제를 생각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시인의 개성을 통한 일반화로 구현되어지는 서정적 주인공의 성격이 어느 정도로 깊이있게 성격화가 되였는가에 따라 그 서정시가 어느만큼 잘되였는가가 결정된다는걸 현실체험과정을 통하여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웁은 말이였다. 시인의 이야기에는 현실생활체험을 통하여 느낀 값진 생각들이 담겨져있었다. 시인은 이곳에서 서사시초고도 써놓았다 한다. 우리는 그의 창작적 성과를 바라면서 시인과 헤어졌다.

본사기자

친선의 밤

한호

지나간 날의 그 추억은 지금도 새롭게 가슴을 친다. ...

밤! -

봉화예술극장의 밤은 불빛이 화려하다. 평양국제문학회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 작가들의 시랑송모임이 여기서 열린것이다. 촬영가들은 이 밤을 기록하려고 붐비고 관람석에는 우리 작가들과 외국의 벗들로 꽉 찼다.

처음 수단 작가 및 시인동맹대표 무함마드 알리 아부 가타티가 쓴 시 《**김일성**, 그이는 사상의 화불》의 랑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는 평양국제문학회토론회와 아. 아작가협회 집행리사회 회의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읊어올린 시였다.

그는 열광적으로 시를 읊었다.

인민의 사랑을 받고계시는 당신을
우리는 한마음 우러러 존경합니다
당신은 시대의 수령, 투쟁의 기수
고귀한 가르치심 화불로 타올라
인류문학의 앞길을 밝게 비쳐줍니다
...

김일성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여
광휘로운 해발이시여
기쁨의 상징이시여
위대한 사상의 영재이시여
당신은 세계의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

시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를 사상의 화불로, 현시대 인민들의 앞길을 밝히시는 세계의 탁월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랑송이 끝나자 봉화예술극장이 떠나갈듯한 박수를 받았다.

그다음 로므니아작가대표단 단장이며 시인인 알렉산드르 안드리조유의 《현시》와 스리랑카 구나쎄나 비타나의 시 《나는 그림을 그린다》가 랑송되었다. 스리랑카인민작가전선대표인 《로터스》상 수상자 구나쎄나 비타나는 자기는 스리랑카의 문학평론가이지 시인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현실을 보고 시를 쓰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어 시를 썼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진보적 문화와 작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의 진보적 작가들은 시대와 인류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창작의 붓끝에 불꽃을 뿜고있다.

나라와 민족은 서로 다르다. 때문에 그 나라 인민들의 사상감과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작품도 다를수 없다.

그러나 이밤, 대륙과 대양 건너 찾아온 5대륙의 진보적 작가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흐르고있지 않는가!

그렇다!

시 《감사합니다》, 《조선》, 《목란꽃》, 《강을 건느다》, 《자랑하라 조선인민이여》, 《희망의 태양》 등 그 어느 한편을 들어보아도 조선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존경,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목소리가 뜨겁게 흘러넘쳐 온 장대를 휩싸고있다.

그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그것은 외국의 벗들이 한결같이 노래하고있는 바와 같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현시대를 현명하게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양양한 미래를 안고사는 조선인민이기때문이다.

흥분을 억제 못하며 생각을 더듬는 나의 가슴속에는 지금 네팔작가대표 가넨드라 바하두르 까르기가 하던 말이 떠오른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조선에 몹시 오고싶었습니다. 조선에는 **김일성** 주석님께서 계시기때문입니다. **김일성** 주석님은 우리 네팔사람들뿐아니라 세계가 다 알고 따르는 위대한분이십니다.》

주간신문 《나야제파나》의 주필이며 론설원인 까르기는 자기네 신문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여러편의 글을 쓴 사람이었다.

그러나 몇편의 글을 썼다고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급속히 발전하는 문학과 예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에 대하여 다 알수는 없었다.

까르끼는 만경대, 주체사상탑, 학생소년궁전, 지하철도,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평양의 여러 곳과 서해갑문을 돌아보면서 조선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가는곳마다에서 친절하게 맞아주는 사람들, 맑고 청신한 거리에 화려하게 솟은 다층집들, 학생소년궁전에서 아이들에게 물으면 그 좋은 재능도 공부도 돈 한푼 안들이고 그저 배운다는 이야기, 병원에 들리면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정성, 집단체조의 황홀한 세계, 무대들에 펼쳐지는 화려한 예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어 누구나 평등하고 화목한 조선의 현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꿈같은 현실이었다.

그러기에 나와 자리를 같이한 장소에서 그는 정정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조선은 참으로 빨리 발전하였습니다. 나는 정치문제를 다루는 신문주필이면서도 생활철학을 모르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와 지도자를 모신 인민은 위대한 변혁을 가져온다는것을 말입니다.》

그렇다!

위대한 령도자와 지도자를 모신 인민은 남들이 상상할수 없는 혁신과 변혁을 낳는다.

전후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폐허우에 천리마의 나래를 부르시여 사회주의공업국을 일떠세워주신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며 평양이 새 모습으로 전변되고 《서해갑문》이 완공되어 자랑떨치고 강줄기마다 언제가 솟고 간석지의 새땅이 늘어나는것도 수령님의 구상을 꽃피워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가 빛나고 있기때문이다.

가사

심장은 속삭이네

계훈

버들개지 움트는 시내가에서
그대는 물엿지 나의 기쁨을
맑은 물에 손잡으며 나는 말했네
기쁨은 우리 서로 만난것이라고

푸르른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그대는 물엿지 나의 사랑을
붉은 노을 바라보며 나는 말했네

5대륙의 진보적 작가들이 것처럼 경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것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가시는 그 뜨거운 은정에 대한 매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가슴은 더욱 설레였다. 이밤처럼 조선의 시인으로서 긍지를 가져본적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미래는 또 얼마나 양양한가!

(해와 별 빛나는 나의 조국을 위하여 혁명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리라.)

마음 다지는 나의 가슴을 북돋아주며 봉화에술극장의 불빛은 더 밝고 외국의 벼들이 부르는 노래는 더 높이 울린다.

내 천진한 어린애마냥

한떨기 진달래 꽃향기에 취하였는가

그이 사상의 위대성

찬란한 아침노을에 비길가

영광스러워라 그이 **김정일!**

...

그이의 품 봄날의 해빛이런가

가을날의 풍요한 대지이런가

지구우에 나래치는 그이의 사상

그대는 평화의 선도자

그이는 단결의 중심

그이는 행복의 상징

위대하여라 그 이름 **김정일!**

...

사랑은 우리 함께 있는것이라고

우리 서로 말없이 강변을 걸을 때

별빛은 축복하듯 강물에 어렸네

밤늦도록 두 심장은 속삭이였네

조국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다고

아, 조국이 없으면 사랑도 없네

궤도를 받드는 마음

주성준

숨은 공로자, 그는 창조적 열정과 완강한 투지를 안고 시대의 첨단을 걷고있는 선구자이다. 때문에 그의 생활은 언제나 탐구적 열정으로 차있으며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완강하게 뚫고나간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은 일뿐만 아니라 열가지 스무가지 일을 다 해도 성차지 않아 모대기는것이다.

한순간을 하루, 아니 백날맞잡이로 값있게 살려는 각오를 가진 사람은 혁명의 리익이 되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든 애써 찾아하고 필요하다면 자기의 모든것을 기꺼이 바칠 결심도 자연스럽게 하는것이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자기에게 행복한 삶을 마련해준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에 고귀한 혁명적 의리로 보답할줄 아는 량심이 가장 깨끗한 인간이며 조국을 심장으로 받들줄 아는 진정한 애국자인것이다.

남포객화차대에서 평범한 검차공으로 일하는 당원인 손원보동무가 바로 그런 인간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낡은것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려는 혁명정신이 바로 우리의 사회제도에 맞는 공산주의사상입니다.》

일단 궤도우에 들어선 다음에는 중량물동을 싣고 쉬임없이 달리는것이 화차이다.

화차가 궤도우에서 달릴수 있게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것은 차축부분에 있는 부속품들인데 그것은 헤아릴수 없이 많은 화차마다 반드시 필요한것으로 어느때든 중요하고 수요가 긴장하다.

이처럼 귀중한것을 바로 손원보동무가 2년 남짓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악하게 노력하여 만들어냈다.

그가 수송에서 제기되는 큰 문제를 푼것은 그 부문에 남다른 기술이 있는것도 아니며 파업을 받

은것도 아니다. 다만 당이 아파하는 문제를 놓고 남모르게 고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완강하게 노력한 결과 얻어진 귀중한 열매인것이다.

오직 자기의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사람이 혁명가이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숨은 공로자라면 바로 손원보동무같은 사람을 두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2년전, 그가 철도의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어 당에 기쁨을 드릴 오직 한마음으로 새로운 부속품을 창안하는 일에 달라붙었으나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가 눈에 띄이게 나타나는데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도와주던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고 반면에 뒤에서 은근히 그가 하는 일에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더는 진행할수 없게 제동을 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던 손원보동무는 병은 다 나았으나 아직 며칠간 더 안정치료를 받아야 하겠다는 의사의 권고도 마다하고 퇴원수속을 하자바람으로 곧장 공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의 귀전에는 퇴원직전에 병원에 병문안 왔던 작업반의 한 친구가 들려주던 말이 여전히 울리는 것만 같았다.

《원보동무가 언제 퇴원해서 그걸 다시 추진시킨다고 그러오. 공구들과 장비들을 모두 공무작업반에 돌려주시오.》

한 일군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작업반 반장에게 지시했던것이다.

실사 그 일군이 당사자가 없고 게다가 전망까지 보이지 않아 외면할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할줄은 미처 몰랐다.

원보동무는 도저히 참을수 없었다. 그는 작업반으로 향했다.

정신없이 달리던 그는 그만 앞에서 벼락치는 듯한 새된 기적소리와 함께 다급한 호각소리, 뒤미처 어떤 녀인이 앞을 막아서는통에 머리를 들었다.

바로 철길건늬길이었다. 기차가 먼지와 검불을 말아올리며 질풍처럼 지나치는 자기앞에 철길차도 원으로 일하는 안해가 마주 서있는데가 아닌가.

원보동무는 안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यो.》

결국 안해는 남편이 병원에서 무엇때문에 벌써 퇴원했는지 알아차렸던것이다.

몸은 완쾌된것 같으나 아직도 얼굴색이 좋지 않아보여서인지 안해는 걱정스레 입을 열었다.

《아직 집에서 안정해야지요.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공장에 나가세요.》

《걱정 마오. 다 나았소.》

《아니예요. 얼굴색이 말해주고있어요. 어서 집으로 가지자요.》

《이런 답답이라구야. 일없다지 않소!》

안해는 원보동무를 더는 만류할수 없었다.

《철도수송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이 말은 원보동무가 어디서나 입버릇처럼 외우던 신념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한순간에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말은 철길구간을 아침저녁으로 오가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안고 모태 긴 순간순간이 모여 심장에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새겨져 드림없이 자리잡은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부속품을 만들자면 나라의 귀중한 희유금속들과 자재들이 많이 요구될뿐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공정이 여간 까다롭지 않아 전문공장에서만 생산하였던것이다.

더구나 나날이 늘어나고있는 철도수송에서 그에 맞게 짐싣는 차량들에 리용되는 그 부속품 수효를 충족시켜야 하는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재와 힘으로 쉽게 만들수 있겠는가? ...)

1년여에 걸쳐 기술문헌들을 연구하고 지구와 혁신안들을 준비하면서 고심하던 끝에 원보동무는 미숙하게나마 자기가 의도한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기술합의가 진행되었다. 일부 기술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성공의 싹이 보인다고 환성을 올렸으나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한 때 원보동무가 입원했다.

그런데 원보동무가 병원에 입원해있을동안 기술혁신장소까지 철수시킨다는것이 아닌가.

원보동무가 그 일군과 마주앉았을 때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동무가 만들어낸다는 그 부속품문제는 아무래도 과악이 없는데... 여기는 화차수리장이지 연구소는 아니지 않소. 가망이 있는거면 몰라두...》

《아니 왜 해보지도 않구 여전히 안된다는겁니까. 이젠 누가 하든지 꼭 끝장을 봐야 할 일이 아닙니까.》

원보동무의 목소리는 강철덩어리의 맞부딪침인듯 강렬하게 울렸다.

정열의 빛을 발산하는 눈동자, 꼭 다문 입... 마지막까지 해내고야말 결의에 차있는 그였다.

《동문 그제 얼마나 난해한 문제들이 있는지 또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러가지 기술실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모르는것 같은데 잘생각해서 신중히 처신하기를 바라오. 쯔쯔... 공연히 수리자재만 잘리울수 있소. 그래 그 문제까지 책임지겠소?》

사실 수리용 화차들이 한창 들이밀릴 때는 누구보다 눈코 뜰새없이 돌아치는 사람이 그 일군이고 수리용 자재때문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그다. 또한 계획과제를 수행 못했을 때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것을 자각한 그였기에 언제나 공장을 뜨지 못했다. 오죽하면 그가 자기에게 책임문제까지 말하겠는가.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더는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그가 못마땅스럽긴 하지만 그것을 까뻑히며 옳고 그른것을 논한다면 자신이 그에 대해 너무나 무리한 행동을 하는것 같아 원보동무는 흥분된 마음을 지그시 눌러버렸다.

그는 그러한 일군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행정적으로 승인을 받고 부속품 전문생산공장에 가서 그곳 로동계급의 방조를 받아 기어이 완성해가지고 돌아올것을 결심하였다,

원보동무는 그길로 기술혁신장에 벌려놓았던 지구와 장비들을 배낭에 걸어넣고 공장정문을 나섰 다.

밤이 이슬하여 짐을 꾸려가지고 역전에 나왔을 때 안해가 따라나왔다.

남편의 몸을 걱정하는 안해는 어떻게 하나 가지 말라고 설복하러 들었다.

역전앞마당 돌의자에 짐을 놓고 차시간을 기다리느라 푸름한 달빛에 그물처럼 엉킨 버드나무그림자를 밟으며 서성거리는 원보동무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던 안해가 애원에 찬 어조로 말했다.

《랭정히 생각해보세요. 기술혁신이야 좀 있단들 누가 뭐라겠어요. 또 당신이 그걸 꼭 해야 하는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병원치료를 받고 다 나은 병이 다시 도지면 어떻게 해요. 난 당신이 건강한 몸이라면 말도 안하겠어요...》

안해는 더 말을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다.

원보동무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문채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며 자신을 심각히 돌켜보았다.

(내가 뭇때문에 남달리 힘들게 이런 길을 걷는가, 자기 말은 부문에서 조금만 앞서나가도 모두에게서 존경도 받고 떠받들리울수 있다.

지금 가는 이 길은 누가 오라고 하여 가는 길도 아니고 또 아는 사람도 없다. 성공 못하면 돌아설수 밖에 없지 않는가...)

다음순간 무엇인가 심장을 세차게 쳤다. 기술혁신의 길로 첫발을 들여놓을 때 화차수리를 풀어 수송의 긴장성을 해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다진 그 맹세였다.

원보동무는 어떤 꿈속에서 깨어나듯 순간이나마 나약해졌던 자신을 질책하며 눈길에 생기를 띠운채 안해에게 힘있는 어조로 말했다.

《내 꼭 성공하고 돌아올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요!》

그는 더 긴말을 하지 않고 배낭을 지고 곧추 역함을 빠져나갔다.

이튿날 원보동무는 그 부속품을 전문생산하는 철도공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은 불도가니마냥 들끓었다. 쇠물을 녹여 주형틀에 붓는 사람들, 시뵔경계 달군 부속품에 다른 금속을 용착하느라 바빠 돌아치는 사람들...

모두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늙수그레한 관공이 두드리진 아버지가 연신 땀을 흘리며 부속품체다 다른 금속을 용착시키는 기술작업을 진행하고있다.

그는 30년동안 부속품을 생산하는 고급기능공이며 공장의 숨은 공로자라고 했다. 그가 없이는 기

술적으로 까다롭고 힘든 작업인 용착작업을 할수 없다는것이다.

말이 없고 성실하고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어나가는 사람만이 이 작업을 맡아할수 있는것이다.

고급기능공아바이는 비록 힘든 작업이지만 나라의 수송문제를 푸는데 자기가 크게 기여한다는 긍지로 하여 오늘까지 군말없이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있으며 더우기 대를 물려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직접 담당자로 키우고있는것이였다.

원보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화차를 제때에 수리하기 위해 그 부속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려고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이곳 로동자들,

30년이나 군말없이 그 부속품들을 만드는 고급기능공아바이가 아들에게 대를 물려주려는 그 뜨거운 마음... 현실은 얼마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로 가득차있는가!

원보동무는 자기가 여기로 온것은 천번만번 잘했다고 생각했다.

원보동무는 그곳 로동계급과 한덩어리가 되어 새로운 부속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 그가 건강치 못하다는것을 안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색다른 음식이며 지어는 보약까지 들고나왔고 잡자리를 넘려하여주었다.

그럴 때마다 원보동무는 가슴이 후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 지성이 힘이 되고 열정이 되고 지혜를 낳았는지 원보동무는 애쓴 보람이 있어 드디어 새로운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원보동무는 즉시 그것을 구배가 제일 심한 철도 구간에서 달리는 화차에 설치하고 자신이 직접 기관차에 올라 매 역마다에서 그 부속품상태를 검열하였다. 시험결과는 완전히 성공적이였다.

수명은 종전의것보다 몇배나 길었고 제작과정에 소모되는 로력이나 시간도 수배 줄일수 있게 되였다.

진정 그가 두줄기의 동맥, 아니 조국을 심장으로 받드는 애국자가 아니였다면 어떻게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면서 고심참담한 탐구와 노력으로 새형의 부속품을 만들어낼수 있으며 건강치도 못한 몸으로 현장에서 수백수천번의 반복 시험을 하며 완강하게 일해나갔겠는가.

이렇듯 손원보동무야말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성심이 불처럼 뜨거운 우리 시대의 숨은 공로자의 한사람이였다.

땅과 농민 그리고 소조원

오재신

소조원, 그대가 부를 때면

이 아침도
뜨락또르 몰아 들에 나서니
기다린듯
웃으며 반겨주는 정다운 목소리
《관리위원장동무!...》

진정에 겨운 그 목소리
소조원이 나를 부를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것이 있다네

문득 20 대 젊은 시절
《여, 최덕근이!》
어깨를 툭 치던 못잇을 얼굴들
별 가득 보여오는듯해서

소조원, 그대가 부를 때면
설레는 가슴

평 -
숫구는 눈물
나무람 마시라네 관리위원장아바이는
그대의 아버지가
수십년전 그 로동자동무였느냐며...

잊지 못한다누나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무명천에 주먹같은 글발을 써놓고
서로 마주웃던 농촌위원회의 그밤을

기쁨을 못참아
밭머리에서 정쟁이를 엿걸며
함께 덩굴던 동무
토지개혁의 그 나날에
우리 수령님 파견하신 첫 로동계급

분여받은 이 땅에서
첫해 농사를 짓거들랑
함께 평양으로 가자고
가서 장군님을 뵈옵자고
언약도 그 몇번

그 언약 지닌채
반동놈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미소짓던 그 모습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이
친근한 음성으로 가슴가득
활기를 더해주는것 같아서
20 대 젊음을 주는것만 같아서

아, 그대 목소리
동구길에서, 두령길에서, 다락밭에서
문득 나를 찾을 때마다
머리우엔 깨끗한 검은 머리
엷혀지는것 같아라

한평생 농사일에 머리는 희였어도
나날이 열정은 온몸에 넘치다네
마음에 흰서리를 엷고서는
따라갈수 없는 그 젊음
소조원, 그대가 바로 그것을 주고있어...

그들은 함께 있네

아, 그 어느 한때 마음속에
자리를 비운적 있었던가

지금도 동구길에 나서면
푸집 좋은 그 모습이
한목침을 베던 그 시절처럼
걸어올린 팔뚝을 휘두르며 마주오는것만 같아...

그의 손목을 잡고
이 땅 이 별우에 첫 자욱을 땀 그 걸음이
오늘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그날의 그 걸음을 이어가거니

아,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서는 이 별 이 대지에
함께 정성을 기울여가자네
분여지의 패말을 박았던 이 땅에
3대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그 나락을 거두며
아버지 남겨놓은 그 언약도 품고간 그 소원도
가슴 후련토록 풀어놓으며...

농장의 이 저녁
나란히 들에 나서니
그대곁에 또한 그 아버지도 서있는듯
넓어지는 대지, 그 한복판에
그들은 세사람, 함께 있었네

땅과 농민 그리고 소조원

별에서 돌아오는 저물녘에
이슬털머 나서는 새벽길에
어디서나 문득
가슴치는 뜨거운 생각

땅과 농민
그리고 소조원
그 무슨 인연으로 맺어졌느냐

소조원, 그대가 태어나던 그해 봄
이 땅에 아버지를 묻은 그 사연때문인가
학생시절 농사일을 돕던 그 어린 마음이
해마다 정으로 고여서이던가

농사차비로 들끓던 겨울
씨불임 바쁘던 봄
벌레잡고 김매던 여름
그들은 함께 이 별에 있었지

새로 개량한 랭습지에서

소출이 얼마나 날가
그 궁금함도 풀어보았고
간밤 비물에 씻긴 한줌의 흙이 아쉬워
동쪽에 함께 장석도 쌓던 그대 마음

때없이 문득 건늬는 말도
농사일
흙금을 터놓고 나누는 이야기도
농사이야기
생각도 걸음도 한뼘으로만 흘렀거니

정녕, 땅에 기울이는 그대의 진정
그 마음이 맺어주었노라
땅과 농민
그리고 소조원
떨수 없는 그 인연을
하나로 맺어주었노라
농민의 한생과 소조원의 진정
그리고 풍만한 이 땅을 !

땅에 부치여

토지개혁의 첫 퇴성이 울던 그봄
그 봄으로부터 세월은 흘러 몇몇해런가
눈을 뜨고 다시 봐도
다시 봐도 꿈만같아
불을 비비며 흘린 농민들의 그 눈물이
마를줄 모르는 이 흙속에 젖어있다

땅의 주인-그 소중한 권리를 지켜
흘린 피
그들이 쏟아부은 땀과 정력-
그리고 그들의 한생이 여기 다 스며있다

뜨는 해도 여기서 맞으며
지는 달도 여기서 보내며
비에 젖고
눈에 얼고
별과 바람에 살이 트던 그 사람들

제 손에 들어온 운명, 그 운명이
가꾸어가는 그 한포기, 그 한알의 낱알에 있었거니
이 흙속에 그 청춘을 묻어도
그것을 아까와하지 않았다

히나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고달픈 로동의 대가로
그 나락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

3대혁명 은 주었다 !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서 그들모두
이 땅우에 설 그 권리를
그 권리로 이 땅을 길들여
풍작의 세월을 이어가는 그 기쁨도...

3대혁명 !
그 기발을 추켜들고 걸어가는 그 길로
수천수만 발걸음이 따라섰다
어렵고 힘든 농사일의 마지막 흔적을 날려버리며
노래와 같이 춤과 같이 흥겨운
새로운 날과 달이 여기에 마주오고있거니

아, 미구에 이 땅은
아득히 열린 이 들에서
오로지 하나의 모습만을 보게 되리
3대혁명의 기폭아래 한모습으로 선
새로운 농업근로자- 그 주인들을 !

땅의 고백

서진명

1. 그날은 3월 5일 !

3월

버들개지 움트는

봄도 이른봄

처음은 그저 얼떨떨해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오

고달픈 삶의 세파속에

매이르게 얼굴에 주름이 갔던 농민

얼굴이 환해져

십년이나 젊어진듯싶은 그 농민을

때없이 피눈물을 뿌리며

땅, 내 가슴을 광광 두드리던

어제날의 그 모습 눈에 삼삼해

아기를 안은 행복한 어머니처럼

더운 가슴으로 날 부둥켜안은 농민앞에

나 또한 가슴을 다 맡겼던

그날은 3월 5일 !

-톡톡톡

조용히

그리고 지 꽃게

내 가슴에 이어지던

내 가슴을 울려주던

심장의 세찬 박동

그것은 숨이 가쁘도록

나를 끌어안고 놓을줄 모르던

농민의 심장이 웨치는 소리였다오

-나는 너의 주인이다 !

그다음은

미처 다 알수 없는 흥분으로

부풀어 일어서던 이 가슴

열었던 나의 몸을 녹이며

구슬져내리던 행복의 눈물

방울방울 그 후두운 눈물에

가꾸는 손은 있어도 주인이 없던

지난날의 설움은 봄눈처럼 녹아

환희로 이 가슴은 설레였다오

태어나 그 몇천년만에

내 참다운 주인을 만나게 된것인가

아, 력사의 그날

농치면 영원히 잃기라도 할듯

미더운 주인의 그 품에

와락 내가 안겼다오

어머니 젖품을 파고드는

아기처럼, 아기처럼

2. 그밤만은 미처 몰랐다오

꿈결에도

곡식 크는 소리 새겨듣는 농민

그의 결을 한시도 떠난적 없어

내 또한 주인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안다 장담해왔지만

그밤만은 미처 몰랐다오

온 가족이 고르고 고른 하얀 옥백미

마당에 섬섬이 쌓아올린 날가리

그 날가리 바라보며

나도 웃던 그밤

알수 없었다오

그밤따라 말이 없던 주인의 깊은 마음

달빛 깔린 마당에서 서성대며

재너머 먼 하늘가를

왜 그리 송엄히 바라보기도 하는지

손발이 났도록 나를 가꾸어도

빈 쪽정리와 한숨밖에 차례지는것 없던 타작마당

어둡던 그 세월은 지난일로 되었는데

무슨 영문때문일까

깊어가는 밤과 함께 이 가슴속에도

한가닥 시름이 스며들었었다오

단란한 웃음꽃 피는 집을 멀리

포전길을 걷기도 하고

논쪽에 앉아

구수히 담배연기도 피워올리는 주인의 마음

내 모르는 근심을 안고있는것만 같아...

그렇게 지새워 맞은

못잊을 그날
새들 우짖고
해빛도 유난히 빛나던
그 아침에야 나는 알았다고

왈랑왈랑 소방울소리 울리며

재너머 휘우듬히 뻗은 읍내길로
애국미 신희가던 그 달구지우에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주인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나의 존엄, 나의 기쁨도 실려간다는것을

3. 나는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나는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내 품을 떠나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
나의 첫 주인을

함께 백년을 살리라
별 향해 지어놓은 덩실한 기와집을 두고
천년을 셈솟으라
깊숙이 파놓은 우물을 뒤에 두고...

잠시 다녀올듯
불구름 밀려들던 그날
흙내 배인 손에 총을 잡고
그렇게 혼연히 떠나가더니
그 길이 멀고멀어 다시 오지 못했던가

상상할수조차 없었다오
꼭식 크는 기쁨에 취해
밤늦도록 발이랑을 떠날줄 모르던 그
전선길 떠나면서도
몇번이고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주인과의 그 리별이 상봉으로 이어 못질줄

비가 내리면 비에 함뿍 젖으며
달빛이 내리면 달빛에 뒤편기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나와 함께 너무도 짧게 보낸
그 아쉬운 삶을

허나 하나만은 똑똑히 안다오
값있게 바쳐진 그런 삶이 있어
수난의 그날
내 한줄흙도 욕되지 않았다는것을
그의 마음 뜨겁게 스며있어
나날이 살찌는 이 가슴에
풍년나락이 더 무겁게 떠실린다는것을

하기에 오늘도 나는
기쁨속에 만난다오
아들 손자 지켜선 이 땅에
참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아, 나의 영원한 주인을!

4. 나의 마음 언제나

3 월
뜻깊은 그해의 일을
먼먼 지난일로 되게 하며
흐르는 세월

쌀을 내는 공장처럼
내 모습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그날처럼 마음은
마냥 미덥고 기쁘기만 하다오

피가 통하게 해주려는듯
나의 품 그 어디라없이

분수식 배관을 물어주며
겨우내 수고많은 농민은
얼굴마저 신통히 닳은
주인의 그 아들

시운전의 동음속에
드리운 분수비
그 새 풍경이 좋아
달덩이처럼 웃는 단발머리처녀는
다름아닌 주인의 그 손녀

그날의 아버지처럼
나를 껴안고 심장의 말 터놓은적 없고

그날의 할아버지처럼
더운 눈물로 내 가슴 적서준적 없어도

매일 매 시각
주인의 그 손길
그 숨결
그 뜨거운 진정을 느끼게 하는
그네들은 나의 착실한 주인들

세월이 갈수록 늘어만나는
나의 새 주인
나의 영원한 주인들속에 안겨있기에
나의 마음 언제나
세기의 숙망이 풀리던
그 봄날에 산다오

키낮은 교단에서

문기창

나에게 물으면
세상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다 아는것만 같아

산에 가면
피어나는 꽃 한송이 보아도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 있는듯
선생부터 찾아와 물어보고

바다에 가면
색갈 고운 조갑지를 쥐고도
그 무슨 신비로움이 다 있는듯
달려와 안기며 물어보는
귀여운 조무래기들아

알려주면
그것밖에 모르건만
세상의 모든것을 다 아는듯
온통 웃음꽃이 피어나는
일학년생 너희들

너희들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르고
너희들 없이는 내 또한
살수 없을것만 같아
오늘도 섬으로 견학가는 즐거운 이 배길

방실방실 얼굴마다 웃음꽃 피어나고
명랑한 노래소리 배전에 넘치나니
우리 함께 견학가는 사람들
또 얼마나 흥겨운것이나

하지만
배움의 첫 자욱을 땀 꽃봉오리들
너희들을 배워주는 이 마음
가슴속 깊이 무거운 사명감이 되새겨져라

사랑을 부어 정성을 부어갈 때
산언덕에 애어린 나무도
그토록 휘여질줄 모르고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듯

해빛밝은 정결한 교실
키낮은 교단에서
조국의 미래 너희들에게
배움의 첫 자욱 떼여주나니

배우에 함께 오른
저 머리 희숙한 과학자
저 영웅의 드넓은 가슴에도
어린 시절 이름없는 선생이 떼여준
배움의 첫 자욱은 새겨져있으려니

너희들이 인생의 길 걷고 걸어
세상의 신비로움 다 알고
막장 한끝에서 혁신의 봉화 일으키며
머나먼 바다에 조타를 몰아갈 때
조국에 바쳐가는 위훈과 기적을 안고
너희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이
나에게 보내는 값높은 인사가 아니라

아, 세월의 갈피속에
내 발자욱은 묻히고
내 목소리는 멀어져
너희들의 기억속에 잊혀진다 해도

오늘의 이런 시절로
나의 한생은 이어지리
너희들 내짚는 배움의 첫 자욱을
영원한 생의 한길우에
값높은 진리를 새겨준 첫 자욱으로 떼여주며...

서두르는 봄날

오창수

랭상모판관리공 옥희는 모판들을 돌아보다가 활창대가 나빠서 비닐박막이 찢질 위험성이 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곧 비닐박막을 제끼고 활창대를 교체했다. 당장 자기의 값진 옷을 찢을 위험물이라고도 제거해버린듯한 기분으로 그는 웃음을 지었다.

별에 타서 감실감실한 그의 얼굴은 동그랗다. 진한 눈섭과 큰눈, 입과 턱 모든것이 동글동글한 감을 주어 귀엽성스러운 그가 저녁노을빛을 받으며 웃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잠시간이 생겨 휴게실에서 뜨개질을 하던 다른 중년관리공이 잠깐 일손을 멈추고 옥희를 보면서 자기의 기울어진 나이와 박색함에 대조되는 젊고 이쁜 관리공을 부러워했다. 파아란 벼모처럼 생신한 용모에 하얀 비닐박막처럼 모든것을 깨끗하고 맑게 생각하는 옥희가 아닌가! 밤에 랭기를 받을세라 모판마다 벼짚나래를 덮어주고는 갓난애기에게 실컷 젖을 먹여 요람에 잠재워놓은듯한 흐뭇한 마음으로 옥희는 집으로 갔다. 하얗게 관자놀iar리를 새로 두른 아늑한 집마당에서 나이 일흔이 가까운 시부모 박령감과 장씨가 나래를 엮고 새끼를 꼬는 일을 하고있었다. 옥희는 왜 아직 일손을 떼지 않는가고 부모들을 가볍게 나무랐다. 두 부모는 웃음으로 대꾸했다.

《일육십두 원, 이젠 그만하구려.》하고 장씨가 말을 건넸다.

열덜 눈길을 들어 마누라를 본 박령감은 푸르죽한 아래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자긴 ? ...》

옥희는 성화스럽게 재촉하여 두 부모들의 일손을 멈추게 하고는 무독하게 밀리운 나래를 말아서 광광 박아세워놓고 장씨의 치마자락에 묻은 검불도 털어주었다. 그러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손에는 가시가 들어있었다. 활창대를 다룰 때 찢린 가시였다.

가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가시가 든것은 오른손이여서 왼손으로 바늘을 놀리자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것이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씨가 옥희의 손을 붙잡고 멀리 혹은 가까이 들여다보며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 역시 가시를 뽑아내지 못했다. 이제 눈밝은 사람이 들어오면 봐달래자고 그는 말했다. 옥희의 남편 광우는 저녁 늦게야 들어왔다. 어쩌서 이렇게 늦는가고 장씨가 꾸중하자 광우는 《에-에 그놈의 돌맹이, 어찌나 많은지.》하고 거룩

진 체구에 어울리는 굵은 목소리를 내며 웃었다. 프락뜨르운전수인 그는 이즈음 농장의 막바지인 석골에 발판개를 위한 포전정리작업을 하느라고 바빴다. 일을 끝낼 시간이 되어 차를 세웠지만 여기저기 드러난 돌들이 눈에 걸렸었다. 기계를 대일것도 못되어 그것을 안아내고 든장질을 하느라고 그만 시간가는줄도 몰랐다고 그는 말했다.

《너희들이야 늘 그렇지 뭐.》

장씨는 꾸지람인지 칭찬인지 모를 소리를 했다.

《바쁜 절기니 너나없이 그렇지.》하고 박령감은 위엄있게 군기침을 했다.

광우는 곧 옥희의 손바닥에서 가시를 빼내고 이렇게 말했다.

《벌써 몇번째요. 무슨 손이 그렇소. 험한 일은 다 기계가 한다구 <부처님>같이 팔짱만 끼고있는 모양이지.》

옥희는 가쁜한 이를 하얗게 드러내며 웃었다. 그러나 장씨만은 웃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손바닥을 만져보며 허를 끝끝 찼다.

《아니 원, 돌을 다루면 장갑이나 좀 끼구 일할게지.》

모든 일을 성미처럼 큼직큼직하게 제끼는 광우는 잔일에 장갑을 끼는것이 거치장스러워 로동보호로 탄 장갑을 운전칸에 쌓아두고도 끼지 않았다.

《손목두 좀 놀리구 손바닥 단련두 해야지 퇴화됩니다. 일전에 어느 과학도서를 보았는데 손목놀리는 일이 뇌수의 활동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 아십니까. 이건 과학입니다.》하고 광우가 부모앞에서 그럴듯하게 둘러대는바람에 모두 크게 웃었다.

저녁식사후 광우는 곧 일어서서 나가고 (그는 이즈음 저녁마다 몇몇 농장원들에게 프락뜨르기술을 배워주고있었다.) 옥희는 부엌에서 설것이를 했다. 박령감은 노랑게 도금을 한 담배갑을 잘칼 열어 새하얀 가치담배 한대를 뽑아물고 하늘색 가스라이타로 스텝 불을 켜대고는 한모금 맛나게 들이켰다. 옆에 앉은 장씨가 그를 찬찬히 여겨보고있었다. 파르스름한 담배연기가 서리는가운데 박령감의 주름살 많은 얼굴에 웃음이 일었다.

《왜? 신식령감이 된게 우습소? 이 나세에 어울리지 않지만 아뭏든 좋군.》

박령감은 현대적인 소지품들, 멀리 있는 아들이 왔다가 한가지씩 놓고간 그 기물들에 대해서 말

했지만 실상은 끝끝하고 번듯한 자식들을 둔 자랑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장씨는 여전히 말없이 실오리처럼 술술 연기를 뿜아올리는 담배가치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얼굴을 돌리지 않고도 마누라의 눈길을 감추고있던 박령감은

《담뱃 뭘 그리 좋은 건 아니요. 보통이지.》하고 장씨의 눈앞에 내밀어보였다.

장씨는 그 담배가 아니라 박령감의 손을 붙잡아 어루만졌다.

《왜 이러우? 저기 치오. 간지럽소.》

박령감은 장씨의 손을 털어버렸다.

장씨는 얼마간 말이 없었다. 박령감이 담배를 몇모금 더 들이키고있을 때 그는 입을 열었다.

《세월은 빠르기두 하지… 생각나시우? 내가 숨든 병어리장갑을 하나 기워서 나무하러 가는 령감한테…》

박령감은 그저 듣기만하고 대꾸를 하지 않았다, 장씨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장갑이 열흘이 가두 스무날이 가두 처지지를 앓구 그대루 있었지요? 왜 그렇게 장갑이 해지지 않는가구 물으니 천이 질겨서 그렇다구 했지요?》

박령감은 마누라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누가 모를줄 알구요?》하고 장씨는 잔주름이 많은 볼을 실룩이며 웃었다.

《힘한 일을 할 땐 그걸 벗어서 피춤에 찌르곤 했지요?》

박령감은 외면하며 허허 웃었다.

《장갑이 처지지 않는 대신 령감손이 찢기고 터지는 것이…》 장씨는 이렇게 뇌이고 치마자락으로 눈굽을 찍어내며 갈린 소리로 떠들거렸다.

《그게… 그게 더 가슴아파… 하는 줄은 모르구…》

돌변한 분위기에 놀란 박령감은 어쩔 줄 몰라하며 몇마디 중얼거렸다.

《아니, 정말 질겼는데…》

《그만뉘요!》하고 장씨는 원망조로 내뱉고는 자기도 모르게 격했던 것을 사죄하듯 한껏 어성을 낮추어 말했다.

《그게 질길리가 있어요? 몇해째 입은 겹저고리안을 뜯어서 만든 건데.》

《그랬소?!》 박령감은 머리를 들었다. 《로친이… 그때… 제 입던 겹저고릴?…》

장씨는 돌연 얼굴을 들어 놀람에 찬 눈으로 박령감을 쳐다보았다.

《아니 그럼 령감은 그것두 몰랐구려?!》하고 장씨는 더 큰 설움에 복받치듯 고개를 돌리며 손바

닥으로 눈을 문질렀다. 그리고는 갈린 음성으로 떠들떠들 뇌였다. 《아무리 무심하구 무정하기로서니, 눈 뜨고 그걸 못보다니… 소대한추위에도 훌쩍삼 바람으로, 잠시두 집안에 들어설새없이 한지에서 돌아친걸…》

《그랬군! … 오늘 그 말이 났으니말이지 로친이 그랬다는걸 영영 모르고 말버렸군. 내 정말 무심했소! 무정했지!》

박령감은 고개를 숙이며 끄덕끄덕했다.

한동안 두사람은 말이 없었다.

멀리서 트락트르에 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것으로 하여 새로운 생각이 트고 용기가 솟는 듯 박령감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입을 열었다.

《그건 먼 옛날, 해방전에 우리가 지주집 머슴살이를 하며 고생하던 때 얘기구… 오늘이야 웃어야지.》 박령감은 이렇게 말하며 제먼저 허허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지주집 나무집에 놀리워 삐뚤삐뚤 겨우 발을 옮겨딘던 신세였지만 오늘 저 녀석은 육중한 기계에 올라타구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맘대루 고삐를 나구채는 무쇠말장수가 됐으니, 으흠… 로친두 그렇지, 로친은 눈보라가 흑흑 하는 소대한에도 얼음구멍에 나가서 새빨간 손을 호호 불며 지주집빨래를 하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굶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해야 했는데 오늘 며늘에는 어떻소. 분조농사재미, 농장포전일 재미에 시간가는줄 모르구, 농장살림 집세간살이 좋기만해서 웃음 또한 그칠줄 모르구…》

박령감은 마누라를 보았다. 그가 바라는대로 장씨는 좀처럼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고있었다.

《어째 그러오?》 박령감은 정색하며 물었다.

《쯔쯔… 노염두 크다. 내 미처 로친 성의를 몰랐댔소. 그랬기로서니 뭘 그다지나…》

《아니요…》

《아 글썸 잘못됐소.》

《아니라니까요.》하고 장씨는 짜증을 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땐 그랬는데…》 이렇게 입을 연 장씨는 부엌새문쪽에 눈길을 돌렸다. 부엌에서는 한참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물소리, 그릇소리가 났다. 박령감과 장씨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이윽고 설것이를 마친 옥희는 집을 나섰다. 그는 이즈음 농장에서 준비하는 예술공연의 중창연습에 참가하고있었다. 그가 대문밖에 나섰을 때 장씨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제 사람 귀한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그러우?》 박령감은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아 알지 앓구. 그 애두 시부모들앞이라 체

면을 지키구 내색을 하지 않아 그렇지 제 남편 필
줄을 왜 모르겠소. 그보다두 난 광우녀석이 …》

《하긴 다 같구 같아.》 장씨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곧 가로흔들었다. 《사넌 사내구, 색시아
그래두 좀… 제 남편 손이 그 모양인데, 지금 실이
없나 천이 없나…》

《장갑은 기계화작업반에서두 내주지 않소?》

《그래두 달라요 달라, 제 사람이 떠주는건 다르
다니까요.》

《허허.》

《그러나저러나 따뜻한 말 한마디들 왜 못하겠
수.》

《로친 오늘 왜 이러오? 이제껏 그런 소리 없다
가…》

《글쎄 참, 나두 모르겠수다. 그 가시 파내는 일
루 해서 갑자기…》

《아-아, 너무 신경을 쓴다!》 박령감은 엄하게
일렀다. 《그 애만 글타구 굶으면 못써! 제 자식이
나 남의 자식이나 다 좋게 봐야지.》

그후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할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깊어서였다. 그들은 우연히 나온 장
갑에 대한 이야기, 그로부터 이어지고 뻗어나가는
가지가지 생활토막들을 회상했다.

그들의 젊어서의 사랑, 그것은 모진 천대와 고
역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애처로와하고 조심해주고
아껴주는 것이었다.

《오늘 지주집나무를 한짐밖에 못해주었소.》 하
면 이렇게 대꾸했다. 《잘했어요. 빈지계를 지고 다
닐 기운조차 없으신데.》

《나두 오늘 지주집 밭길을 밤나무 옷밭 한뼘기
밖에 못매주었어요.》 하면 이렇게 나무람을 썼다.

《아니 그걸 다?! 그걸 기력이 있소?!》

해나는 날이 드물고 비바람 스산하여 빛도 향기
도 제대로 나지는 않으나 꽃은 역시 꽃이어서 그
아름다움을 다는 잃지 않은것처럼, 고되고 쓰라린
생활에 짓눌려 활짝 피어나지는 못한것이지만 젊은
시절의 그 사랑은 더없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이었
으며 그래서 오늘까지도 즐겁게 회상하는 것이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참 지금 애들은 내외간에 정
이 뜨지, 뜨구말구….》

장씨는 혼자소리로 뇌었다.

박령감은 그에 동감하지 않았다.

《뭘 그랬겠소.》

《아-니요. 가만 보구려. 말하는거랑, 뭘 도와주
는거랑…》

《실없는 소리!》

기술전습과 씨름연습을 마친 광우와 옥희는 아
이들처럼 떠들며 집에 들어왔다. 그들은 부모들앞
이라 잠간 정숙했다가 옷방에 올라가 다시 이야기에
활기를 폈다. 광우도 옥희에게 오늘은 벼모가 얼
마나 자랐는가고 물었다.

《요만큼, 한 5 미리 될가?...》

《고만큼? 오래두 크다-뭘하나, 관리공들은?》

《전들 어찌겠어요. 잡아뽑을가요?》

두사람은 유쾌하게 웃었다.

《증관하게 앉아 해바라기만 하지 말구 바지런히
물두 주구 환기두 하구 그래야 돼!》

광우는 남편다운 교양조의 말을 하고나서 오늘
자기는 천오백평의 땅을 정리하여 번번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자랑삼아 말했다. 그러자 옥희는 웃음이
담긴 눈으로 남편을 흘끗 치며보았다.

《또 큰소리예요. 당신이 결의한대로 씨뿌리기전
에 발판개를 끝내자면 뻗뻗해요. 그런줄 아세요.》

이때 장씨는 박령감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런다니까요. <수고했수다>, <힘들겠수다>,
<쉬엄쉬엄 하시우>, 아 서투르투 이러진 못해두,
쯔쯔…》

《이상하구만.》

《그러기말이지요.》

《로친이 이상하단말이요. 그 애들이 뭐이 어드
래서? 얼마나 좋소!》

《좋아요?!》

오손도손한 맛이 없이 까다롭게 절고들며 캐곤
하는것이 기본이 되어 남들기에는 사이가 나쁜것처
럼 느껴지는 젊은 부부의 말씨름은 끝이 없을것 같
더니 옥희가 늙그릇들을 좀 닦아야겠다고 부엌으로
나감으로써 끝이 났다.

광우는 탁상등만 켜고 오래도록 책을 보았다.
나중에는 졸았다. 피곤하겠는데 어서 자라고 장씨
가 일렀으나 그는 한동안 더 앉아있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인차 잠들었다. 잠결에 이불깃을 제
껴 어깨가 드러났다.

부엌에서 그릇들을 닦고 부시고 또 무슨 일을
그치지 않던 옥희는 늦게야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남편이 자는 모습을 보고 방긋 웃음을 짓더니 이불
깃을 여며주고 뺨뺨해진 배개도 바로잡아주었다.
그리고는 옷장의 빼람을 꺼내보기도 하고 바느질그
릇을 뒤지기도 하면서 오래도록 자리에 누울 생각
을 안했다.

장씨는 그에게 어서 자라고 이르고 미닫이새문
을 닫았다. 언제나 부모들이 잠자리에 들기전에는
절대로 자리에 눕지 않는 머느리라는것을 잘 아는
장씨는 박령감에게 서둘러대며 곧 아래방불을 끄도
록 했다. 이때 그는 박령감의 어깨를 건드리며 조용
히 말했다.

《아니, 저 애가…》

장씨가 가리키는 옷방새문에는 옥희의 옆모습
그림자가 그대로 비쳐졌는데 그것은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었다.

《흠, 애두…》

장씨는 피씩 웃었다.

《괜히 장갑얘기를 해가지구…》

박령감은 조용히 마누라를 나무랐다.

박령감도 장씨도 여느때없이 졸음이 오지 않아 오래도록 눈을 뜬채 오늘하루 일이며 먼먼 지난날들이며 두루 생각을 더듬으며 누워있었지만 끝내 옷방불이 꺼지는것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버렸다.

새벽이 오자 언제나처럼 옥희는 부엌에, 광우는 마당에 나갔다.

장씨는 깨나자마자 머느리가 장갑을 얼마나 떼는지 궁금해서 옷방에 올라갔다. 그는 《애개개, 이제야 요걸?!》하고 혀를 찼다. 장갑은 이제 겨우 손가락너비만큼 시작하다말았던것이다.

《조-화다. 늦도록 앉아 요걸 떼단말인고? …》

《그만뒤!》

박령감은 낮은 소리로 머느리를 나무라는지 로친을 기갈하는지 알수 없는 지청구를 했다.

장씨는 책상우를 훑어보다가 입을 크게 벌렸다.

《아니 원, 이게 책이나 목침이나… 장갑은 안뜨구 밤새껏 글자속만 뚫수다레. 비둘기맘은 콩밭에 가있다구 애들은 그저…》

《아무렴! 그게 글타구야 못하지.》

박령감은 여러가지 책과 잡지, 학습장들이 놓여있는 책상우를 넘겨다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아침밥상에 마주앉았을 때 옥희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했다.

《요새 어때요, 힘들지요?》

《힘이야 무슨…》

《그래요? …》

《왜?》

《아니요. 그저…》

옥희는 눈길을 내리웠다. 무슨 할 말이 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식사가 끝난 다음에야 말했다.

《지금 달라붙은 포전정리를 최대한 빨리 해서 언제까지면 발판개를 다할수 있을까요?》

《씨뿌리기전으로 돼. 걱정 말라구, 믿으라는 데.》

《그런게 아니라… 난 좀더 빨리 됐으면 해서요.》

《더 빨리?!》

모두 옥희를 보았다.

옥희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망설이다가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말하기를 올해에 벼모가 많이 남을것이라고 했다. 지난해들에는 매번 벼모가 모자라서 올해에는 아예 넉넉히 타산해서 모판을 잡았는데 한알도 허실없이 싹틔우고 자래웠으며 며칠동안 주체농법강습 받은것이며 기타 현대농업과 학기술서적과 잡지들도 들여다보았는데 현재의 모를 그대로 충실하게 자래워낼 자신이 있고 그러면

벼모는 포전에 내고도 퍼그나 남는다는것이였다. 옥희는 이런 말을 해도 나무랍게 생각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내듯 광우를 빠끔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난 당신이 지금의 일을 빨리 끝내구 저쪽 등너머켠에두 어떻게 해볼수 없겠는지 해서… 지대가 지내 낮아서 밭으로는 쓸모가 없는데 차라리 거기를 잘 정리해서 논으로 만들면 좋을것 같아요. 본조장, 작업반장한테두 말해봤는데 로력때문에 자신없어하더군요. 기계화에서 좀 내밀어주면…》

광우는 참 거기가 문제라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아-그런데… 조련치 않아. 현재 붙은 공사를 씨뿌리기전에 한다는것두…》

광우는 뒤덜미를 문질렀다.

《내밀어봐라.》 박령감이 입을 열었다.

《일이란 맘먹기탓이지. 전쟁때두 그래 복구건설때두 그래. 그저 결심을 단단히 하구 내미니까 됐거든.》

박령감은 지나온 나날에 공지를 가지듯 호기있게 웃으며 마누라를 보았다. 장씨 역시 흐뭇한 기분으로 웃음을 지었다.

《그러긴 그랬다. 그러나 뭐 그뎐 그때구… 너 그 입술이 다 부르렀구나! 달는마에 채찍질이라구, 게서 더야 어떻게? …》

《달는마에 채찍질이라는건 잘하는 일을 더 잘되여나가도록 부추긴다는 뜻인데 얼마나 좋소!

지금 80년대속도창조로, 서해갑문건설식으로 내밀자는게 아니요. 한번 내밀어봐라. 입술은 부르렀다가두 딱지가 앉아 떨어지구 그런게지. 어-험.》

《해보지요.》

광우는 공손히 대답했다.

《해보는게 아니라 꼭 해내야지! 수령님께서와 당에서 농사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시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박령감은 정색해서 말했다. 광우는 그저 듣기만 했다. 얼마간 모두 말이 없었다.

한참후에 광우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해보겠어요. 아, 하겠어요!》

헛나간 말을 고치는것이 우스워서인지 아들의 결심이 대견해서인지 박령감이 웃고 장씨와 옥희그리고 광우까지 웃었다.

《에-지금두 몹시 힘겨운데…》하고 옥희는 장씨를 보며 미안한 웃음을 지었다.

《일없어!》하고 광우가 대꾸했다.

《좋아! 그건 나한테 말기구 자기는 벼모나 허
실없이 줄대같이 키우라구. 그럴려면 밤낮 모판에
나가 살다싶이 해야 돼!》

광우는 다짐을 받듯 말끝소리를 울리며 옥희를
쳐다보았다. 그러기 바쁘게 옥희는 몸을 꺾듯이 했
다.

《예!》

옥희는 크나큰 기대가 실현되어 홀가분해진 기
분으로 그릇들을 챙겨가지고 냉큼 일어섰다.

광우는 안해와의 약속을 리행하는 길에 서둘러
나서듯 상을 물리기 바쁘게 문밖에 나섰다.

장씨는 아무리 바쁘기로써니 밥먹고 담배 한대
태울새없이 나가느냐고 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전
에 박령감은 장씨를 밀치고 문을 열며 내 엇그제
나가보니 정리가 다 났다는 말이 아직 우물구멍한
데가 많더라고 손세를 써가며 말하고 일이 바쁘다
고 무슨 일이든 건성건성 해서는 못쓴다고 자못 엄
하게 일렀다.

장씨는 부엌으로 나가며 허를 끝끝 찼다.

《령감두, 애들 키울 때 슬슬 어루만져서는 안된
다구 그렇게 닦아세우더니… 오늘까지 뭘 그다지나
숨가쁘게 떠밀쳐대면서… 범두 제 새끼는 살랑살랑
물어 옮겨놓는다는데…》

장씨의 기분을 알아챈 옥희는 무어라 말했으면
좋을지 몰라했다. 설겜이는 자기가 하는데 어째서
나오는가고, 어서 들어가라고 옥희는 장씨를 떠밀
었다.

장씨는 대꾸없이 이것저것 부엌일에 손을 댔다.

《어머니》하고 옥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어제 그전때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걸 생각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를 고치자구 했는데 오
늘 또… 에 -》

옥희는 한숨을 지었다.

《난 왜 그럴가요? 정말 못돼먹었지요?》

《뭘… 일없어 -》

장씨는 불시에 기분이 달라져 정차게 말하며 웃
음을 띠었다.

이때 방안에서 채 닫기지 않은 새문을 통하여
부엌말을 듣고있던 박령감이 《괜한 소리!》하고
말참견을 했다. 너인들끼리의 다사한 말에 위낙 참
네를 하지 않는 그였지만 자기도 모르게 말을 가로
채어 두 너인이 머리를 쳐들고 방안을 들여다보게
했다. 박령감은 몇번 군기침을 갖고 더 말하지 않았
다.

토방마루에 앉아 로동화끈을 줄라매고 하루의
긴장된 로력전투에 출동하기에 앞서 심신을 가다듬
듯 말없이 담배를 몇모금 빨던 광우는 절반이나 남은
담배를 발로 문지르고 움쭉 일어섰다.

그가 마당을 나서려 하자 부엌에서 옥희가 따라
나서며 말했다.

《이걸 끼지 않겠어요? 제가 몇번 끼던건데…》

《뭘데? 장갑? 그걸 뭘… 내 손은 그런거 필요없
다는데두.》

광우는 손을 흔들고 그냥 나가려 했다.

옥희는 몇걸음 따라나서며 입을 열었다.

《저-》

광우는 대문고리를 잡고 돌아보았다.

《뭘 그러오? 우물쭈물… 에참 답답두 하다.》

광우는 이마를 찡겼다. 약간 쪼프리고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정다왔다.

옥희는 고개를 돌려 부엌문쪽을 훑쳐보고는 조
용히 말했다.

《내 미쳐 생각을 못했어요. 당신 손에…》

광우는 자기 손등과 손바닥을 이리저리 뒤채보
면서 물었다.

《내 손이 뭐 어째서?…》

광우의 목소리는 컸다. 그래서 옥희는 다시금
방문쪽을 훑쳐보았다.

《어제밤 장갑을 뜯가하다가 책에 정신이 팔리기
시작해서… 오늘 저녁엔 뜨겠어요.》

《아니 뭐 장갑이 없어서? 로봇물자로 탄것 차에
두 있는데 뭘, 이 바쁜 때 그런 놀음 판두.》

《제가 이제껏 말 한마디 따듯이 할줄 모르구, 아
껴드릴줄도 모르구…》

《하, 이거 오늘…》

광우는 잡았던 대문고리를 놓았다. 천만뜻밖에
변한 사람을 보듯 그는 물끄러미 옥희를 바라보았
다.

《일을 좀 제발…》하고 옥희는 속이 상한듯 얼
굴을 흐리며 말했다. 《자기 몸을 돌보면서… 해요.
네? 장갑두 끼지 않은 손으로 뭘 그런 짓도 돌추
기까지 하면서 자기 몸을 좀 아낄줄 아세요. 네?》

옥희는 몸을 약간 흔들면서 말했다. 그 몸짓과
표정, 말투는 본인으로서도 어색했다. 몸에 배이지
않은것이어서 그럴수밖에 없었다.

《뭘요.? 당신 오늘 왜 이러오? 별스럽게스리…
언제… 그렇게… 뻘소?!》

광우는 낮은 소리로 마디마디 끊어서 말했다.
그것은 높은 소리로 성급히 뻘쳐댄것 못지 않은 불
만의 뜻을 전달했다. 옥희는 얼른 머리를 들어 남편
을 보았다. 말과 일치하게 몹시 기분이 상한 그의
얼굴을 보고 옥희는 순간 흠칠 놀라기까지 했다.

광우는 옥희의 눈길을 피하여 외면하며 주머니
에서 담배를 꺼내물고 불을 붙이더니 한모금 깊이
들이키고 길게 내뿜었다. 두마리의 나비가 숲박꼭
질을 하듯 두사람의 주위를 이리저리 재미나게 돌

아치다가 심상치 않은 기분을 감촉한듯 판자울타리 너머 황황히 날아갔다. 그 곤충들의 지장을 받았던 것이 그것들이 없어지자 광우는 곧 입을 열었다.

《자긴 그래 내가 굶은일을 될수록 피해서 손바닥이 보들보들하구 옥신을 극력 적게 눌러서 비등 비등 몸이나 나구 그러길 바라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아꼈라오?》

《아니, 난 사실...》

옥희는 갑자기 변명의 말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머리를 숙였다. 본의아닌 지나친 넘려와 천박한 사랑으로 공교롭게 남편의 불만을 사게 된 옥희는 가슴이 천만근으로 무거워졌다.

광우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알아. 자긴 원래 그렇지 않지. 실없는 생각 말구 어서 모판에 나가보우.》

옥희는 머리를 들어 남편을 미더운 눈길로 보았다. 광우는 더 무슨 말을 할것 같고 또 그러기를 바랐지만 곧 대문밖을 나섰다. 몇발자국 걸어다가 돌아보고는 아직도 그냥 서있는 옥희를 나무랐다.

《왜 아직도 그러고있나.》

《알겠어요.》

옥희의 목소리는 씻은듯이 맑았다. 그는 잠시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좀더 마력을 내야 해요-》

노래하듯 길게 뿜는 옥희의 말, 그 청정한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 이상으로 정겹게 울렸다.

광우는 대답대신 빙긋 웃었으며 지나치다고 느껴질 정도로 오래 마주보았다.

《어서 나가요.》

옥희는 손세를 쓰며 이렇게 말하고 제 먼저 눈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장씨는 머느리 보기가 먼구스려운듯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 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하고 박령감은 누구에게라 없이 말했다.

《장갑이나 매달 새하얗게 떠받치구, 몸을 돌보며 쉬엄쉬엄 일하라고 따뜻한 입김을 불어대는, 그런데서 정을 아는 사람 아니야. 내 그런 사람을 자식으로 두지 않았느니, 어흠!》

장씨도 옥희도 그냥 듣기만 했다.

《내외간 서로 사랑한다는게 뭐고? 몸이나 고이 아껴주구 위해주는거겠나? 제 사람을 아낀다는게 뭐겠나? 일에서나 사업에서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

도록, 남보다 앞서나가도록 늘 떠밀어주구 이끌어주는게 아니겠나!》

박령감은 말을 끊고 담배를 몇모금 들이켰다. 옥희와 장씨는 그의 타이름을 침묵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박령감은 기분을 달리하여 창문을 열며 오늘 날씨가 참 좋다는 말을 했다. 옥희는 곧 여느때 처럼 일어나간다고 이르고 집을 나섰다.

《애들두...》

장씨는 혼자소리를 했다. 그것이 타내는 소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박령감은 《그 애들이 뭐 어쨌다구?》하고 거칠게 통을 주며 토방마루에 나섰다. 그는 저만치 걸어나가는 옥희와 그를 반기며 한데 어우러져 걷는 남녀분조원들을 이윽히 바라보며 섰다가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지금 저 애들은 달라. 안그래? 로친은 리해를 못해.》

박령감은 뒤에서 대구가 있기를 기다리다가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문이 닫혀있었으며 장씨는 옷방에 올라가있었다.

박령감은 크게 말했다.

《내 분조에 좀 나가보겠소. 분조에 무슨 더 바쁜 일이 있겠지. 그까짓 나래엮는건 달빛에두 되느니.》

박령감은 마당에 내려서서 몇발자국 걸어다가 실쭙 웃고나서 몸을 돌려 말했다.

《로친은 집에서 슬금슬금 새끼나 꼬라구. 저기 양지쪽에 앉아서... 듣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씨가 문밖에 한발을 내밀고 굳어졌다. 그는 채머리를 떨었다. 속이 몹시 언짢을 때 그랬다.

《그런 법이 어디 있소?》 장씨는 이상하게 떨리는 어조로 말했다. 《이젠 다 그렇게 됐수다레, 자기만 자기라구...》

《하 이것봐라, 날씨가 산산해서 로친은 집에 있으라는데 뭐이 어드래서 노염을 쓰는고? 생각을 안해줘서 싫다, 생각을 해줘두 눈물... 찌찌.》

《뭐라구요? 생각을 해줘요?》

장씨는 토방에 나서며 치마폭을 가튼히 올려붙였다. 박령감은 웃음을 감추려고 인차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그것을 알아챈 장씨는 피씩 웃고나서 짜증을 냈다.

《령감, 날 놀려주느라 그러지요?》

박령감은 왈각 웃음을 터치면서 마당을 나섰다. 장씨도 따라나섰다.

자연을 길들이는 사람들

최성진

대동강쪽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눈은 말짱 날려가고 꺼묵한 땅거죽이 드러났다. 우묵진곳에 조금씩 남아있는 보드라운 잔설이 해빛에 반짝이는데 그것조차 싸늘한 기운을 자아냈다. 대지는 추위에 웅송그린듯하다. 동결도가 이고장치고도 제일 깊다는 등판이다. 하지만 보기에도 기름이 흐르는 듯 거무칙칙하다. 이러한 대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대동강 기슭에서부터 시작되어 완만한 경사를 이룬 골안과 규모있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마을은 등글등글한 구름으로 둘러싸여있었다. 이 골안과 등성이땅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지지도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땅인 사동구역 리현협동농장의 8 작업반 강냉이밭이다. 6 작업반 포전까지 합하면 100 정보에 가까운 드넓은 땅이다. 고장의 이름은 풍년골이다. 그런데 작업반의 포전을 구획지어놓은 등성이와 아래의 골안은 옛날에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이름을 가지고있었다. 옛날에 이곳을 《망작골》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망작골-흉작이 들어 농사도 사람도 망했다는 소리이다.)

우리는 그 말을 최정옥이라는 열아홉살의 어린 농장원처녀한테서 들었다. 그래서인지 《망작골》이란 이름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알찌근하게 했다.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하늘 탓에 농사를 망치고 이 고장을 떠나갔으랴. 서러운 눈물로 이 땅을 적시며 숨진 이들은 또 얼마이랴. 그런데 랑불이 파리빛으로 익은 이 오동통하고 명랑한 처녀는 엄청난 불행의 대명사를 범상한 옛말처럼 외우고있지 않는가. 아마도 처녀의 선조들중 누군가도 그렇게 이 땅에 뼈를 묻었으리라.

《하지만 척박하던 이 땅도 옥토로 변했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 온 해빛아래 지난날의 망작골이 해마다 풍년드는 풍년골로 되었던말이지요워.》 처녀의 말이다. 작년에만 도 농장직으로 최고수자에 달하는 강냉이수확을 냈다고 했다. 망작골이라는 눈물겨운 《시대어》를 빚어냈던 이 땅에 전변이 일어난것이다.

《훌륭하구만! 훌륭해...!》

우리는 처녀의 말에 감탄했다. 했더니 처녀는 우리를 돌아보며 발쑈 웃었다.

《금년엔 수확고가 허양 더 높아질거예요!》 하고 처녀는 말했다.

《허양 더? 어떻게 벌써 단언하냐?》

《저 발관개전투장을 보시라요. 금년겨울안으로 발관개 2단계 공사가 끝나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

면 저 등성이의 비탈밭들도 영원히 가물피해를 모르게 된답니다.》

작업반 선전실에서 만나 우연히 우리의 친절한 안내자가 된 처녀는 령리했다. 어느새 우리의 취재 용무에 맞게 화제의 방향을 유인한셈이었다. 사실 우리는 발관개공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여기 풍년골을 찾아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트랙토르, 자동차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현대적 농기계를과 여러가지 화학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며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기 위한 50 만 정보의 분수식 발관개건설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뜨거운 마음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처음 들린곳은 발관개용 콘크리트관 하차장이었다. 트랙토르 한대가 하얀 연기덩어리들을 날리며 통탕거리고있는데 청장년들이 련결차에서 콘크리트관을 부리우고 있었다. 발동소리, 영차소리... 로동의 번잡한 소음속에 류달리 청높은 목소리가 찌렁 울리였다.

《살랑살랑 다루지 못하겠어! 콘크리트물건이라고 광광 들었다놓치 말라구!》

년장자임에 틀림없는 오십줄의 사나이가 련결차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콘크리트관을 날라가는 청년들에게 소리치는것이였다. 식구 많은 집안의 어른처럼 코코에 다심한 소리!

《한개라도 깨여지면 네너석들의 허리를 분질러 놓으란? 이게 어떻게 생겨난거라구.》 하고 그가 또 말한다.

《하나들- 영차!》

《걱정 마시라요. 아바이, 안꺼져요.》

콘크리트관을 메여올리던 청년들속에서 스키모자를 쓴 감스런 얼굴 하나가 《아바이》를 향하여 히죽 웃어보인다.

련결차에 듬뿍 실려온 콘크리트관! 로동계급의 뜨거운 성의가 어려있는 그것들을 보느라니 우리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왔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빛나게 실현되여가는 협동의 전야마다에 콘크리트관에 의한 우리 식의 새로운 발관개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사이에 《스키모자》네들은 콘크리트관을 둘러메고 발가운데를 향해 내

달려갔다. 부러와들사이 없이 아예 날라다 조립하자는 심산들이었다.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농촌토색이 짙은 투박한 말투로 욕설같은 혼시를 하던 《아바이》-작업반장 김영태는 어이없어 껄껄 웃었다.

《허리 상하지 않게스리 주의하라구! 몸들을 아낄 줄 모른다니까.》

그 말속에 아끼고 싶어하는 사랑이 깃들어있다. 그렇다. 보배란 더 아끼게 되는 법이다!

우리는 작업반장 김영태를 만났다.

《오늘중으로 콩크리트관이 모두 들어오게 되우다.》

그는 숨복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 한대 붙여 물고는 성냥가치를 켜 투박한 손으로 사방을 휘둘러 원을 그리었다. 상상속의 선으로 작업반포전을 구획짓는 것이었다.

《이게 우리 8 작업반 강냉이포전인데 수신통보우다. 지금 하고있는 10 여정보의 관수체계만 끝내면 작업반 밭의 100%가 분수식 관수망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방불하게 원을 그리는 그의 손세안에 등판의 강냉이포전들이 집약되는 듯했다. 그런데 그 수신통보의 땅이란 광포한 자연이 군림하고있는 등판의 대지가 아닌가! 이 드넓은 땅에 100% 분수식 관수라! 이상적이다. 누구든지 흥분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얼어붙은 등판을 깨질려간 콩크리트관로를 백병전을 앞둔 전호마냥 바라보며 또 생각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농촌수리화 완성의 시대가 오고있다. 당이 한번 호소하면 그것을 성스러운 전투명령으로 받아안고 그 관철에 떨쳐나서는 여기 풍년골 사람들! 장한 모습들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김영태반장과 함께 아득히 뻗어간 관로를 따라 걸었다. 아직 묻지 않은 구멍이안에는 포신같이 미끈한 콩크리트관들이 일매지게 조립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구멍이옆에는 그들이 일하던 흔적인 모닥불자리들만 있었다. 모닥불자리는 구멍이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있었는데 우리의 눈짐작에는 그 간격이 앞으로 나가면서 넓어진 것으로 보이었다. 이것이 앞으로 쓰게 될 굴의 좋은 세부가 되지 않을까 하여 김영태반장에게 물었더니 그는 느슨히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분수식 발판개공사! 이것은 언땅을 파제끼고 콩크리트관을 묻고 양수기를 놓고 분수망을 늘여야 하는 전투이다. 이것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간의 요구대로 길들이기 위한 창조적인 투쟁, 자연과의 투쟁이다.

처음에 그들은 강바람이 몰아오는 혹한을 이겨내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가며 땅을 파제켰다.

모닥불은 그들이 전진하는데 따라 이동했다. 처음 이틀동안은 열두메터구간을, 다음날엔 열다섯메터를, 그다음엔 스물한메터를 전진했다. 기적은

런일 창조되었다. 차츰 모닥불가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정말 앞으로 더 나가니 모닥불자리는 없어졌다. 규모있게 파제긴 관로, 방금 날라다 조립해놓은 콩크리트관들... 그끝에서 사람들이 일하고있었다. 콩크리트관을 날라오는 청년들, 혼합물을 섞겨주는 처녀들... 건장한 체격의 사나이가 조립전투를 지휘하고있었다. 흙가루들이 달라붙은 방한모자의 토끼털에는 성애가 하얗게 불리었다.

김영태반장은 그를 리당비서라고 우리에게 소개했다.

리당비서 리태천은 마흔고개가 훨씬 지난 사람 좋은 일꾼이었다. 우리는 그에게서 이곳 농장의 발판개전망과 전반적인 공사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들었다. 1 단계공사는 이미 끝나고 지금은 2 단계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고 한다. 농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까지 농장적으로 수신통보의 밭에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할것을 계획하였다. 현재는 공사에정보다 스무날을 앞서나가고있다.

《4 월달에 나가서 총 시운전을 하게 되지요.》
당비서의 말이다.

영광의 4 월! 그날이 오면 이 땅을 적실 풍년분수비가 온 등판이 황홀토록 칠색찬연한 무지개를 피울것이다. 4 월의 태양아래 내리는 그날의 분수비가 우리 가슴을 적셔주는 듯했다.

《대단하군요! 계획만 봐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흥분되어 진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리당비서는 걱정을 했다.

《계획만 세워놓고 만세만 부를수는 없지요. 실천이 따라서지 않으면 <닭알장사>신세를 면치 못하지요. 닭알을 팔아서 부자가 될 꿈을 꾸고있는 사 이에 그것이 몽땅 깨어져 공상이 되고말았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일이란 시기를 놓치면 안되지요. 봄에 씨를 뿌리자면 그전에 관로를 다 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풍년골에만도 여섯개의 발판수용 양수장을 새로 건설해야지 물길도 째야지... 우리 일꾼들이 통이 크게 작전하고 일을 짜고들어 한모씩 때려먹지 않으면 안되지요.》

그는 《닭알장사》가 아니었다. 실천가였다. 그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대중을 이끌어어나가지 않는가! 돌과 구를 열어나가는 이러한 지휘성원들과 전투원대중이 있어 50 만정보의 조국의 전야를 적시며 분수비가 내릴 그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의 눈앞에는 벌써부터 풍요한 가을이 보이는데.

당의 뜻을 받들고 자연을 길들여가는 풍년골 사람들! 전야의 주인들이 일하는 이 땅에 풍요한 계절은 벌써부터 오고있다.

순천이여

변흥영

내 수도의 거리를 거닐면서도
너의 숨결소리를 들었다
또다시 어버이수령님 불러주신
너의 설레이는 하늘밑으로
뜨거운 내 마음은 달렸다

하여 내 오늘 달아오른 가슴에
터치고픈 노래를 안고
순천이여, 너에게로 왔노니
저 솟구쳐오르는 철의 숲우에
새 기적을 안고 펴터치는 기발로
돌격을 웨치며 나붙는 속보로
너는 나를 맞아주는구나

나를 맞아주는구나
눈길이 모자라도록
대화학공업기지를 펼치며
열기를 내뿜는 건설의 불바람으로
내 가슴속 피를 끓이는 위훈의 노래로

아, 이 시각에도
인민들에게 차려질 행복의 몫을 그려보시며
여기 건설자들을 생각하실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맹세의 불을 안고 일떠선 순천

그 얼마나 벅찬 순간이
지금 이 순천땅에 흐르고있는가
땅을 차고 솟구쳐오르는 저 창조물들에
자기 한생의 보람을 새겨가는 공훈 많은 연공도

여기서 병사시절을 시작한 애어린 전사도
수령님의 전사된 사명에 가슴들을 불태우나니

오, 노래하노라
어버이수령님 기다리고계시는
비날론 꽃송이 쏟아질 그날을 앞당겨
깊은 한밤에도 날샬녘에도
아슬한 트라스를 내릴줄 모르는
저 용접공의 불꽃처럼 타는 그 진정을

노래하노라
조업의 테프를 끊어주실
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을 그리며
그 어느 보이지 않는 구석진곳에서도
정성스레 철근을 엮고있는
치너돌격대원의 그 마음을

오로지 수령님 짊어주신 완공의 그날에로
끓으며 솟구치며 내달리는
이 하나의 숨결
이 거창한 호흡속에
내 위대한 조선의 힘을 보나니

오, 순천이여
수령님 밝혀주신 래일의 한복판에
대화학공업기지의 은빛추너를 높이 엮고
네가 터칠 새 탄생의 동음소리
울려가리라
수령님 우러러 드리는 인민의 감사의 노래로-
온 나라 집집마다 피어나는 행복의 웃음으로-

가사

미래를 키워가는 마음

리종률

희망찬 배움의 요람을 지켜
우리는 교단에 뿌리내렸네
해빛만 따르는 해바라기로
혁명의 새세대 키워나가네

지혜론 눈빛과 속삭여가며
탐구의 푸른 꿈 펼쳐가네

비 오나 눈 오나 한뜨락에서
조국의 미래 위해 밀거름되네

은혜론 태양아래 우리 가꾼 꽃
래일은 풍만한 씨앗 남기리
당의 뜻 빛내는 오직 한길에
혁명의 붉은 꽃 만발하리라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와 우리 문학

오승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주제가 우리 작가들의 창조적 의욕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민족적자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까.》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는 민족의 녀으로 숨쉬고 혁명과 운명을 같이하는 문학의 항구적인 주제이다.

문학이 만약 진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문학, 참으로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문학으로 되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만약 문학이 진실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옹호하고 긍정하는 심오한 인간학으로 되기를 지향한다면 이 문학은 마땅히 민족에 대한 존엄의식과 긍지감으로 세차게 맥박치지 않으면 안된다.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 대한 자량과 긍지가 없이는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할수 없으며 민족적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심장을 불태우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나갈수 없다.

참다운 혁명가는 진정한 애국자였으며 혁명적인 문학은 언제나 애국, 애족의 문학,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고동치는 문학이었다.

민족적 자존심을 노래하는 문학은 희망과 신심으로 약동하는 문학, 승리와 영광의 문학이다. 그것은 이 문학이 진정한 조국, 위대한 수령을 모신 가장 긍지높은 민족의 문학이기때문이다.

나라잃은 인민이 부른 노래, 참다운 수령을 모시지 못한 민족이 부른 노래는 많은 경우 민족적 자존심이라기보다 민족적 굴욕감에 젖어있었으며 투지와 신념의 노래라기보다 고통과 슬픔의 노래였다. 《빼앗긴 들》에 온 봄, 조국의 봄을 노래하였으나 그 노래가락은 어쩔지 구슬피 울리었으며 그 리듬에 사무쳐 조국을 불렀으나 그 부르짖음이 허공에 메아리칠뿐 조국은 대답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한 인민의 문학은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노래하려 했으나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였다.

우리 인민의 이 피눈물의 역사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인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와 《혈분만국회》에서 가장 빛나고 심오하게 일반화되였다.

이 두 명작의 주인공들인 안중근과 리준의 비극, 그것은 참다운 조국을 가지지 못하고 위대한 수령

을 모시지 못한 인간의 비극,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 했으나 그 실제적 가능성을 찾지 못한 인간이 겪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이었다.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는 오늘 우리 문학에서 불려도 불려도 대답이 없는 조국을 불안고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의 력사가 끝난 새로운 환경에서 발전 풍부화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참다운 조국의 품, 수령의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을 중심에 내세우게 되였으며 진정한 조국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그들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지난 어떤 력사적 시기에도 오늘날 같은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조선민족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량으로 가슴 부풀지 못하였다.

우리 인민이 지닌 이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는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자부심이며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끝없는 자량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가장 주도적인 자리의 하나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이며 자부심이다.

우리 인민은 이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이 가리키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고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다.

주체조국의 이 영예와 자량을 안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없으며 이 길에는 언제나 찬란한 미래가 비끼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치는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는 또한 영광스러운 당의 품에 안긴 끝없는 긍지이고 자량이며 당의 손길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한몸바쳐나선 혁명적 자부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이 땅위에 민족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게시며 주체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끊임없이 빛내여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모든 행복과 영예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함과 직접적으로 잇

닿아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민족의 자랑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 인민이 간직하고있는 민족적 자존심의 핵을 이루고있으며 이것을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는 여기에 또한 민족적 자존심을 주제로 하는 혁명적 작품의 사상예술적 높이와 그 혁신적 특징이 있다.

우리 문학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형상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이 자부심과 긍지를 격동적으로 노래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당과 수령이 마련하여준 오늘의 복된 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 신념과 투지를 힘차게 구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칭송의 사상감정이 깊이있고 진실하게 흐를수록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는 그만큼 심화되며 형상의 철학적 심오성이 담보된다.

당과 수령을 노래하는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이 체험하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 행복감이 우리 시대에 사는 인간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랑과 조화롭게 융합되는것은 이때문이다.

수령의 형상에 바쳐진 총서《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과 많은 단편소설들의 주인공들과 수령을 노래한 우리 시문학에 등장하는 모든 서정적 주인공들이 체험하는 사상감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감이였으며 자부심이였다.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을 격조 높히 노래하면서 그것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작품은 서정시《나의 조국》(김상오)이다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서처럼
부끄러움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긍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조국의 귀중함과 이 조국의 품에 안겨사는 인민-서정적 주인공의 끝없는 긍지와 자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안겨오는가.

여기에는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이 탁마된 시어와 독특한 정서적 호흡을 타고 절절하게 흐르고있다.

시는 조국에 대한 주제를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주제로 심화시키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정서적 여운을 더욱 오래 남기고있다.

이것은 우리 문학에서 민족적 자부심의 주제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주제와 하나로 잇닿은 주제라는것을 그대로 말하여준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뽐어번지는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낳고 복돋아주는 원천이며 마를줄 모르는 영원한 생명수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그토록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랑이 차넘치고있으며 뜨겁게 흐르고있다.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승승장구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단편소설《아리랑》(김원중)은 민족자주의식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며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유산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우리 문학앞에 나서고있는 이 파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해결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감정이 질게 흐르는 아리랑, 우리 민족의 지난날의 력사와 운명인양 세월과 함께 전해오는 민족가요 아리랑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모습에는 우리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숭엄하게 비껴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리랑>이나 <단군신화>같은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긴것은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력사는 남못지 않게 유구하고 우리의 문화도 남못지 않게 슬기롭습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입니다. 민족적인것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면 혁명가가 못됩니다. ...》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일부 그릇된 관점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념두에 두시며 준절히 타이르는 이 말씀, 우리 민족이 창조한 모든 아름답고 귀중한것을 옹호하고 지지하시며 그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숭고한 뜻을 받아안은 력사학도 동섭의 가슴에 그이를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뜨겁게 굽이치며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이 세차게 소용돌이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학자인 원학준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또한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 이제는 고통기에 이르러 제자들까지도 관심밖에 놓는 오랜 력사학자 원학준의 건강을 물으시였을 때 동섭은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위대한 사상과 사랑의 빛발속에 생을 누리며 혁명하는 우리 민족의 영예와 긍지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었으니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우리 조국이 제일이었다.

당과 수령을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주제로 하는 작품 창작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그것은 민족의 위대성이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 민족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끝없이 룡성변영하는 우리 인민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인류가 나아가 가장 정확한 길, 자주적 길을 밝혀주시였다.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발전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이며 우리 시대와 미래사회인간들이 지녀야 할 가장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인생관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귀중히 여기며 세계를 향하여 소리쳐 자랑하고있는 모든것,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재부들과 창조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한없이 귀중한 열매들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가장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이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세기적 변혁들과 기적들이 이 땅우에 이룩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변영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을 형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떨치게 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있다는것을 높은 예술적 경지에서 깊이있게 보여주는 문제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참다운 삶의 목적과 보람이 어디에 있으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주체의 생명관,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인생관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르치는 인간의 이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있으며 이 위대한 진리의 길에서 영생하는 삶의 영광을 지니고있다.

황금의 노예들, 인생의 목적도 보람도 모르며 동물적인 목숨을 부지해가는 인간들에게 그 어떤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자랑과 긍지가 있고 보람이 있단말인가.

우리 문학에서 민족적 자존심의 구현문제는 혁명적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인생관, 주체의 생명관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 해명과 깊이 련관되어있다.

우리 인민의 이 높은 사상정신적 풍격을 떠나서 그들이 지닌 민족적 자부심과 존엄을 진실하게 밝힐수 없으며 그 본질적 특성을 리해할수 없다.

다른 나라 민족문학에서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이른바 《명인들》과 《물질문명》과 보다 많이 관련되어있었다. 그 어떤 나라의 문학도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를 그 나라 인민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견지에서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범박한 력사전통, 문화전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격조높이 구가하는것은 참으로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를 인간학적 견지에서 깊이있게 밝힐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며 우리 주체문학의 위력을 과시할수 있는 하나의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당과 수령을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형상하는데서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형상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나가는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이 가장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안고 살며 투쟁할수 있는 힘있는 사상정신적 무기를 안겨준다면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이 지닌 이 자

부심과 긍지를 끊임없이 떨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어나갈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민족적 자존심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것은 우리 인민이 지니고 살며 일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생활적으로, 구체적인 정황과의 통일속에서 진실하게 보여주며 형상의 생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훌륭히 보여주면서 그것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문제와 결합시킨 다양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예술적 해답을 주어야 한다.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그것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의 련관속에서 보여주려는 창작적 지향은 단편소설 《조국》(리명균)에서 나타나고있다.

소설은 한 로의학자의 형상을 통하여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국만이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안겨줄수 있다는 진리를 형상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는... 조국을 알고 간다... 조국을... **김일성** 주석님 빛내여주시는 내 나라를...》

조국을 그리도 그리워하였으나 그 조국을 알지 못했던 안박사, 조국에 대한 긍지보다도 조국 아닌 《조국》을 두고 부끄러워했던 한 로학자는 이제 참다운 조국을 알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가 알고 가는 조국, 그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조국이었다.

이 위대한 조국을 알고 가는 안박사, 이 조국에 대한 끝없는 자랑과 긍지를 안고 가는 로학자는 지금 행복하였다. 그의 흐려진 안광에 기쁨의 섬광, 행복의 빛이 어린다. 작품은 진정한 조국을 찾고 그 품에 안긴 한 인간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 투지와 신념을 나타냈던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과의 심각한 대조속에서 보여주고있으며 특히 그것을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안박사의 성격발전에서 중요한 사상적 계기로 된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는 우리 나라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였으며 이 고마운 제도하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었다.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서 한생을 지낸 안박사에게 있어서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현실은 꿈과 같은 현실이었으며 백마디의 말보다 큰 힘을 가지고 그의 의식 발전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민족적 자존심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형상적으

로 밝히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제도를 포함하여 당과 수령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이 빛나는 혁명의 재부들이 사람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북돋아 주는데 얼마나 큰힘을 가지고있는가에 대하여 예술적인 해답을 주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민족적 자부심교양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민족적 자부심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또한 이 주제를 인간문제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이다.

이 량자의 결합이 예술적으로 훌륭히 이루어짐으로써만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커다란 주제가 깊이 있게 밝혀질수 있으며 형상의 추상성이 극복될수 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인간에게 있어서 특징적인것은 높은 자주의식이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자부심이 자주적인 인간의 성격적 미를 규정하고있으며 인간으로서의 그의 가치를 담보하고있다.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자기 계급,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것은 그들의 이러한 자주의식, 존엄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인간, 이리하여 인간의 존엄자체를 저버리는것을 인간의 가장 큰 수치로 여기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가지는것이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조국》은 이러한 인간학적 요구를 실현하는데서도 일정한 시도를 보이고있다.

그것은 안박사의 형상속에 조국이 없는 인간의 정신적 공허를 비끼게 한데서 표현되고있다.

높은 급료, 거액의 수술비와 강의료 등 로학자에게는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생활이 보장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운택있는 물질생활도 조국을 알고 살지 못하는 그의 정신적 공백을 메꾸지 못하였다. 로학자의 항시적인 우울증, 그것은 마음의 기둥이 없는 인간의 우울증, 생의 보람과 목표를 잃은 인간의 우울증이었다.

여기에는 조국의 주제,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가 인간문제, 인간의 참다운 삶과 가치에 대한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있으며 거대한 사회적 문제가 구체적인 인간의 운명문제로 심화되고있다.

마음의 기둥이 없는 인간, 생의 목표와 보람을 잃은 인간의 그 참을길 없는 고통과 슬픔을 조국, 참다운 조국에 사는 인간의 민족적 긍지와 결합시킨것은 이 단편소설이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긍정면이다.

소설은 조국이 없는 인간의 정신적 공허를 절박한 상황에서 진실하게 그리고있는데 비해 그 공허가 메꾸어지는 과정, 이리하여 마침내 가슴 한가득 참다운 조국을 알게 되는 체험세계를 보여주는데서 약간의 추상성을 보이고있는것을 외면할수 없으나 인간성격을 보여주고 인간학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많은 긍정적인 지향들을 잘 나타내고있다.

단편소설 《조국》의 이러한 인간학적 특성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또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의 문제를 인간의 량심과 의리문제와 결부시킨 측면에 대하여 주목이 돌려진다.

자기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조국에 사는 민족의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는것은 인간의 량심과 도리이기도 하다.

자기를 낳아키운 조국, 자기 민족을 하치않게 보며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을 쳐다보며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간은 량심과 의리를 저버린 인간이다.

단편소설 《조국》은 주인공 안박사의 형상을 통하여 민족적 자부심문제를 참다운 인간의 량심과 의리문제와 잘 조화시킴으로써 형상의 깊이를 보장하고있다.

그것은 조국을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에 대한 자책감에서 나타나고있으며 새롭게 알게 된 위대한 조국의 자랑을 온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어하는 그의 강연준비에서 표현되고있다.

《나는 조국에 가서 사죄해야겠다. 조국이 나를 용납해준다면... 이제부터라도 겨레들에게 보탬이 될 일을 해야겠다.》

어린 딸앞에서 다짐하듯 하는 안박사의 이 말속에는 의리를 다하지 못한 인간의 죄의식, 인간의 의리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며 그 길에서 살기를 바라는 인간의 깨끗한 모습, 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훌륭히 표현되고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는것은 참다운 인간의 량심과 의리에서 오는 가장 아름다운 사상감정이다.

안박사의 형상이 주는 공감은 량심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그의 정신적 모대김, 때늦은 느낌이 있어도 조국의 아들로서의 의리를 지키려는 아름다운 지향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리하여 소설은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함께 인간의 량심, 의리문제와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어있는가에 대하여 깊이있게 밝힐수 있었으며 인간성격의 생동성과 형상의 심오성을 아울러 보장할수 있었다.

우리는 단편소설 《조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들을 경험으로 하면서 민족적 자존심과 자랑을 안고 보다 적극적인 위치에서 생활하고 투쟁하는 주인공의 형상창조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문학은 자기의 지나온 한생을 뉘우치며 새롭게 알게 된 조국을 사랑하는 강연준비를 하며 그것마저 하지 못하고 이역땅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안박사와 같은 인간형상에 머물러있을수 없으며 민족적 자존심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인간성격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이 성격은 우리 문학에 등장하는 인간성격들을 더욱 풍부히 해줄것이며 우리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을 고무하는 전형으로 될것이다.

민족적 자존심을 체현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인간형은 그 형상의 생리로 보아 조국의 경외에서 다른 나라 인민들과의 관계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날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은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로 살며 일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 특질을 민족들과의 관계속에서만 보여주는 일면적인 립장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물성격은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언제나 민족적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을 지켜 일하는 소박하고 평범한 노동자일수도 있고 한 농장원일수도 있으며 자기의것을 무시하고 남의것을 무작정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열빠진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는 지도일꾼일수도 있다.

이 다양한 인간들의 가슴속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것은 혁명적 수령관이며 주체의 사상체계, 자주주의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드는 뜨거운 충성심과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 주체의 인생관이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만들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 새형의 인간들의 이 높은 사상의식이,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어떻게 확고히 밀받침해주고있으며 민족적 긍지감으로 가슴을 불태우게 하고있는가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민족적 자존심을 형상하는 작품 창작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자랑을 보여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민족적 긍지와 자라는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 자기 민족이 이룩한 물질적 및 정신적 유산과 깊이 려관되어있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외적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을 고수하였으며 슬기롭고 근면한 로동으로 이 땅위에 일찌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우리 민족은 력사의 유구성과 이룩해놓은 물질문화적 재부의 풍부성에 있어서 세계의 그 어느 나라 민족보다 못하지 않는 우수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이웃나라들에 커다란 영향을 준 힘있는 민족이다.

여기에서 력사주제소설창작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력사주제를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와 결합시키는 문제가 제기된다.

력사소설들인 《높새바람》(상), 《김정호》를 비롯한 작품에서 보여준 긍정적 성과들을 공고히 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주제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는것은 문학의 현대성을 강화하고 그 인식교양적 기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일부 작품들이 보여주는 현대적 주제작품에서 력사학자 고고학자들의 다양한 생활을 보여주는 시도들도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통한 민족적 자부심교양에서 한몫을 담당할수 있다.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소재로 하는 이러한 작품 창작에서 경계하여야 할것은 복고주의적 경향이다.

력사적인 과거를 무턱대고 레찬하여 과장하는 복고주의적 경향은 주체의 혁명문화와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이러한 작품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것은 이미 경험에 의하여 확증되었다. 복고주의적 경향의 작품들은 력사적 사실을 외곡하고 그것을 과찬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사상과 어긋나며 우리 인민의 미감에도 맞지 않는다.

민족적 자부심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또한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락후하고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에 타격을 주는것이다.

이 불건전한 사상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배치되고 민족적 자부심과 량립될수 없는 가장 위험한 사상이다.

특히 우리 문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가진 인간들의 부정적 성격과 그들이 혁명과 건설

에 미치는 해독적 후과를 다양한 예술적 수법과 수단으로 비판폭로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민족적 자존심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긍정인물에 대한 옹호의 열정과 함께 부정인물에 대한 비판정신을 강화하는것이 필수적 요구로 나선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환상은 현실이 아니며 언제나 비과학성을 면치 못한다. 사람들이 환상을 가질 때 옳고 그릇된것을 가질수 없게 되며 헤어나올수 없는 심연에 빠져들어간다. 우리 문학은 민족적 자부심을 체현한 긍정적인 인간성격과 함께 자기의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부정적 인물형상도 옹당한 수준에서 보여주지 못하고있다. 부정인물들의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면서 우리 문학이 오늘 주목을 돌려야 할 대상의 하나는 허무주의자들이다.

허무주의는 당과 수령의 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지 않는데로부터 나오는 위험한 사상이다. 허무주의에 빠질 때 사람들은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립장을 저버리게 되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잃게 된다. 우리 문학에서 부정적인것에 대한 비판정신의 강화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체현한 인간들의 아름다운 성격을 긍정하고 옹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 문학이 민족적 자부심을 구현한다는것은 결코 민족주의를 내세운다는것을 의미할수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살며 일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편협한 민족주의자로 될수 없으며 민족배타주의를 할수 없다.

우리 문학이 내세우는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작품이 추구하고 형상하는것,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화, 신조화하는 주체형의 인간성격의 창조이며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민족적 자존심의 예술적 구현은 참다운 혁명적 수령관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가의 성격창조에 귀결된다.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민족적 자존심은 땔레야 땔수 없는 하나의 성격적 속성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그들이 지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감의 기초에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놓여있으며 언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자기를 안아키워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려는 혁명적 의리가 있

기때문이다. 민족적 자존심 주제분야의 작품창작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격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깊이있게 펼쳐보일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 문학의 전투적 기능을 그만큼 다양하게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주제로 된다.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의 문학이 제기하는 주제이며 끊임없이 통성변영하는 민족의 문학이 내세우는 주제이며 찬란한 미래를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나라의 문학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아가

할 주제이다. 이 주제방향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문학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될것이며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지위는 더욱 확고한것으로 될것이며 그의 역할도 더욱 높아질것이다. 우리 문학은 민족적 자존심의 주제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이 주제분야에 바쳐진 작품을 더욱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전진과정을 힘있게 촉진하여야 한다.

레사로운 저녁에

성해룡

누구나의 발걸음에 활기가 넘치누나
자랑스런 하루일 마음속에 되새기며
다정한 가정으로 이끌리는 이 저녁

하루 강의 끝마치고
학과과제도 원만히 수행했으니
하루일 만족감에 걸을 퇴근길이면
그 무엇이 나의 발걸음만은
드바빠 재촉하는가

들려오누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흥에 겨운 사람들의 자랑도 많은 이야기
내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며

저 처녀 청곱게 노래 부르듯 끝없이 속삭임은
오늘도 수십메터의 비단필을 짚다는 이야기리
세상일 제 혼자 다 한듯
손저음 열정적인 저 청년은
아마도 수십톤의 트라스도
가볍게 들어올렸다고 뽐내는 이야기리

내 실어보노라
일렁이는 마음의 파도우에
나의 자량은...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를

내 모대기며 찾은 과학의 수치들
그었다 지우고 다시 긋고 짚은
작은 도면우의 미세한 점과 선들

그것이 커다란 생산실적은 아니어서...

그 누가 탓하랴
내 바빠 걷는다고
쳐녀여 총각이여
그네들의 그 정교는 속삭임에
더더욱 흥겨운 기쁨을 더해주려
대학생 나의 발걸음만은
언제나 다그치는 걸음인데야

비단필의 꽃무늬가 탐구의 열매인줄
보이지 않는 과학의 수치가
수백톤의 강철보도 가볍게 든줄
그대들도 모르랴만
더 높은 과학의 대문을 열고
조국을 받들고 땀땀이 걸어야 할
창조의 밤들이 나에게 있나니

높으나 높은 그길로 가는 길
불타는 탐구와 씁없는 사색의 순간속에
정열에 넘치는 우리 삶에
그 어이 퇴근길이 따로 있으랴

오, 정녕
단란한 가정으로 호젓한 강변으로
내 걸은들 탓하지 않을 이 저녁
이 땅, 이 시대의 태일로만 앞서가야 할
대학생 나에겐 언제나
서둘러 걸어야 할 출근길만 있구나

생활이여 흐르라

김석전

어릴 땐
작은 등산배낭 하나 메고도
무거웁다 자주 풀어보던
이 어깨

지금껏 조국의 등에 업혀 자란 아들이
어엿한 탄부로 막장에 섰다
넓어진 청춘의 어깨우에 놓인것은
가볍게만 받들 무게가 아닌

오, 상상도 할수 없는
수억톤의 지압...
산악이
산악이 통채로 놓여있어라

평범한 날에 평범하게 오고간
이 굴길에서 내가 성장하였다
착암기와 동발을 메고다니며
꽃피는 락원을 떠받든 이 어깨

어머니대지 땅밑에서
조국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엮고 다니면서도

무거움을 모르는것은
오, 무거움을 모르는것은

조국엔 받들리며 사는 사람보다
만드는 사람이 많아야 함을 알았기때문
결코 그렇게 살기 수월치는 않지만
그래야 사랑하는 내 조국이 빛나지 않는가

가슴이 부풀도록 차오르는 탄부의 영예와 긍지여
이 땅의 하많은 초소
스스로 각자가 말아선 혁명의 구간들에서
내 가장 어려운 이 구간을 지키리라

땅우의 환희로운 생활속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좋다
생활을 가꾸어주자고
웃으며 내려선 막장이기에

이 어깨우에 실리는 무게가 클수록
그만큼 가벼워지는 탄부의 마음이다
생활이여, 서슴지 말고 탄부의 어깨를 타고흐르라
보다 큰 기쁨이 기다리는 그 기슭으로 파도쳐흐르라!

기쁘더라, 나를 부를 때

최호진

기쁘더라
새 천공법 의논하던 젊은이들
내 경험을 들어보자고
흰 머리 짙은 나를 찾을 때

기쁘더라
단발머리 운전공처녀
전차소리가 이상하다고
두손 모아 소리치는 되알진 목소리
내 발걸음 다그치게 할 때

고맙구나
너희들 그 마음 안고
불트 하나 조일 때도
휘여드는 동발목 함께 받들 때도
하냥 일손은 성수나거니

아, 그 부름소리에
다그치는 그 발걸음에
청춘의 희열이 샘솟아올라
살펴보는 흰 머리어

막장의 한끝이라, 채광장 뿔프장이라
때없이 찾는 그 부름소리
조국의 부름처럼 가슴에 울리어
당의 믿음처럼 심장이 후더워

기쁘더라
막힌 일목에
어려운 일목에 나를 찾을 땐
헛살지 않는 내 생이
헛먹지 않는 내 나이
청춘을 되찾는 마음이어!

작가의 문체

오영환

(제 3 회)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사랑하는 사이에 엇드레질을 하는 남녀관계에 대한 관찰, 성구속담리용 수법을 쓴 실례)

서로 아끼고 바라는 정이 넘쳐서 별치 않은 일로 저마금 원새끼를 풀수도 있는것이다.

(재간은 없어도 승벽이 센 사람에 대한 관찰, 대비법을 리용한 실례)

총명과 재기는 부족한 편이었으나 욕심과 정력과 검질긴 의지와 남다른 승벽이 그것을 보충하여 주었다.

깊은 뜻을 담은 문장에는 생활철리를 밝힌것만이 아니라 자연리치를 밝힌것도 있다.

장원소설 《준엄한 전구》에는 그러한 실례도 적지 않다.

산새나 물새나 밤에 우는 새들이란 모두 한모양으로 처량하고 청승맞은 소리를 낸다.

이 레문은 배정식이 강언덕 초막앞에 피워놓은 모닥불곁에서 나루지기로인과 마주앉아 어두운 강판을 바라보며 듣고있는 새소리에 대한 관찰이다.

자연리치를 밝히고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자연묘사가 아니다.

한것은 이름도 각이하고 사는곳도 각이한 새들이지만 밤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는 그 울음소리의 속내를 깨닫게 하는 새로운 의미가 있기때문이다.

그런데로부터 밤의 새울음소리가 한모양으로 처량하고 청승맞은 소리로 들리는것은 사람들의 경험과 체험으로 굳어진 하나의 리치라는것을 긍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산새나》 《물새나》와 같이 《나》와 《나》는 가림토의 선택으로서 두개의 사실이 나란히 놓인 가운데서 그 하나하나를 가리는 관계를 나타내고있다.

《밤에 우는 새들이란》에서 《이란》은 주격토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규정적인 정의를 내리는 세움말의 역할을 하고있다.

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허위단심 달음쳐온 쪼각달은 이젠 기진하였는지 걸음을 멈추고 수림이 무성한 올기강 골짜기우에 한껏 부드러운 빛을 드리우며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 레문은 백일평부근에서 《련합토벌사령관》노자끼의 어마어마한 행각을 보고온 배정식이 급히 사령관동지께 그 사실을 보고올리고 밀영주변의 망원초들을 돌아보는 자연에 대한 관찰이다.

새벽녘에는 상현달이 더 빛나보이는것은 하나의 자연현상이다. 우리는 이 자연현상에서 새로운 의미로 그 리치를 깨닫게 된다. 넓으나넓은 소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로지 엄숙하고 아름다운 세계는 사령부천막뒤리에 장풍들이 자리잡고있는 밀림속밖에 없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깊은 뜻이 달을 사람에 비유한데서 쉽게 리해된다.

《허위단심 달음쳐온》, 《이젠 기진하였는지 걸음을 멈추고》 등은 사람의 표식을 준 비유법의 리용이다. 사람과 같은 활동과 사고가 불가능한 달에 사람의 표식을 줌으로써 《한껏 부드러운 빛을 드리우는》것을 마음이 동한 행동적인 표상으로 안겨주고있다. 즉 자기가 찾던 세계를 보는 황홀감같이 느껴지게 한다.

이것은 자연리치에 깊은 뜻을 담은것으로 된다.

고픈 배보다 졸리는 눈이 더 급하다는 구대원들의 교훈을 이번에도 모두 체험하였다.

이 레문은 조선인민혁명군이 허리를 치는 장설을 헤치며 장백산 줄기 마지막 대원시림을 돌파하는 행군에 대한 관찰이다.

배가 고파도 졸음이 와도 참기 어렵기는 매한가지이지만 배고픔은 그래도 의식활동이 있는 상태에서 겪게 된다. 그러나 졸음은 의식활동이 없는 상태

에로 빠뜨리는데로부터 눈속이건 벼랑이건 가릴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될수밖에 없는 속내를 고픈 배보다 줄리는 눈이 더 급하다는 말로 표현하고있다.

이러한 자연리치가 대비법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고픈 배》와 《줄리는 눈》, 이 두가지 사실이 대비되는 가운데서 《줄리는 눈》이 더 급하다는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해주고있으며 대비되는 두 현상의 본질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지금까지 깊은 뜻을 담은 문장이란 어떤것이며 거기에서 작가의 남다른 관찰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것을 보았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문장에 담긴 깊은 뜻이란 생활의 철리와 자연의 리치를 밝힌것이라는것 그것이 남다른 관찰인것으로 하여 그 문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경향성으로 된다는것이다.

다음은 생동한 표상을 주는 문장이란 어떤것이며 거기에 작가의 남다른 관찰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미리 말해둘것은 작가의 관찰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것이다.

작가의 관찰은 현실생활에서만 있게 되는것이 아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작가의 관찰은 계속된다.

물론 현실생활에 대한 관찰만으로도 작가는 생활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리해할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사는 시대와 지역, 아는 사람과 생활에는 한계가 있기마련이다.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통한 관찰도 하여야 한다. 적어도 자기 나라 문학의 재보와 세계문학의 재보를 통한 관찰을 하였을 때라야 말그대로 인간생활과 자연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수 있다.

현실생활을 관찰하는 목적이 생활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파악하는데 있는것처럼 책을 통한 관찰의 목적도 생활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파악하는데 두어야 한다.

책을 통한 작가의 관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성은 문학을 시작하는 수업의 첫 시기에는 주로 새 어휘와 값진 문장을 익히면서 시야를 넓히고 문학수업이 깊어진 시기에는 주로 종자와 구성, 성격을 익히면서 시야를 넓히는것이다.

이 모든 노력이 다 생활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파악하는데로 지향된다.

이와 같이 책을 통한 관찰도 실속있게, 근기있게 할 때만이 작가적 발전에서 비약이 일어난다는것을 실천적 경험은 말해주고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편집자는 한 문학통신원의 소설을 받아읽고 참말 놀란적이 있었다.

이 동무로 말하면 여러해동안 편집부에 작품을 투고하면서 한편의 소설도 발표해보지 못한 동무였다. 그런데로부터 자연히 사라졌던 동무이다.

편집자는 5년만에 그 동무의 소설을 읽고야 그것이 포기가 아니였고 중단이 아니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5년, 5년이면 대학을 하나 나오는 기간이다.

편집자는 이 5년에 갖든 사연을 알고싶었다.

그리하여 먼저 그 동무의 소설을 출판에 넘기고 그 길로 출장길에 올랐다. 계획에 없던 작품을 편집하고 계획에 없던 출장을 떠난셈이다.

훌륭한 작품과 그것을 창작한 사람은 이렇게 편집부의 환대를 받게 되는 법이다.

정말 어깨를 두드려주고싶은 동무였다.

그를 만나보고 그가 5년동안 읽은 책과 책을 통하여 관찰해온 흔적을 보면서 편집자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렇다. 재능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다. 완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으로 얻어지는것이 재능이다.

작품을 발표하는데 급급해하던 그가 실패에서 찾은 교훈은 참으로 귀중한것이다.

작품을 열매에 비유해 말한다면 그는 조금해서 익지 않은 열매를 따려고 생가지를 꺾군했다.

쓰고 시큼털털한 열매에서 달고 감미로운 맛을 보라고 그것을 남에게 서슴없이 내놓던 그가 자신이 한번 깨물어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내버린셈이다. 그때로부터 거름을 주고 땀들여 가꾸며 때를 기다린 열매는 바람결에도 떨어질듯 무르익어갔다. 이렇게 노력한 보람은 이미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주었을뿐아니라 승산없는 길을 헛되게 걸을번한 일생도 되찾아준것이다.

어휘수첩 하나만을 놓고보아도 그 동무가 책을 통한 관찰을 얼마나 실속있게, 근기있게 해왔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의 어휘수첩은 새 단어를 적어두는 단순한것이 아니었다. 새 단어를 자기 식으로 리용해본 단문의 집대성이었다.

더우기 이채로운것은 자기 관찰이 아직 미치지 못했던 그런 대상, 현상은 책에서 단문으로 뽑아 그 대로 적어두고있는것이였다.

례를 들면 자기가 새 단어를 리용해본 단문은 《뼈대지다~뼈대진 몸은 로동에 굶주려있었다.》와 같이 먼저 단어를 앞에 세우고 풀이표를 썼고 책에서 뽑은 단문은 그러한 표식을 주지 않고 《사

람이 잘지만 자상하고 숙부드러웠다.》와 같이 그 대로 적어두고있었다.

그는 책을 통한 관찰을 이렇게 하고있었다.
아래에 그의 어휘수첩 몇장을 소개한다.

- 봉싯하다-언제나 봉싯한 그의 입은 악의없는 성미를 말해주고있었다.
- 출반주-말끝마다 출반주하여 약을 올렸다.
- 메다꽃다-꿈속에서 그 누구를 메여꽃다 깨여났다.
- 왈짜-자기를 검질기게 뜯어보는것이 싫어서 우정 왈짜로 놀았다.
- 피식-빋으로 코마루를 굽다가 피식 웃어버렸다.
- 끼리-산은 산끼리 모이고 사람은 사람끼리 모이지.
- 대가리를 바람벽에 부딪쳐 부셔버릴테야.
- 절벽을 들이치는 파도소리가 총성같이 들려왔다.
- 바람에 불려 불룩해진 치마를 누르면서 총총히 걸어갔다.
- 시롱거리다-제발 시롱거리지 말아요, 난 바빠요.
- 하다분하다-하다분한 먼지우에 아기의 맨발 자국이 나있었다.
- 수이-수이 잊어버린것이 미안스러워 인차 대답을 할수가 없었다.
- 정신은 무한히 늘굴수도 있고 무한히 높일수도 있다.
- 독기가 살짔파 빠속까지 차있는것 같았다.
- 아물스럽다-버섯을 보지, 아물스럽게 고운 빛같은 독이 있어.
- 녘넌하다-그래도 사람이 녘넌해서 말을 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인다.
- 집에 가서 닭 한마리 뒤집어 먹어야겠다.
- 애록애록하다-얼굴은 처녀같이 애록애록한데 기운은 세찼다.
- 비 개인 뒤 미풍에 흔들리는 꽃을 보며 혼자 웃고있었다.
- 잘코사니-잘코사니라는듯이 건너다보아도 깨고소한 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 땅우의 재부를 균등하게 나누는 역.

- 하찮은 약점을 꼬집는 시비질에 증이 났다.
- 헤출레미-딸 하나를 보았다는게 헤출레미를 두었지.
- 쭈알거리다-대합실에서 졸고있던 할머니는 애를 울린다고 쭈알거렸다.
- 어루러기-백지의 어루러기처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간 아기무덤.
- 웃음은 앞에 있을 눈물의 고통을 파놓는다.
- 어머니는 나 하나를 낳아서 비둘기 날리듯했다.
- 비방울이 올라앉은 수염.
- 열린 공기창으로 꽃잎같은 눈송이가 날아들었다.
- 병거지-병거지라도 쓴듯이 머리술이 많은 청년이다.
- 입다심-언제나 입다심할 일이나 없나 하고 두루 살피는 눈길이다.
- 알긋다-어제 만났던 알긋은 그 느낌보와 또 맞다들었다.
- 간살-겨우 기저귀에서 떨어진 간살쟁이와 놀고있었다.
- 잠자코-사랑이란 잠자코 끌어갈수록 그것으로 가치를 더 높인다.

이상에서 한 문학통신원의 어휘수첩 몇장을 소개하였다.

이미 먼저 소개한 작가의 관찰자료와 함께 문학통신원의 어휘수첩은 그것들이 다 인간과 그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하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인간과 그 생활을 어떻게 보면 폭넓고 깊이있게 보는것으로 되는가?

앞에서 보아온 관찰자료와 어휘수첩에 있는 모든 실례들을 종합추리해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

즉 작가는 대상, 현상을 직선으로, 개념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비유해보고, 대조해보고, 속내를 보고 덧쌓아보고, 풀어보고, 본따보고, 련결시켜보고, 확대해보고, 에둘러보고, 감각해본다. 이러한 능력을 작가의 관찰력이라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그날의 포탄상자 외 1편

김재원

그날의 포탄상자
가볍지 않았더라
하나 누구 하나
무겁단 말 하지 않았더라
혈전의 날 고지에 오른
그날의 포탄상자는

로인도 나어린 소년들도
두세개씩 겹치고
얼음장 깨진 강을 건너
불붙는 벼랑을 뚫아올랐더라
준엄한 날 그 포탄상자
조국을 수호하는 병사들 무기였나니

전쟁을 겪은 우리 인민만이 체험한
아, 가슴 찢었던 숭고한 조국애여
조국은 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
따뜻한 집이었고 어머니였고
원췌를 치는
그 무거운 포탄상자였더라

하기에 갓 태어난 어린것을
방공호 요람속에 눕혀놓고
그 품에 포탄상자를 안고

고지대로 치달아오르던 녀인
아, 쓰러지면서도 쓰러지면서도
그 포탄상자만은 구출하지 않았던가

전사의 첫 아들이
방공호문 열고 나설적에
그 애앞에 어머니 없어도
쳐다볼 조국의 푸른 하늘
디디고 설 조국의 땅은
있어야 했기에

전쟁의 력사는 준엄했나니
포병인 아버지는
고지의 더 높은곳으로 포를 끌어올렸고
후방은 멀고 험할수록 그길을
더 자주 더 빨리 오고갔더라
포탄상자를 이고, 포탄상자를 지고...

오, 복수의 포알로 멸적의 불 뿜으며
온 전선이 앞으로 나갈적에
그때 생기던 한치한치의 땅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그것은
군민이 한마음되어 지켜낸
나의 고향이었다 번영할 조국이였다

아이와 병사

달리는 렬차안은
언제나 흥성이더라
마치도 웃음많은 사람들만
끌라서 태운듯

잠시 췌다 떠나는
시간의 중간역
젊은 병사 차에 오르니
유치원 어린이 자리를 내어주네

오, 병사를 위해
철없는 아이 내놓는 자리
못시선들 쫓리는속에
젊은 병사 얼굴만 붉히네

어서 앉으라, 조국을 지켜
눈비에 젖은 수고많은 병사여

부모와 우리 시대가 그 애를 키웠다
어머니조국이 그 애를 교양했다

그 마음 어찌 모르랴
병사는 병사답게
성큼 어린애를 무르팍에 안고
자리에 앉아 끝없이 애무해주나니

아이는 아이대로 동심에 겨워
《삼촌》하며 군복자락에 파고들어
병사와 아이는
참말로 삼촌과 조카가 된듯

순간 어찌 병사만이 기뻐으랴
순간 어찌 아이만이 기뻐으랴
렬차안은 잔치집같이
웃음속에 흥성이여라

렬차는 기적높이 달리고달리는데
아, 짧은 병사의 가슴속에
목숨같이도 귀중한 추억이
한잎 두잎 꽃잎처럼 새겨지는 시간이어

인민에 대한 이런 사랑의 추억없이
병사가 어찌 한지에서 지낼수 있으랴
조국에 대한 이런 뜨거운 추억없이

병사가 어찌 용감해질수 있으랴

한집 식솔같은 이런 인민을 위해
그 인민이 안겨사는 크나큰 집
달리는 렬차, 조국을 위해
병사는 웃으며 돌격선으로 나가는것 아니랴 !

단 상

세월은 흘러도

김형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적아를 옳게 구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나는 동무들과 함께 인민군군무자에술 축전을 관람하였었다.

축전무대에 오른 예술작품들은 생기발랄하고 씩씩한것으로 하여 매 종목마다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군했다. 더군다나 이름없던 한 전사가 신비한 요술의 세계로 관중들을 이끌어갈 때면 나는 벌린 입을 다물수 없었다. 어느덧 막간휴식이 끝나고 공연은 제 2부로 넘어갔다. 어떤 작품으로 또다시 관중들을 흥분시키겠는지 모두 궁금해하였다. 특히 내열에 앉은 전연에서 왔다는 군관동무는 연신 무대쪽으로 고개를 뺨군했다.

이윽고 관람석에는 불이 꺼지고 막이 서서히 열렸다. 총을 억세게 틀어쥔 두 병사가 나와 설화시를 읊었다. 공연의 1 부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무대 뒤면에 환등그림이 비쳐졌다. 보기만 해도 치떨리는 광경이었다.

차가운 달빛이 열어놓은 외양간문으로 스며드는 밤,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지주놈이 작두우에 올라서서 작두날을 밟고 지주녀편네의 손에 잡힌 애어린 소녀의 손이 작두날아래 놓여있었다.

소구유에 있는 몇알의 콩을 주어먹었다고 하여 생손을 작두날로 자르려는 놈들이다.

《어머니 ! …》

애처롭게 떨리는 소녀의 목소리.

《왜 소가 여위는가 했더니…》

가쁜숨을 몰아쉬며 작두날을 내려밟으려는 지주놈의 악착한 모습. 여물을 먹던 소마저 두눈을 홉뜨고 인간백정들을 쏘아본다.

순간 극장안에는 분노의 웨침이 터져올랐다. 앞에서 숨을 죽이고있던 처녀는 두손으로 눈을 감싸며 외마디소리를 지른다. 나의 옆에서 황소숨을 내쉬던 군관의 손이 옆구리를 더듬고있었다. 분명 권총을 찾고있다. 우지작 우지작 하는 소리가 났다. 뒤에 앉았던 암전하게 생긴 중년사나이가 의자의 손걸이를 비틀고있었다. 말그대로 극장안은 계급적원쑤에 대한 분노의 도가니로 뚫어번졌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바로 저것이 지난날 암흑세월에서 우리 부모들이 겪은 불행의 한순간이 아니겠는가 …

환등에 비쳐진 소녀의 참혹한 모습, 애절한 목소리… 다시는 되풀이될수 없는 그 처참한 광경이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고있었다,

오늘의 행복에 취하여 부모들이 학대받던 지난날을 잊는다면 어떻게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새세대이겠는가.

그렇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세월이 흐를수록, 삶의 보람과 공지가 클수록, 이 땅에 락원의 탑이 높아갈수록…

시간과 교원

허선재

...어느 학급에라없이 눈에 별로 뜨이지 않게 조용히 살아가는 아이들이 한둘씩은 있다. 리병결 교원이 담임한 학급의 우진이 바로 그런 학생이었다.

질은 눈섭밑에서 이따금 어른스레 움직이는 율통한 눈동자와 입이 무겁다는것, 이것이 그가 학생한테서 받은 첫인상의 전부였다. 공부는 썩 잘 하지 못했지만 성적이 낮은 편은 아니었고 과외생활 역시 결함이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빼여지게 나타나지는 우점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교원의 관심이 자연히 덜 돌려지는것이다. 수업이 끝나면 뒤떨어진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열성자들과의 사업 그리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의 가정방문, 다음날 수업준비, 분과토론회, 직관물만들기... 일은 끝이 없고 시간이 늘쌍 모자라는게 교원이니까. 실로 도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온후 5, 6년 세월이 여기 이천동 여울물처럼 빨리도 흘렀다.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이 한시간이란 말대신 3천 6백초라고 입버릇처럼 표현하는것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리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조용히 그리고 《아무 말썽없이 살아가던》 우진에게 주의를 돌릴만한 일이 생겼다.

나이 지숙한 문법교원이 오후수업을 마치고 교원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 학급 우진이가 왜 그렇게 번져가요. 시물시물하면서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지 않는단말이요. 차라리 우락부락한 아이들은 품을 들이면 들인만큼 달라지는 재미가 있는데 저런 학생들 다루기가 제일 말썽다오.》

걱정비슷한 불만이였다. 아픈데를 다치운 사람 마냥 병결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주름이 생기였다. 기분이 같았는 소리였지만 스쳐들올수 없는 말이었던것이다. 자기가 보기에요 요새 어딘가 모르게 아이가 좀 달라지는것 같았다. 수업시간에는 율적인 낮은으로 박을 내다보는 일이 많았고 동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다.

어느날 아침 출근시간에 있는 일이였는데 교원실을 향해 바쁜 걸음을 놓다가 교재원의 생울타리결에서 말다툼소리 같은것이 들리기에 발을 멈추었다. 귀를 기울이니 말다툼이 아니라 우진을 가운

데 두고 두 아이가 거치른 말을 번갈아 던지는것이였다. 《정신 나갔다》 느니 《귀머거리같다》 느니 하는 말들까지 튀어나오는것으로 보아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소년단벡타이를 풀지 며칠 안되는 때여서 사로청원인지 소년단원인지 분간이 잘 가지 않게 노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들리는 말투들이 귀에 아츠러워 입버릇이 굿은 학생을 되게 추궁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그러나 흔히 자기포레들한테 《구박》 받는 아이를 보고 동정심이 북받친 어른이 성급히 뛰어들어 시비를 가르려들다가 인차 아, 그 녀석이 잘못하긴 했군 하며 자기의 경솔함을 뉘우치는 일이 드문하다. 그때면 의례히 《그래도 그래서야 쓰나.》하고 말하는것으로 싱겁게 끝나기마련이다. 리병결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다. 학생들의 말을 듣고보니 박우진이 잘못하긴 했던것이다. 어제 오후 사로청에서 조직한 노래경연에 우진이 나오지 않아 점수를 푹 깎이운탓으로 1 등을 못했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동무들이 리유를 물으니 어제 오후에 하는줄을 몰랐다고 자꾸 우기는 바람에 말들이 가지를 치면서 길어지게 되였었다.

그는 우선 《그래도 그렇지, 자기 동무를 그렇게 모욕하면 되오?》하고 다른 아이들을 놀려놓은 다음 우진에게 물었다.

《몰랐다는게 정말이요?》

어깨가 축 쳐진채 머리를 숙인 학생은 괜히 발끝으로 땅바닥만 비비작거리며 반응이 없었다. 두세번 되물었어야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네》하고 대답했다.

(결석을 한것도 아닌데 모르다니 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하면 푸릿한 턱수염자리만 썩썩 문지르며 한동안 말이 없어지는 병결이였다. 그럴 때면 그의 너슬너슬한 얼굴이 랑담한 표정으로 굳어지면서 허전한 빛이 어리군했다. 만약 그때 상학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더라면 그의 입에서도 아마 싸늘한 말이 나오고야말았을것이다.

병결은 연필끝으로 책상을 푹푹 두드리며 생각했다.

(참, 그 애가 왜 갑자기 그렇게 되어갈까? 그러지 않아도 양기가 부족한 아인데... 어쨌든 일감이 또 하나 생겼군.)

그는 무심히 책상우에 놓인 신문을 펼치었다. 그러자 신문잡에 끼였던 편지들이 떨어졌다. 우편통신원이 왔다간 모양이었다. 그에게는 편지를 읽고 쓰는것도 하루일과에서 빼어놓을수 없는 시간이다. 창밖을 보니 통신원아바이의 뒤모습이 학교정문쪽으로 멀어져가고있었다. 아바이가 가방을 끼고 가는지 가방이 아바이를 끌고가는지 모를 지경으로 큰가방이었다. 이 고장과 세상을 련결시키는 하많은 사연이 들어있는 저 가방이 온 동네를 한바퀴 돌고가는것도 하나의 마을풍경이다.

그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한장은 제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북부철길공사장에 진출한 제자한테서 온것이었고 다음 네모난 글체로 박아쓴 봉투는 리과대학 졸업반 녀학생 그리고 멋을 부리며 사진으로 비껴쓴 글씨는 몇해전에 군대에 나간 박우협이 편지였다. 말하자면 우진이 형한테서 온것이였다.

《이 친구 편지를 부지런히 쓰는데... 그리운 선생님에게... 편지마다 그리운, 그리운 하거든. 나한테서 육먹은 기억밖에 없겠는데 그래도 그림긴 그림단말이지.》

실로 박우협이한테는 칭찬을 해본적이 별로 없었다. 1, 2학년때에는 학교지붕에 올라가 새둥지를 들춘다, 뱀을 잡아 녀학생들한테 던진다 하여 비판이 쫓새 없었고 그다음부터는 공부에 취미를 못붙여 리병결의 골머리를 무던히도 아프게 했다.

어쨌든 우협이때문에 그는 두번이나 연단에 올랐다. 한번은 학급담임으로서 제구실을 못한탓으로 불명예스러운 비판무대에 나섰고 졸업을 앞두고서는 군교육관계자회의에서 박우협학생을 교양한 경험토론을 하였다. 서로 다른 내용의 토론이었지만 두번 다 땀을 덬기도 뻤다.

편지를 다 읽고난 병결의 생각은 또다시 우진한테 미쳤다.

(형은 갈굼질이 심해 애를 먹이더니 동생은 너무 어리무던해서 속을 태우는군.)

병결은 아무래도 그를 만나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나가 찾았으나 벌써 학생들은 집으로 가고 없었다. 학생의 집에라도 가보려고 가정방문기록부를 집으려던 순간 그는 《아, 이 정신 보지!》 하며 손으로 제머리를 톡 쳤다. 언제인가 우진의 어머니가 길가에서 자기를 보고 그 애를 전학시켜 달라고 말하던 일이 생각났기때문이다. 이웃 군의 어느 산간마을에 우진의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이 사는데 그 애를 데리고있고싶어한지 오래다는것이였다.

(한주일이 지났는데 이제야 생각나다니...)

박우진이가 병결의 기억에 이처럼 희미한 존재로 남아있었던것은 누구의 탓인지 모르나 어쨌든 정작 떠난다고 생각하니 퇴근길에 둘러보고싶은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병결은 시계를 내려다보며 박우진의 집을 향했다.

그가 대문안에 들어서며 기척을 내자 밥짓던 우진의 어머니가 행주치마에 손을 씻으며 마주나왔다. 《아이, 선생님 오셨습니까. 밤길을 어떻게...》

그다음 그는 방안을 향해 쟁쟁한 소리로 《애우진아, 선생님 오셨다.》하고 아들을 불러냈다. 솟부드러운 인정미가 풍기는 중년부인이였지만 목소리만은 처녀때의것을 그대로 간직한듯 신기할 정도로 탄력있고 다기차게 들리었다.

한 손에 만년필을 쥔 우진이 내의바람으로 방문턱을 넘어서며 벌쭉 웃더니 꾸벅 인사를 했다.

《오나. 어서 들어가서 공부를 마저 해라.》

그를 방안으로 들여보낸후 병결은 태연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전번에 우진의 전학문제를 제기하길래... 늦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사람이 본래 덜통하다보니 허허.》

말해놓고보니 낮이 뜨끈했다. 그렇지만 달리아 어떻게 말하겠는가. 요새 우진이가 사람들의 말법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그 생각을 못했을것이다.

《그 일때문에 우정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래일쯤 찾아뵙자고 했는데... 어서 들어가십시다. 애우진아, 창고에 가서 마른 장작 한아름 안아오너라.》

녀인은 극성스레 팔소매를 잡아끌다싶이 하며 그를 구들에 올라앉게 했다.

부엌간에서 켜 솥뚜껑으로 지지고 볶는 소리가 들렸다.

리병결의 생각은 복잡했다. 래일이면 떠나갈 학생인데 별로 모가 나지도 않는 결함을 가지고 과연 이러쿵저러쿵 말해주어야 하는가.

(어떡한다?)

이렇게 망설이던 병결은 먼저 우진이 형한테서 방금전에 받은 편지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박우협의 어제날 일화들이 갖은 회역을 불러내며 웃음속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퍼그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

병결은 밤이 펍 깊어서야 우진이며 그의 어머니의 바래움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합숙생활을 하느라 불편한 일들도 더러 있겠는데 우리 우진이 전학간 다음에도 종종 다니십시오.》

대문밖으로 나온 때 등뒤에서 들리는 녀인의 후더분한 목소리였다.

《어서 들어가보십시오.》

가정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습관처럼 주고받는 인사말이 끝난후 그는 산보나 하듯 호랑버들이 흐느적이는 강기슭을 따라 천천히 합숙쪽으로 거닐었다. 여울물소리가 매미울음소리와 어우러지며 온 마을을 잠재우는 레사로운 여름날 저녁이였다.

그러나 리병결은 그날밤 자기가 어떤 파오를 범하고있는지 몰랐다. 그 보통날 저녁의 범상한 일을 엄한 눈길로, 자기를 남처럼 부감하며 돌이켜볼 기회는 놀랍게도 한해후 그것도 전혀 생각않던 시간에 있었다.

일년후 박우진학생은 다시 이천동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내외가 평양 큰아들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우진이 전입학의뢰서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병결은 반갑기도 했지만 놀라움이 앞섰다. 어른스러운 틀거지가 느껴지는 침착한 몸가짐과 영민하게 움직이는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풍부한 얼굴 표정으로 해서인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견인력을 발견했을 때 병결은 저으기 자기 눈을 의심했다.

(한창 자라는 때기로서니 한해사이애 이렇게도 달라지는가?)

그가 전입학의뢰서를 훑어본 다음 책상 한옆에 밀어놓을 때까지 기다리고있던 박우진은 웃주머니에서 편지 한장을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최은심선생님이 안부를 전합니다.》

《최은심이라니. 아, 정말 그 선생이 옥계수에 있지. 잘 있더냐?》

그는 편지봉투를 뜯으며 말했다.

《예, 우리 담임선생님이였습니다. 선생님을 잘 알고계십니다.》

시원하고 담찬 목소리로 말하는 우진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피어올랐다.

최은심은 사범대학 동창생이다. 옥계수가 고향인 그는 거기서 고등중학교를 다녔고 대학졸업후 다시 옥계수로 갔었다. 그후 서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다보니 아직 만나보지 못한 처녀였다. 사사로운 이야기끝에 그는 학생에 대해 이렇게 썼다.

《...내성적이긴 하지만 성격은 쾌활합니다. 글짓기에 소질이 있고 음악적 감수성이 발달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도가 있으면 상당한 발전이...》 마지막 글줄까지 다 읽고난후에도 그는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학생에 대한 편지내용이 놀라와서라기보다 한해전 교문앞에서 울먹한 낯색을 한 우진이의 까실까실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우던 일이 삼삼히 떠오르기때문이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그자리에 만약 학생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자기로서는 짐작 못할 이 의문속에 폭 잠겨라도 보려고 두손으로 찌른 얼굴을 무르팍에 묻고말았을것이다.

(옥계수... 우진이 ... 최은심...)

그러나 그 의문은 최은심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을 때 완전히 풀렸다.

병결이로서는 실로 너무 뜻밖의 일이었지만 며칠후 바로 옥계수고등중학교에서 도안의 생물교원 방식상학이 있었다.

《참, 박우진이란테서 오늘 편지가 왔더군요. 그 동안 이 교장에 정이 붙었던게지요. 호호.》

학창시절의 회억이 끝나고 여러곳에 흩어진 동무들의 소식을 서로 아는데로 주고받은후 더 이어낼 말이 없게 되었을 때 최은심이 하는 말이였다.

《정말 그 애가 이 학교에 왔다가더니 영 달라졌더군. 그러지 않아도 내 은심동무한테서 경험이라도 좀 듣자던 참이었소.》

마음속에 묵직히 자리잡고있던 생각이였지만 정작 말을 때놓고보니 너무 멋대거리 없이 접어드는것 같아 먼구스러웠다.

《달라지다니요?》

정원을 향해 열린 교원실 창문모서리에 기대선 채 어둠속에 잦아드는 노을을 바라보던 최은심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박우진이야 본래 그대로지요.》

자기가 받는 칭찬이 약간만 정도를 넘어도 불안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는 녀성들한테서 이따금 듣게 되는 그런 어조였다.

《그 애가 어딘가 모르게 좀 어리어리한데가 있었는데...》

《그래요?》

모를 소리라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던 최은심은 그 무슨 잊었던 일이 갑자기 되생각났는지 아이들처럼 손벽을 쳐가며 말했다.

《웁아요. 아이 참 기차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 떨려요.》

감정이 돌변한 처녀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있는 일을 알려주려는듯 책상우에 있는 서류함을 열고 한참 뒤적이더니 종이 한장을 꺼내는것이였다. 이야기가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이어지는것이 기뻐서 그러는지 처녀의 동작은 가볍고 활기에 차있었다.

《이걸 좀 보세요.》

병결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난 사람마냥 탁상용전등을 켜는 그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며 종이장을 집었다.

《그 애가 쓴 작문입니다.》

《작문?》

《우진이가 우리 학교에 온 바로 그날에 쓴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강변에 나가 학교 앞산을 묘사하는 글짓기를 했어요.》

병결은 자기가 꺼낸 말이 생각않던 방향으로 번져가는데 어리둥절했지만 작문을 쓴 날자까지 기억하고있는것으로 보아 필시 꼭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글줄에 눈을 주었다.

《새노란 물싸리와 사시나무들사이로 단풍이 빨강게 타오릅니다. 노을빛에 물든 구름처럼 불그스름하게 피어나는것은 오미자덩굴입니다. 매지와 짙광이들이 많이 열린 나무숲에서 향스러운 냄새가 자꾸만 흘러내려 개울을 건너옵니다. 한여름에야 늦잠에서 깨어난 노박덩굴은 아직도 잎이 파아란 가지를 물위에 닿을락달락 드리우고 발밑에서 뛰노는 흰 물밥과 재미나게 놀고있습니다. 실로 붉은 색갈도 누른 색갈도 가지가지인 가을은 없는 빛같이

없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숲은 온갖 고운 옷을 떨쳐 입고 시원한 바람에 춤을 춥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다 지나가도록 제일 좋은 색깔을 아껴두었다가 가을이 되니 우리 학교앞산에 몽땅 뽐어올린것입니다.》

다 읽고난 병결은 저도 모르게 시무룩이 웃었다. 《어때요?》

은심이 묻는 말이었다.

《글쎄 그 애가 문장은 꽤 어물하게 만들군한다오.》

《수재에 가깝지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구 다른 생각은 나는게 없어요?》

《다른 생각이라니...》

은심은 조용히 그리고 뜻있게 웃어보이며 말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읽었는데 또 읽으라?)

하지만 병결은 은심의 말소리가 진정에 폭 젖어 있어 그랬던지 별로 무례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 작문에는 눈에 보이는것만 썼지 귀에 들리는것은 없지 않아요. 물소리도 들렸겠고 산새들의 지저귐도 있어야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제사 병결은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아닌게아니라 보이는것들이 방불한데 비해 들리는것은 전혀 없었다. 순간 우진이를 새롭게 안것이 놀라왔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것이 더욱 놀라왔다. 그는 소리나도록 책상이라도 치고싶은 마음이였다.

《그런데 은심 선생 !》

잠시후 병결은 자기 목소리를 남의 귀로 듣는듯이 느끼며 이렇게 불렀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동창생들 사이에 《선생》이란 말이 오가기까지는 학생티를 벗을것을 요구하는 성미검검한 교장들의 《잔소리》가 일정한 기간 있어야 한다. 물론 그때 리병결의 입에서는 어떻게 되어 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지만.

《보이는것에만 정신을 쏟다보면 다른것은 쓰지 못할수도 있지 않을가. 글쎄 난 글짓기교원이 아니오만 보이는것, 들리는것 다 적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소? 아마 작가라 해도 더러 빼놓을수 있을게요. 창차 그 애야...》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는것에 정신을 빼앗겨 그랬는지 잘 듣지 못하는지 원인이야 알고 지나야 하지 않아요? 더구나 새로 온 학생인데...》

어이없는 표정으로 병결을 쳐다보는 그의 눈길은 마치도 이건 응당한 일이 아니예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좌우간 그래서 어떻게 됐소?》

《큰일날뻔했어요.》

《?!》

《글쎄 들어보세요. 그 애의 글은 점수를 못매긴 채 교수안 책갈피에 끼워놓고 다른 일을 보자니 하루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 불렀지요. 개가 쓴 글을 책상우에 꺼내놓고 의문스럽던것을 물었는데 도무지 대답을 해줘야 말이지요. 나중에는 내 말이 잘 들리지 않는가고 안타깝게 소리쳤더니 그제사 눈물이 글썽해지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입을 벌리면 울음이 터져나올가봐 그러는지. 여러번 곱씹어 물었어야 전학오기 얼마전에 이천동 앞개울에서 미역을 감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다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 꾸지람을 들을가봐 어머니에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귀가 먹먹하더니 요즘은 웅웅 소리가 나면서 아파난다잖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그 길로 그 애 손목을 잡고 진료소로 뛰었지요. 의사가 진찰하고나서 하는 말이 더 늦게 왔더라면 아이를 귀머거리로 만들뻔했다는것이였어요. 아이 끄적스러워서... 치료는 간단히 끝났지만 그때 가슴이 떨리던 일을 생각하면 막... 그래서 지금도 그 작문을 건사해두고있어요.》

제가 하는 말의 어조에까지 온 넋을 송두리채 떠맡기는 그의 천진스러운 말소리는 자갈밭을 굴러가는 물소리 같았다. 그러나 병결은 뺨을 한개 철썩 얻어맞았을 때와 흡사한 기분이였다.

(아, 그렇게 된 일이였구나!)

그는 자기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가 두려웠다.

처녀는 무엇인가 더 말하고있었지만 가벼운 활동을 타고 정갈하게 흐르는 그의 이야기는 가느다란 소음처럼 병결의 귀전에서 멀어지고있었다. 박우진을 전학보내기 전날 교재원의 생울타리결에서 《귀머거리같다》고 놀림받던 일이며 문법교원이 자기에게 불만을 터놓던 일이 생각되어 몹시도 가슴아파났다.

이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최은심이 아니었다면 그 애는 틀림없이 불구가 되었을것이다!

하얀 민들레씨들이 식물세계의 락하산처럼 한가로이 날아지나가는 창문밖을 뚫없이 바라보고있었지만 몸에는 소름이 끼쳐왔다. 물론 학생이 강변에서 미역을 감다가 귀에 물이 들어간것을 교원이 제때에 발견못했다고 죄가 될수는 없으며 전학가야 할 아이를 지체없이 보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또 학생한테서 나타난 결함이 별로 크지 않을뿐더러 래일이면 보내야겠는데 그럴바에는 《싫은소리》를 할 필요없이 조용히 보내자는 생각으로 눈을 질끈 감고 전입학의퇴서를 떼준것은 리병결이만 아는 일이다. 그러나 한순간 랑심과 자그마한 에누리를 한것이 한해가 지난 오늘 이처럼 심신이 뒤흔들리는 가책으로 번져가리라고는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참, 생활에는 미묘한 일들이 많다. 가령 출석률이 낮거나 외모가 단정치 못하던지 혹은 업간체조 시간에 학생들이 줄을 잘 맞추지 못한다면 교장은 규율이 서지 못했다고 교원을 지적한다. 그러나 한 소년의 앞날을 망칠만한 나의 이런 파오는 남의 눈에 띄이지 않으며 또 그것을 처분할만한 규정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지 않는가. 최은심의 소행 역시 그렇다. 학생이 지은 글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것이 그가 할일이라고 해서 병신이 될만한 박우진을 구원한것은 그의 공적으로 되는가. 아니다. 그런 일은 하루도 순간도 쉽없이 이어져야 하는 정상적인 일이며 사람들이 《교원치고는 세심한 처녀》라고 단마디로 평가하는 그 말속에 포함되는 하나의 모래알에 불과한것이다. 그러고보면 교원이 하는 일중에서도 크고 중요한것들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바빠 눈코뜰새 없다고 하며 때로는 《번거롭다》고도 하는 보통날의 평범한 순간순간들이 학생들의 장래운명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며 흘러가는가!

부나비가 날아들어 옷설에 치닥거리는것을 털어버리느라고 파리채를 휘젓던 은심은 침통한 낫색을 한 리병결의 얼굴에 눈길에 미치자 의혹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기의 시선을 피해 병결이 고개를 외로 돌릴 때에야 은심은 스스럼없이 꺼낸 이야기가 그에게 던져준 아픔이 헤아려지면서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랐다. 자기의 《무분별》을 스스로 질책하듯 처녀의 얼굴은 새빨개지는것이였다.

리병결은 말없이 일어섰다. 우진이 한해동안에 몰라보게 달라진 의문이 풀리고도 남음이 있었던것이다.

목욕수에서 돌아온날 밤 병결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 사람이 한평생을 간직해야 할 생활신조가 시련도 있고 사변도 겪는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된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하나의 충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단번에 생기는 일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최은심과 헤어지면서 마음속에 저절로 든든히 자리잡은 확신이다.

교원의 가장 큰 불행은 학생들을 자기 사업의 대상으로 보기전에 먼저 인간으로 볼줄 아는 눈을 가지지 못한것이다. 학생들의 생활에서 나타난 빈구석을 무심한 눈길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 시간부터 빚어진 교원의 실수는 용서받을길 없다... 잊지말자, 종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학교의 일파속에서 명심하지 않으면 어느 한 순간에 저도 모르게 넘어설수 있는 위험계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때로부터 한달이 거의 되어올무렵에 쓴 일기는 좀 길었다.

7 월 3 일

(하루종일 비가 옵)

새로운 결심이 생기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생활은 그렇지도 않았다. 아무리 자그마한 결심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실천사이를 이어주는것은 자신을 통채로 바칠줄 아는 교원의 자기희생성이 아닐가.

이렇게 시작된 일기속의 사연인즉 다음과 같았다.

...비가 내려 질적해진 길바닥을 이리저리 골라디디며 합숙까지 온 병결은 현관에 들어서자 인기척소리가 나기에 발을 멈추었다.

(누굴가?)

합숙 식모아주머니가 드문드문 그의 방에 불을 지펴주곤했는데 요사이느 주방칸에 일손이 딸리다 보니 리병결이 손수 그 일을 했다. 오늘처럼 퇴근하자바람으로 몸을 녹이게 되었으니 어쨌든 고마운 일이었다. 감기에 걸려 아침부터 몸이 오슬오슬해나는것을 억지로 참으며 마지막수업까지 하고 오는 길이었던것이다.

《남의 집에 와서 착한 일을 하는게 누구요?》

익살스러운 말투와 함께 리병결이 문을 여니 부엌 아궁이옆에 앉아있던 박우진이 불쑥 일어섰다.

《네가 어떻게?》

우진은 못할짓을 하다가 들킨것처럼 괜히 머리를 긁적이는데 널름거리는 장작불빛이 솟검덩이가 빗스쳐지나간 그의 코날개를 비치고있었다. 그러잖아도 우진이란 보면 지난날에 있었던 일로 하여 미안한 생각부터 앞서는 병결이었다. 더우기 박우진은 오늘 오전수업이 끝난후 찌리골 막치기까지 20리 먼길을 갔다오지 않았는가. 며칠후 교재원에서 있을 《과학의 날》에 병결은 꿀벌들의 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봄에 산꿀을 받기 위해 놓아두었던 찌리골 벌통을 가지러 보냈던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자진해 나섰다. 봄에 빈 통을 놓을 때 자기가 따라가서 장소를 잘 알기때문에 제가 가야 한다고 한사코 우겼던것이다. 병결은 우진이를 책임지우고 두 학생을 덧붙여 셋이 가게 했다.

산비탈길을 한나절이나 걷느라고 피곤이 말이 아니겠는데 여기 와서 불까지 지펴놓았던말인가.

《이걸 잡썬보십시오. 다 익은것 같습니다.》

부엌이마우에 불속에서 끄집어낸 감자들을 주어들리며 박우진이 하는 말이었다.

《감자까지? 좌우간 가지고 올라오너라. 배도 출출한데 마침 잘됐다.》

그는 열이 나고 속이 메스메스하여 먹고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학생의 기분에 자그마한 그늘도 던져주고싶지 않았던것이다.

둘은 뜨끈한 아래목에 앉아 감자를 벗기였다.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벌통이 무겁지? 비에 젖기까지 해서 힘들었을게다.》

《...》

《꿀벌들의 생활에는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많지. 가령...》

《저어...》

아직도 오한이 내려가지 않아 턱을 덜덜 맞쫓으면서도 명랑한 분위기를 돋구어보려고 애쓰는 병걸의 말허리를 끊으며 우진이 말했다.

《오늘 짜리풀에 못갔습니다.》

《그래?》

《음에까지 가니 비가 너무 오는바람에... 그래서 제가 동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래일 비가 멎으면 가자고.》

《음. 정말 비가 많이 왔지.》

감자를 한입 베어먹으며 그는 말했다.

《래일 무더기비가 오면 어쩐다?》

잠시후 혼자말처럼 외우는 그의 말소리는 물음인지 걱정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긴 후날에 가도 일은 없지, 아직은 날자가 며칠 있으니까.)

묵묵히 앉아있던 그는 마주앉은 학생의 모가 난 이마와 몽툯한 턱에 눈길이 미치는 순간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아니야. 소년단베타이를 풀지 1년이 되어오는데 아직 아이들 취급을 하다니 청년대접을 떳떳이 받아야 할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있담.

《마음을 꼭 놓으십시오. 래일은 일요일이니까 시간도 넉넉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합니다.》

병걸은 마침내 자기가 말할 차례임을, 제자앞에서 두번다시 자기의 량심과 흥정하지 말아야 할 순간임을 깨달았다.

《글쎄 하는건 하는거구...》

이렇게 입을 뻗으나 다음 말이 선풍 이어지지 않았다. 물론 그때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풀어놓았더라면 병걸은 아마 다음과 같이 말했을것이다.

《그래 제가 하겠다구 앞장서구선 비가 온다고 해서 그만두자고 동무들을 돌려보내도 일없단말이지. 단 두사람이 약속한 일도 여기면 낮이 짝이우는 노릇인데 항차 이거야 전체 학급 동무들의 눈앞에서 하겠다고 나선 일이 아닌가. 시퍼런 대낮에... 조직과 집단을 존엄있게 대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거든. 흥정도 할일 따로 있는것이지.》라고.

하지만 그는 보다 정중하고 뜨거운 말을 찾고싶었다. 이 시각 자기의 마음이 한치 흔들리면 학생한테 생겨나는 결함의 저 썩이 한해가 지난 다음 어떤 모양으로 번져갈지 모른다는 위구심이 가슴을 파고들어 그랬는지 아니면 최은심이와 같은 성실한 동무들에게 아픔이 번 일감을 들썩은 가슴아픈 지난 일이 지금따라 더더욱 마음을 괴롭히기때문이었는지...

《자기가 결심한 일이라고 해서 제가 변경시켜도 일없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대중과 약속한건 자기 자신도 담임교원인 나도...》

리병걸은 뭔가 절절한 소원만이 한가득 자라올라 말끝을 삼켜버렸다. 어둠이 가린 창문에 부나비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이따금 들렸다.

이윽도록 고개를 숙이고있던 우진이 말없이 일어서는것을 보자 병걸은 측은한 마음이 앞서며 그 어떤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싶었다.

《오늘밤 집에 가서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보라구.》

저으기 목소리를 낮춘 리병걸이 이렇게 말하며 그를 바래우려 밖에 나가니 멎은듯하던 비가 다시 퍼붓기 시작했다. 병걸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와 비옷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박우진은 이미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우진이 !》하고 따라가며 불렀으나 땅바닥을 두들겨패는 비소리만 요란할뿐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등골이 으시시 떨리는것을 느끼며 그는 호실로 들어왔다. 감기약을 먹고 자리에 누웠던 그는 앞뒤산을 들었다놓는 폭음같은 우뢰가 터지자 무엇에 끌리듯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펴듯 비치는 번개와 함께 머리속을 때리는 예감이 있었던것이다.

(혹시 이애가 모진 마음을 먹고 짜리풀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을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온 그는 짜리풀로 가는 지름길을 향해 장달음을 놓았다. 번개가 번쩍일며 갑자기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지는 순간 아닐세라 사طم치는 물결이 모서리를 치는 통나무다리를 건너가는 박우진의 모습이 보였다. 비에 흠뻑 젖어 옷이 몸에 착 달라붙은 그를 먹물같은 어둠이 다시 삼켜버린 강변을 향해 병걸은 뛰었다.

(내가 확실히 너무했군.)

강을 건너 가득나무들이 빼곡한 바위굽이까지 갔을 때에야 그는 박우진을 따라잡았다. 부르면 들릴 가까운 거리였다. 몇걸음 더 따라가던 그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며 우진이를 향해 소리치려 했다. 그러나 목구멍에 무엇이 막힌듯 말이 나가주지를 않았다. 그때에야 병걸은 그를 돌려세울수 있는 말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았다. 폭우속을 뚫고 무인지경 밤길을 헤쳐갈 용단을 내리고 오연하게 걸어가는 그가 장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나의 손으로 소년단베타이를 풀어주며 소년단시절과 작별시킨 제자이다. 청춘시절이 시작되는 지금, 그의 성격이 생겨나고있는 이 시각에 귀중한 저 기질과 량심을 지켜주며 이 밤길을 걸어야 할 사람도 다름아닌 나 자신이다 !

흙도랑에 씻기운 길옆에서 비릿한 풀냄새가 폐부를 자극하는 순간 병걸은 또다시 몸이 와들와들 떨리며 골이 질끈질끈 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몸이 견뎌낼까? 쓰러지면 그처럼 머쓱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산등성이우에 불빛이 나타났다. 때아닌 전지불은 창살같은 비발을 비치며 마주오고있었다. 가방

을 멘우에 큼직한 고무비옷을 입은 사람의 불룩하게 뻗어진 옆구리까지 가려볼수 있는 거리였다.

《아니 이게 뉘기요. 병결선생 아니요!》

우편통신원이 먼저 알아보며 말했다.

《아바이가 어떻게 밤길을...》

《지금 병결선생을 찾아가는중일세.》

《나를말입니까?》

《반가운 소식이요. 영웅한테서 전보가 날아왔소 그려.》

《예 ?》

로인은 번들거리는 고무비옷을 헤치더니 가방속에서 전보를 꺼냈다.

《자, 옛네.》

그는 병결이와 나란히 서며 종이장우에 전지불을 비치였다.

《이천동고등중학교 리병결선생님 앞.》

선생님이 보내준 축하편지를 반갑게 받았음. 제가 영웅이 된것은 당과 수령님의 은덕이 있었기때문이었음. 서해갑문에서 제자 박우협》

병결은 며칠전 그가 영웅으로 되었다는것을 처음 알았을 때처럼 몽클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역시 영웅은 영웅이로군!)

팔소매에 떨어지는 비발이 전보용지에 튕기기 시작하자 병결은 천천히 그것을 접었다.

《래일아침에 넘어오셔도 될걸 밤길에 수고스레...》

《무슨 소릴. 밤을 채워 가져와서야 전보라 할터시 있나.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는 재미에 오늘까지 이 늬음을 그만두지 못하는 모양일세. 허허 가만, 그런데 이게 뉘기야!》

그는 우진이쪽에 전지불을 비쳤다. 이마에 젖은 머리가 찰짝 달라붙은 우진의 얼굴에는 비물인지 눈물인지 잘잘 흘러내리고있었다.

《그 집 둘째가 아닌가. 이 녀석, 네 형은 영웅이 됐는데 넌 무슨 재구를 쳐서 선생 수골 끼치느냐. 이 작은 영웅아!》

로인은 우진의 어깨를 철썩 같기고나서 저벅저벅 오솔길을 내렸다.

그제서야 병결은 언제 다가왔는지 자기옆에 우두커니 서있는 우진이를 발견하고 손에 쥐고있던 비옷을 서둘러 그의 어깨우에 씌워주었다.

집에서는 이미 만아들 소식으로 경사스런 시간들을 보내고있겠는데 둘째아들 우진이는 비오는 밤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이 길은 가야 할 길이다! 이 비도 맞아야 할 비이며 이 어둠 역시 헤쳐야 할 어둠이고. 먼 후날 둘째 아들 우진이한테서 또 이런 경사스러운 소식이 날아올 시간도 이 길과 잇닿아있을지 모른다.

《선생님!》

박우진이 울먹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돌아가보십시오. 혼자 가겠습니다.》

《혼자서?》

등성이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병결은 되물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장하다, 우진이! 그러나 그건 그렇게 말하는게 아니야. 너와 함께라면 난 이 밤을 짜리풀에 열두번 잤다와도 쓰러지지 않을것이다.》라고 밀하고싶었다.

이윽고 비가 멎기 시작하며 하늘 한쪽귀퉁이가 은록색으로 열리고있었다.

《저어기를 보아라.》

먼 산발들너머 짜리풀 막치기의 이깔나무숲엔 벌써 하얀 달빛이 쏟아져내리였다.

《그리고 물김이 피어나는 저기, 하늘과 맞닿은 저 등판이 바로 옥계수 뒤덕이란다.》

별찌 하나가 긴 사선을 그으며 미끄러져내리는 먼 수림을 병결은 가리켰다.

저 수림밀의 계곡에 벽계수 흐르고 거기엔 최은심이 사는 마을이 있다. 최은심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교재원결의 자그마한 도서관엔 지금도 불이 켜져있을가?

그지없이 뜨겁고 신성한 숨결로 하늘과 땅사이의 온 공간을 한가득 채우려는듯 시야에 가득찬 옥계수등판엔 희디흰 물안개가 씩없이 서려나고있었다.

잠시 걸음을 멈춘 그는 자기가 지금 값있고 귀중한 시간의 흐름속에 있음을 새삼스레 느꼈다.

리병결은 교장선생이 한시간을 3천 6백초라고 하던 그 말이 과연 정확한가 하는 의혹이 문득 들었다. 지금 학생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은 흘러가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이 시각 어린 저 가슴에 생겨나는 사색과 감정은 해가 가고 달이 바뀌면서 그의 기질과 함께 자라며 커갈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언제인가는 기쁜 소식이 되어 다시 돌아오고...

나에게는 이런 제자들이 많다. 그러니 나의 한시간은 3천 6백시간이 될수도 있는것이 아닐가. 교원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제는 척도가 다르다. 아니 달라야만 하며 갈아서는 안된다.

병결은 저도 모르게 전보를 접어넣은 왼쪽 옷주머니를 손으로 눌러보았다.

낮에 드리운 구름과 함께 달그림자가 마을쪽으로 멀어져가면서 눈이 부시도록 밝은 달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풀숲에서 문득 《부시력》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야. 그건 갑자기 나타난 달빛에 찍워란놈이 놀라 부산을 피우는 소리야.》

미풍이 불어오자 나무숲은 가벼운 숨결로 뒤채기였다.

숲도 자라고 미래도 자라고 교원의 긍지도 자라는 좋은 밤이였다.

묘향산을 노래한 《향산별곡》의 사상예술적 특성

윤재극

조선의 명산 묘향산은 오늘 우리 당의 은혜로운 해발아래 향기그윽하고 청신한 자태를 빛내이며 끝없는 시가의 선물을 안고 높이 솟아 세상에 자랑 떨치고있다.

예로부터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묘향산이었으나 억압과 착취의 검은 구름에 휘감겼던 지난날에는 수려한 제 모습을 참되게 드러낼수 없었다. 그러니 어찌 시가유산인들 남길수 있었겠는가.

묘향산을 노래한 가사체시가유산으로써는 두편의 《향산별곡》만이 전해지고있을뿐이다. 그 하나는 백광홍(1522~?)의 작품으로 알려지고있으며 다른 하나는 그후시기 김현중의 작품으로 되고있다.

백광홍의 《향산별곡》은 《기성별곡》과 함께 《관서별곡》이라고 전해지고있다.

백광홍의 《향산별곡》은 16세기중엽 절승 묘향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민족적 정서와 결합하여 노래한 우리 나라 첫 기행가사로서 중세시기 가사에 중요한 자취를 남기었다.

백광홍의 《향산별곡》의 작자문제에 대하여 다른 설이 있으나 이에 대한 견해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초기기행가사로서의 구성형식

백광홍의 《향산별곡》은 전구, 후구를 대응적 조직으로 하는 326 구에 1 구를 더하여 총 327 구로 이루어진 장편가사이다.

이 가사는 내용상으로 볼 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부분에서는 약산동대로부터 138리 묘향산을 찾아가기까지의 로정을 노래하고있으며 다음부분은 묘향산 일대에 대한 답사유람로정을 노래하였다. 이 가사는 3 일간의 묘향산유람로정을 그대로 줄거리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기행가사적 구성체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이러한 줄거리에 아름다운 산수풍경묘사, 생활묘사, 서정로정을 결합하고 고사전설들을 삽입하여 인민의 사랑속에 역사적 자취를 안고 향기를 풍기는 묘향산을 비교적 선명하게 노래하였다.

가사의 음수율은 기본적으로 3. 4/3. 4 조를 이루고있다. 이와 같은 음수율조직형식은 《상춘곡》의 경우와 유사한것으로서 가사체시가 발생발전

초시기의 특성을 보여주는것이라 할수 있다. 가사체시가발전의 말기에 가까와질수록 음수율조직은 점차 3. 4/4. 4 조의 추세를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전후구의 대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톨조의 전폭이 똑같은 반복으로부터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려는 정서적 요구에 기인하는것이라 할수 있다.

이와 같이 백광홍의 《향산별곡》은 초기기행가사로서의 구성적 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진보성과 보수성이 배색된 사상적 특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과거의 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과 낡고 반동적인것을 옳게 갈라내여 낡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은 살려야 합니다.》

이 작품에 표현된 중요한 사상감정은 민족적 긍지와 조국산천에 대한 애착,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 배불감정, 민족적 생활정서 등이다.

이러한 진보적 사상감정은 보수적 사상과 결합되고있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 작품에 반영된 사상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긍지와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중대를 게오넘어

단군대에 올라가니

복지한 일천봉이

대아래 조회하고

상고의 흰구름이

봉우회 절로난다

향나모 등결아래

신인을 뉘라덴고

동방의 첫인군이

이아니 성인인가

넛말이 창망하니

늘더러 몰알노니

여기서는 단군대에 올라 고조선시조에 대한 전설을 궁지높이 음미하면서 당시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볼길 없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고조선의 창건자를 동방의 성인으로 당당히 내세운것은 당시로서 민족적 궁지감의 일단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 궁지감은 조국애와 결합되어 표현되고있다.

작품에서 서산대사가 짚고다니던 지평이와 사명당이 입던 가사에 대하여 그들이 임진조국전쟁시기 의병을 무어 싸운 공적과 결부하여 《백세의 보배》라고 노래하였는바 여기서는 중들까지 침략자 왜적을 무찌르는 싸움에 나섰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시인의 애국적 감정을 엿볼수 있다. 물론 고승들을 찬양하는 립장을 간파할수 없지만 이 승려들의 불교적 《공적》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한것이 없고 오직 조국수호와 관련한 공적만을 노래한 점에 류의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시인의 민족적 궁지감과 조국애는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자랑차게 노래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시인은 아득한 다리를 기여올라 인호대에서 바라보이는 세 폭포를 노래하였다. 하늘의 은하수가 세길로 내려오니 산주폭포 내리는 물 구슬을 헤치는듯, 룡연폭포 깊은 소에 늙은 룡이 잠겼는듯, 높고높은 천신폭포는 하늘밖의 소리로다 라고 표현한 시인은 고려적에 서역에서 온 중이 절터를 잡으려는데 범이 이곳으로 인도하여왔다는 전설까지 적절히 결부함으로써 묘향산의 절경을 부각하였다.

조국의 일목일초에 대한 애착과 자랑은 애국적 감정의 발현이다. 자기 조국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외국의 초원, 한그루 나무에도 큰 호기심을 가지며 거기서 그 어떤 미를 발견하려 열빠진 짓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 작품에서 조국산천에 대한 자랑찬 묘사는 시인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실증하는것이라 할수 있다. 조선의 명산 묘향산절경을 처음으로 가사체국어시가로 궁지높이 노래한 바로 여기에 시인의 애국적 감정이 있으며 이 작품의 사상예술적 진가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간직한 조국애는 계급적 및 사회력사적 제한성으로 하여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만폭동묘사에서만도 쉽게 찾아볼수 있다. 만폭동을 장쾌하게 노래하려는 지향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적 필치로 하여 그 얼마나 손상을 입었는가. 시인은 중세전쟁사에서 외국의 장군들을

릉가하는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리순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쓰게 되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시인의 사상적 약점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이런 경향은 리조시기 사대주의적 문인들에게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경향이였다.

살수대첩이나 구주대첩과 같은 장쾌한 장면과 결부시켰더라면 만폭동의 광경이 얼마나 높이 부각되었겠는가, 아쉬운 감을 금할수 없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이밖에도 보현사 십이층탑의 조각에 대하여 《곤륜산 흰 옥돌에 극락세계 새겼는가》라고 표현한것이라든지, 보현사 대웅전의 은계를 열고 옛 자취를 가늠하면서 외국의 시인이 쓴 《불골표》(부처의 뼈에 대한 전설을 믿는 현종황제에게 그 허황성을 설교한 글)를 끌어다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것 등은 큰 나라의것이면 어느것이나 무조건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나라의 좋은것이나 자기의 옳은 주장도 남의것을 자로 하여 평가하고 설득시키려는 봉건문인의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온것이다. 이와 같이 작품은 민족적 궁지와 조국애의 감정을 가지고 묘향산을 노래하였으나 시인의 사상적 약점으로 하여 여러 대목에서 손상을 입고있는것이다. 시인의 사상체계에서의 진보성과 보수성은 모순성을 조건지였다.

작품에 반영된 중요한 사상은 다음으로 애민의 감정이다. 시인은 천만겹 구름 깬 산들이 갈길을 막는 산비탈에서 목이 쉬도록 소를 물며 화전을 일구는 고달프고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에 무관심하지 않았다. 시인은 봉건통치배들의 억압착취를 피하여 두메산골에 와서 자리잡았으나 모진 착취의 울가미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화전농의 기막힌 정상에 대하여 뜨거운 동정심을 가지고 노래하였다.

작품에서는 첩첩산중 화전농민들이 소를 꾸짖는 소리, 절벽나무끝에 메아리치도록 악을 쓰며 허구한 날 일을 해도 판세로 다 빼앗기고 초근목피로 연명해가지 않으면 안되는 기막힌 정상을 보게 된다.

화전농의 생활상과 그들에 대한 동정을 표현한것은 가사체시가의 사상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것이였다고 할수 있다. 중세가사체시가를 통털어 화전농의 생활을 보여준것은 오직 이 작품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봉건량반계급의 사상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진보적인 측면의 반

영일따름이다. 시인의 사상체계에서의 이중성은 최하층 근로인민들의 생활을 진정으로 인민적 립장에서 옳게 볼수 없게 하였다.

그것은 시인이 월령강에서 쪽배우에 서있는 사립 쓴 사공에 대하여 창파의 노래속에 한생 근심할 일이 없다고 노래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물론 정치좋은곳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한것이라 하더라도 일면적인 측면인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 온갖 수모와 위험 속에서 고된 로동에 시달리는 배사공의 한생이 어찌 마음 편할 때가 있었겠는가. 여기서 시인의 애민사상의 제한성이 해부되는것이다.

이 작품에 반영된 중요한 사상의 다른 하나는 배불감정이다. 시인은 은폐속에 보관된 석가여래의 어금이모조품을 보고 외국시인의 《불골표》에 지적된 썩은 뼈가 이 아닌가, 부처가 령협하다 한들 뼈조차 거룩하겠는가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시인은 또한 내원암에서 부른 노래에서도 《석가여래 사리탑은 옛자취 의심된다》하고 회의적 립장을 명백히 하고있다.

시인에게서 부처의 《공덕》을 높이 칭송하거나 그 앞에서 명복을 비는것과 같은 로골적인 행위를 찾아볼수 없으며 사원내부와 중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대체로 객관적 묘사를 주고있다. 이러한 배불감정의 표현은 세조의 호불정책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고 중종시기에 배불기운이 되살아나던 시대상을 보여주는것이며 불교를 이단시하던 유교문인들의 일반적 자세의 반영으로 볼수 있는것이다.

중세가사체시가중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이러한 배불감정은 그후시기 가사작품에 이어진 자취를 보여준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도 모순성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불교적 관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표현에서 찾아볼수 있다. 일백팔개 넘주를 건 점잖은 로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소리높이 넘불 외자 열네방 모든 중이 차례로 모여오니 엄숙한 그 모양진실로 위엄있고 손님을 대하는 례절도 정제하다고 노래한데서 객관적 묘사의 한계를 벗어나 중들의 거동에 대하여 일정한 찬양과 감동을 표현하고있음을 간취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관념은 《의관을 정

히 하고 대응전에 나아가니》라고 부처앞에 몸가짐 바로하는 시인의 자세에서도 드러나고있다.

이러한 점들로 보면 시인의 배불사상감정은 철저하지 못한 모순성을 내포한것임을 쉽게 리해할수 있다.

이 작품에 반영된 사상에서 또한 특징적인것은 민족적 생활정서와 량반들의 생활정취가 어우러져 표현된것이다. 이 작품은 초기 가사체시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민족적 생활정서를 어느 정도나마 표현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닭울음 개짖는 소리》도 들리고 《두 암소 한쟁기에 치갈고 내리 갈아》 근면하게 농사 짓는 산골 농민의 모습도 보인다. 또한 《수양버들 휘늘어진 긴 십리길에 또렷이 드러나는 길손의 모습》도 보이고 《쪽배우에 서있는 사립 쓴 저 사공》의 모습도 안겨온다. 한편 우리 인민의 민족적 슬기와 피땀이 스민 만세루와 같은 화려한 건축물도 선명히 안겨온다.

소박한것이기는 하나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관찰로부터 흘러나온 민족적 정서는 당시 시가문학실태를 놓고볼 때 귀중한것이였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생활정서는 뜨거운 혼향으로 풍겨나오지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손상을 입었는바 이것은 량반계급의 울타리를 넘어설수 없었던 시인의 관점과 립장에 기인하는것이다.

시인은 량반으로서 봄날의 명승유람길을 나서는것이며 술에 취한채 짚신을 신고 대지땡이 짚으며 한참 걸어보기도 하고 한필말을 채찍질하여 내달리기도 하며 가마를 길이 몰아 벽화동에 이르고 의관을 정히 하고 대응전에 나아가기도 하는것이다. 시인의 이러한 생활정취는 당대 근로인민의 생활과 대치되는것이며 량반계급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당시 민족적 생활정서의 일단을 귀히 여기는 반면에 량반들의 생활정취에 대하여 불쾌한 오물로 치부하게 되는것이다.

진보성과 보수성이 배색된 《향산별곡》의 사상적 특성은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의 호상관계에 대한 주체적 문예리론의 정당성을 반증하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언어표현, 묘사에서의 특성

《향산별곡》에 반영된 시인의 사상은 언어표현, 묘사에서의 진보성과 보수성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이 작품의 언어구사에서 진보성은 어느 정도 통속성을 보장하고있는데 있다. 그것은 당시 가사체 시가에 일반적으로 끼여들었던 한자 4 자구를 거의 나 쓰지 않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고적, 명소들인 고유명사들을 제외하면 절대다수가 일반어휘로 되고있다. 이것은 가사언어의 통속성보장에서 그후시기 창작에 경험을 보여준 진보적 측면이다. 이 작품의 언어에서 긍정적 특성은 또한 비유와 과장의 수법, 형용어들도 일정하게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는데 있다.

《평광봉, 탁지봉은 창검을 묶었는데》, 《꽃향내 시내소리 십리에 한빛이라》, 《일천길 쇠사슬이 절벽에 걸려있다》, 《백적의 나는 물이 거꾸로 솟을적에 만마가 함께 달려 구렁이 섞어치니》, 《금모래 옥바위에 수정렴 걸렸는데》 등과 같은 비유와 과장, 형용어들은 표현형상적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이러한 언어표현들은 《상춘곡》이나 《목동문답가》 등과 대비할 때 일보전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향산별곡》의 언어는 그후시기 가사체시가언어에 진보적 영향을 미친것이였으나 보수성을 답습한 흔적이 또한 뚜렷하다. 작품에는 석경, 망혜와 죽장, 주자 만정한 화절, 태청, 경물, 소재할사, 만락, 용성 등의 낱은 투의 한자어휘와 《한문공 불골표》, 《향우의 삼만정곡》, 《한신의 이천홍곡》 등의 고사어휘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량반선비들의 상투적인 낱은 언어행위의 자취가 력력하다.

언어구사에서의 이러한 보수성은 향기롭고 청신한 묘향산서경에 곱광내나는 검은 먹물을 점점이 뿌려놓는 결과를 빚어낸것이다. 시인의 사상체계에서의 진보성과 보수성은 이와 같이 가사의 내용과 형식전반에 긍정점과 약점을 그대로 수놓았다.

묘향산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자기의 자태를 시가작품에 빛나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400 여년이라는 풍파사나운 기나긴 세월의 고비를 넘어서야만 하였던것이다.

* * *

백광홍의 《향산별곡》은 초기기행가사로서 그리고 절승 묘향산을 노래한 첫 가사로서 우리 나라 국어시가발전사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작품은 묘향산기행로정을 구성체제로 하여 풍물과 인간생활을 비교적 선명하게 묘사하면서 시인의 내부적 체험을 결합시킴으로써 서사성과 서정성을 체현한 기행가사의 양식적 특성을 뚜렷이 하고있다.

백광홍의 《향산별곡》은 정철의 《관동별곡》과 함께 천하절승 묘향산과 금강산을 노래한 초기 기행가사의 풍격을 과시하였는바 근로인민의 생활 묘사와 민족적 생활정서를 반영한 점에서 후자에 비하여 앞선다고 볼수 있으며 민족적 긍지감의 반영과 서경묘사수준에서 후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수 있다. 이 작품의 창작경험은 그후시기 김현중의 가사 《향산별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고 나아가서는 운문소설과 묘향산에 관한 기행문창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수 있다.

백광홍의 《향산별곡》은 또한 16 세기 중하반기의 묘향산 등산로정과 거기에 깃든 고사, 전설 그리고 그 고장 화전농생활의 일단을 보여주는 인식적 의의를 가지며 당해시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묘향산풍경에 대한 애착감과 배불감정, 민족적 정서를 북돋아주는데 일정하게 이바지한 력사주의적 견지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산별곡》은 또한 자연서경묘사에 치중하던 발생기의 가사작품과는 달리 산수풍경과 함께 생활묘사, 물체묘사 등을 결합시킴으로써 가사창작에서 사실주의적 경향성을 강화하고 언어구사에서 일정하게 통속성을 보장한 형상적 의의도 간직하고있다.

백광홍의 《향산별곡》은 이러한 진보적 의의를 가지면서 동시에 일련의 제한성을 내포하고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시인의 사회계급적 및 력사적 제한성으로 하여 작품에 반영된 애민의 사상은 인민적 립장에서 뜨겁게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보수적이고 사대주의적인 관점으로 하여 향기롭고 청신한 묘향산풍경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물들여졌다. 백광홍의 《향산별곡》은 이러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상예술적 특성에서 본바와 같은 긍정적 측면들로 하여 가사체시가발전사에서 정철의 《관동별곡》과 함께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하고있다.

우리는 《향산별곡》을 비롯한 고전시가들의 창작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시가창작을 위하여 보다 큰 창조적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것이다.

두터운 우정속에서 나눈 이야기

김원복

지난 12 월 문예출판사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김영준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길림성 《장백산》 잡지사(조선문)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지난날 형제적중국인민과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서 영원히 중국인민과 함께 나아갈것입니다.》

문예출판사 일군들은 중국 길림성 《장백산》 잡지사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좌담회는 력사적으로 깊이 뿌리내려지고 아름답게 꽃피여난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기 자: 추운 겨울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서로 상봉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나는 문예출판사 기자, 편집원들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김영준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장백산》 잡지사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인상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준: (중국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장백산》 잡지사 고문)

우리 《장백산》 잡지사 대표단은 문예출판사의 초청을 받고 조선을 방문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나를 제외한 우리의 다른 동무들은 조선방문이 이번 처음입니다.

나는 1986 년에 《조선어문고찰단》을 인솔하고 조선의 량강도와 함경북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온것은 나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쁘고 인상이 깊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방문한지도 며칠이 되었습니다. 방문과정에 우리가 받은 첫인상은 중조친선입니다. 우리 중조 량국인민은 지난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어깨를 같이하고 피도 같이 흘리면서 가렬 처절한 싸움을 진행하여왔습니다.

1950 년대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에 나와서 공동의 원수 미제침략자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중국의 당과 인민은 피로써 맺어진 이 친선단결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열렬한 접대와 환대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치 자기 집에 온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인상입니다.

두번째로 인상깊은것은 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속도가 대단히 빠른것입니다. 조선은 지난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기전에도 통신, 보도를 통해서 조선의 건설에 대하여 많이 알고있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실지 와보니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평양은 아름다운 현대도시입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시원하게 뻗은 거리들 그리고 문화설비들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특히 주체사상탑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인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것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간단한 실례를 들었을뿐입니다.

우리가 조선에 와서 세번째로 받은 인상은 문화와 교육에 대한 발전이 대단한것이였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소년궁전 그리고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했습니다. 참관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에서는 전인민적인 교육을 중시하고있다는것을 깊이 느끼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실천을 잘 결합시키고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실습 공장과 농장을 가지고있었고 학생소년궁전에도 그와 같은 설비들이 갖추어져있었습니다.

특히 학생소년궁전에서 재봉수예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문화적 소양이 매우 높으며 문명과 레절을 잘 지키는 재능있는 인민이라는것을 말해줍니다. 조선인민은 정말 문화적 수양이 높고 규율이 있는 인민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관을 통해 받은 네번째 인상은 조선의 북과 남의 통일문제입니다. 중국에서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께서와 조선로동당이 조국통일을 위해 많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우리는 인민군대와 미군이 맞서있는것을 목격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한시도 미룰수 없는 매우 절박한 문제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조선이 통일되자면 남조선에서 미군이 반드시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세의 간섭이 없어야만 조선의 통일이 빨리 이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의 자주적 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여기에는 추호의 동요도 없습니다.

기 자: 좋은 말씀을 해주어 감사합니다.

중국의 벗들이 중국공산당 제 13 차대회 결정판철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푸지범: (부단장, 길림성작가협회 서기처 서기)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 당 제 13 차대회 결정을 판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13 차대회의 기본로선은 4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는것입니다.

기 자: 우리도 중국공산당 제 13 차대회의 내용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의 《로동신문》에도 그에 대한 보도가 실렸으니까요!

우리는 중국공산당 제 13 차대회가 내놓은 기본로선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리라고 믿습니다.

푸지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은 형제적 이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급적 우애와 친선단결의 기초 위에서 앞으로 래왕이 더욱 왕성해질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들의 조선방문도 이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조선을 방문하여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기 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잡지 《장백산》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잡지 《장백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영전 (부단장, 《장백산》 잡지사 사장)

우리 잡지 《장백산》은 1980 년 5 월 당시 통화지구에서 창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년에 한호씩 내던것인데 지금은 걸월간문학잡지로서 176 페이지로 발행됩니다. 한호에 약 30 만자가 편집됩니다.

잡지 《장백산》은 중국작가협회 길림성분회 기관지로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배포되고있으며 국외에까지 내보내고있습니다.

우리 잡지에다 등소평동지를 비롯하여 이름있는 인사들과 작가들이 제사(제목글)를 써보내주었습니다.

잡지에는 장편, 중편, 단편 소설들과 시, 수필, 산문, 실화문학, 항일전쟁이야기, 민간문학, 문학평론, 옛말, 번역작품들이 편집됩니다. 우리 잡지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잡지를 통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문학운동을 맹렬히 벌립니다. 우리 잡지사에는 이름있는 편집일군들과 문학평론가들이 많습니다.

기 자: 이번에 문학잡지 《장백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잡지 《조선문학》과 잡지 《장백산》사이의 친선적인 련계가 더욱 밀접해지리라 믿습니다.

남영전: 이번에 우리 대표단은 문예출판사의 초청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잡지 《조선문학》의 초청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런것만큼 대표단 구성에서부터 유관부문에서 상당한 관심속에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당과 정부기관에서 일하고있는 지도일군들과 이름있는 편집일군들로 무어졌습니다. 그것은 길림성 당과 정부에서 조선 문예출판사의 초청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그 반향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래왕이 빈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잡지 《조선문학》과 잡지 《장백산》을 서로 교환하며 작품도 서로 교류하여 출판하였으면 합니다.

기 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지 및 작품의 교류와 대표단들의 래왕은 우리 두 나라의 문학운동과 두 나라 인민간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리라고 인정합니다.

좌담회가 끝난 다음 대표단은 문예출판사 일군들과 문학작품편집출판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들을 호상 나누었으며 앞으로 잡지 《조선문학》과 잡지 《장백산》사이에 필요한 초청과 래왕을 실현하며 공동출판사업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들을 진행하였다.

나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중국) 남영전

피바다에 잠기었던
채더미로 되었던
지난날의 흔적을 찾아볼수 없는 거리
새로 일떠선 평양거리를 따라 걸으며
나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어렸을 때 나의 곁을 떠나신 아버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은줄 알면서도
나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 꿈에도 그리운 아버지
가는곳마다에서 문득 뵈울듯합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친 소년궁전에서
쟁쟁한 글소리에 이끌리어
가야금소리에 이끌리어
이방 저방으로 걸음을 옮기면서도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 아이들을 귀여워하시던 아버지
아버지도 이런 방에서 나와 함께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나는 꽃봉오리들을 보시던
얼마나 기뻐 웃으시겠나이까

유서깊은 모란봉 기슭에
우뚝 솟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현대화된 강의실을 돌아보면서도
나는 또 아버지를 그리웁니다
아, 서당의 글소리 옛들은탓으로
지주놈한테 따귀까지 맞은 아버지
이곳에 와 보신다면
지난날의 이야기를 또 하시며
한생의 소원이 다 풀린다고 기뻐하실 아버지

황홀한 꿈세계로 들어서는데
지하철도의 다정한 려객들속에 끼워
대륙의 벽화를 감상하는 손님들속에 끼워
달리는 지하철차안에서도
나는 또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 늘쌍 짐수레를 끌며
락을 모르신 아버지
아버지 늘쌍 이야기하시던 전설이
현실로 된 이 땅에서
나날이 짧아진대 말씀하실 아버지

사람들이 즐겨찾는 창광원에서
아버지는 미제의 파편이 남긴 상처자리와
신경통을 때시려 한증탕에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아니면 국제수영경기 한창인
저 관람석에 함께 앉으시면
내 마음 얼마나 기쁘겠나이까

주체사상탑을 우러르며
개선문을 바라보며
나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찾는곳마다 희망에 들끓는 얼굴이고
가는곳마다 속도전으로 달리는 모습이건만
오직 아버지만은
어이하여 뵈울길 없습니까

꽃밭을 이룬 산마루
금빛을 뿌리는 우의탑에서
나는 끝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새로 일떠선 조선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짓고계시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나 아버지는 눈을 감으시지 못하셨습니다
한것은 저 먼곳의 분계선때문입니다
생을 바쳐 나섰던 그날의 전호가로
공동의 원쑤를 무찌르던 그날의 냇으로
이 아들을 부르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곁에서 울음을 삼키고
두손을 움켜잡니다
아, 우리가 있습니다
피로 엉켜진 중조 두 나라의
아들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곳에서
조선을 찾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한몸 바칠 맹세도 새롭게 다지며
그립던 아버지곁에 나란히 서봅니다

※ 필자는 중국 길림성 《장백산》(조선문)잡지사 사장이며 주필로서 조선방문기간에 이 시를 창작하였다. 필자의 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발 파 소 리

권국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합니다.》

며칠전 내가 관문점을 참관하고있을 때였다.

군사분계선 남쪽 가까이에서 갑자기 《쿵-쿵》하는 폭음이 땅속깊이에서 울리었다. 그바람에 관문각의 유리창문이 사시나무 떨듯하였고 무성한 나무가지에 깃을 펴고있던 참새가 재잘거리며 무리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갔다. 관문점의 모든것을 땅속으로 삼켜버릴것 같은 그 소리에 해설하는 안내원의 입만 지켜보고있던 나는 가슴속에서 금시 그 무엇인가 뭉쳐 내려앉는것을 느끼었다.

긴장으로 하여 얼굴이 붉어진 나는 안내원에게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나의 사색된 표정과 달리 동그스름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여기서 얼마 안되는 군사분계선 적측지역에서 놈들이 땅굴을 파는 발파소립니다.》

낮으나 태연하게 말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는 이미 그런 소리에 쩌 익숙되었음을 읽을수 있었다.

안내원이 동강난 해설을 다시 이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또다시 《꾸르릉, 꾸르릉》하는 소리가 개성쪽에서 메아리되어 울려와 주위를 엄엄하게 만들었다. 불안이 채 가지지 않은속에서 들은 소리였으나 방금전의것과 좀 달랐다.

안내원은 나의 번거로운 심정을 헤아려서인지 아니면 의문이 서린 눈에서 그 무엇을 찾았는지 묻지도 않았으나 변함없는 어조로 말했다.

《화강석공장에서 사회주의 대건설장에 보낼 석재를 채취하는 발파소립니다.》

일본도 넘지 않는 간격을 두고 울린 두 발파소리를 두고 나는 깊이 생각하였다. 지심깊이에서 나는 발파소리와 하늘에서 메아리로 울리는 발파소리, 다같이 그 이름도, 음향도 같지만 어찌하여 그 울림이 이다지도 다른것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목적의 차이에서 오는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하늘에서 메아리로 울리는 발파소리, 그것은 라원의 강산에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해 울리는 장엄한 진군소리였다.

지나간 나날에 수없이 들어온 발파소리였으나 이 시각 관문점에서 듣는 그 소리는 류다른 감정을 갖게 하였다. 얼마전에 공화국정부에서는 군사무력

을 10 만명을 줄이며 1992 년까지 10 만명이하의 병력을 둘데 대한 단계적 무력축감방안을 내놓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에 동의해나설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그리고 북과 남이 지금과 같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속에서 구원하며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시키려는 일념에서 주동적으로 그 많은 군사인원들을 한꺼번에 축소하여 사회주의 대건설장에 보내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있는 현시점에서 울리는 발파소리기에 숭엄하게 들리는것이다.

하지만 쿵크리트장벽으로 나라의 절반땅을 갈라놓고 온 강토를 핵전쟁연습마당으로 만들고도 부족하여 땅속깊이까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넣으려고 지심깊이에서 울리는 발파소리는 운명의 마지막 극한점에 이른자들의 발악인것이다.

그래서 관문점을 찾은 외국의 한 손님은 저 발파소리를 듣고 적들이 땅굴속에서 하는 행위를 가리켜 두더쥐들의 장난이라고 비난하고있다.

최근에만도 공화국정부에서는 평화애호적인 발기들을 련이어 내놓았으나 놈들은 그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팀》이요, 《울지》요, 《땅벌》이요 하면서 하늘과 땅, 바다에서 련이어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섰다. 더구나 평화와 안전이 가장 원만히 보장되어야 할 관문점가에서 공공연히 땅굴을 파고있으니 어찌 못사람들이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예로부터 네계절의 특유함이 비길데 없고 산 좋고 물 좋아 아름다운 금수산장이라면 조선땅에서 난 두 발파소리를 두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싶다.

하늘에 메아리로 울리는 발파소리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민들의 웨침이라면, 지심깊이에서 나는 발파소리는 이 땅에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원하는 전쟁의 《포성》이라고.

하늘에 메아리치는 그 소리는 이 땅에 지상락원을 세워가는 승리자의 함성이라면, 지심에서 나는 발파소리는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자유와 민주를 폭압으로 짓밟아버리려는 야수의 울부짖음이다. 그러나 묵묵히 감수하고있을수만 없는 발파소리, 지심을 울리는 발파소리는 조국땅 남쪽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림없이 계속 울리기에 우리들을 긴장으로 부르고있다.

하여 공화국 하늘가에 발파소리를 더욱 세차게 울려 저승길로 줄달음하는자들이 지름길에 들어서게 이 땅에 메아리치게 하자.

해빛을 그리네

-남녘의 한 대학생이 부른 노래-

안성수

꽃이여
젊은 가슴에 안겨
행복의 노래
희망의 속삭임에
밝게 웃어야 할 꽃이여
너마저 내 마음에
분노를 더해주니

바라보기조차 괴롭구나
시들은 꽃잎에 뿌연 이슬방울
아, 보느니마다 떨구고간
세월의 눈물 아니나

최루탄 화염속에
향기 잃은 꽃
강도를 적시는 피눈물에
절은듯 정기없는 구슬픈 꽃이여

청춘들의 저 눈동자를 보라
내 그들을 위해 꽃을 안고
웃음을 웃으려 해도
그들의 불타는 눈도
해빛을 그리누나

생을 둔 삶이
어찌 단증을 갈망하지 않으랴

꽃잎이 주어야 할 향기는 아니주고
너마저 이 땅에선
분노를 더해주니

웃을수 없노라
꽃을 보고도
폭압의 광풍속에 시들수도 없노라
너도
나도
삶은 해빛을 그리노니

맑은 물 흐르는 대지를 다오
최루탄 구름 아닌
맑은 하늘을 다오
따사론 해빛을 다오

너 청춘들 가슴에 안겨
뜨거운 속삭임에 웃을 때까지
꽃향기에 한껏 취해
삶의 터전을 우리 걸을 때까지

투쟁의 불길이어
맑은 하늘을 다오
맑은 해빛을 다오
자유로운 들판을 다오